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석탑, 그대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정욕보다 더 무서운 불길은 없다
무명보다 더 깊은 함정이 없으며,
탐욕보다 사나운 급류는 없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7호 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지탄받던 주지 선거 만장일치 추대 전환

조계종중앙종회 산중총회법 개정안 수정 통과

앞으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이 선거가 아닌 합의 추대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선거를 통한 폐해가 많았던데 대한 대안이 입법화 된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1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종단 쇄신위원회가 제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종법 개정에 따라 조계종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선거가 아닌 만장일치 합의 추대 형식으로 바뀐다.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위임하게 된다. 후보자 1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산중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하며, 2인 이상 등록시에도 만장일치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장일치로 간주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주지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 다수결 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산중 고유 방식이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11인 이상 2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추천위원장은 산중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회의를 개최하고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당해교구 재적승 중 비구는 중덕 이상이며, 비구니는 2년 이상 재직 중인 말사 주지를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비

추대 형식 선출 골자
비구니 참종권 확대돼
비위행위 제약도 명문

구 구성원의 1/5이 안될 경우는 1/5만큼 정덕 이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 순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본사 주지 자격을 법계 종덕 이상, 승랍 25년 연령 70세 미만인 종무행정, 입법, 사법의 경력을 충족하게 했다.

선출에 있어 이뤄진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제재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나 산중총회 구성원, 추천위원은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 금품 및 재산 상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품이나 매관매직 등을 행했을 경우 공권정지 5년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했을 경우 공권정지 2년에서 5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위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본사 주지 선거는 1994년 종단 개혁으로부터 시작해 18년 간 유지된 제도로 그간 금권선거 및 선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으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을 발의한 종단쇄신위원회 간사 덕문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본사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의 폐해가 빚어져 종단의 신뢰가 추락하는 큰 원인이 되어왔다"며 "이번 쇄신안은 추천제의 도입과 함께 본사주지 선출과정을 단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시켜 매표행위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쇄신위 부위원장 법안스님도 "산중총회법 쇄신안이 위원회가 노력한 첫 성과"라며 "총무원장 선출을 포함한 선거제도개선 ▷청규제정 ▷종단종무쇄신 ▷승가복지제도 등 쇄신의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제따원 학교 신축 준공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9월 20일 미얀마 바간주 냐웅우 지역 제따원 사찰에서 학교 신축교사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사진 왼쪽)을 비롯해 현지 프로젝트 진행단체인 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제따원 주지 우 아데익사 스님(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불자들은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 양곤, 바간, 만달레이 등에서 성지순례도 진행한다. 관련기사 5면

미얀마=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지성의 場 '불교평론' 폐간되나

21일 편집회의… 겨울호부터 발간 중단

한국불교의 논단이자 지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이 폐간된다.

홍사성 〈불교평론〉편집인은 "〈불교평론〉 폐간을 이미 결정했고 이번 겨울호부터 제작하지 않는다"며 "경허 열반 100주년을 맞아 다양하게 스님의 삶을 조명하려 했지만 수덕사와 신흥사 스님들에게 누를 끼쳤다. '유구무언'이다"고 말했다.

폐간의 결정적 이유는 2012년 가을호에 실린 경허 열반 100주년을 맞아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기고한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 문제가 됐다. 수덕사 측이 이에 대해 항의했고, 발행처인 만해실천선양회에서 폐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불교평론〉 측은 서점에 입고 된 서적들을 회수 조치했으며, 개인 회원들에게는 편지를 보내 책을 다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9월 21일 열린 편집회의에서도 '올해의 논문상' 등 잔여 사업과 내년 사업 백지화, 이미 청탁한 원고 청산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평론〉의 폐간 결정에 후폭풍을 맞은 것은 수덕사와 경허 100주년 기념사업회다. 문중 어른인 경허 스님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논쟁이 아닌 사적인 항의로 대응해 폐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의 한 스님은 "〈불교평론〉측에서 저간의 사정

경허선사 관련 기고 문제돼
수덕사, 책 회수 요구
"건전한 논쟁됐어야" 여론

을 설명·사과했고, 수덕사 측은 '참회한다면 책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폐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중이 제기한 문제의 요지는 기고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간 언론에 배포한 데 있다"며 "논쟁이 있다면 논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문도인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반박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폐간의 여파는 당장 경허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에도 미치고 있다. 10월 중 열리는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K교수가 발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계 여론도 부정적이다. 건전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불교계 출판 관계자는 "매체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쟁은 매체 안에서 건전한 비판과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발행처에 항의하고 책을 회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999년 겨울호로 시작된 계간 〈불교평론〉은 지난 10여 년간 척박했던 한국불교학계에 건전한 논단을 제공해왔고, 2009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회 대원상 재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907호 INDEX

종합 2·3
10·27 법난위 정상화 촉구
조계종 '비구니의원 연구회' 발족
"전통사찰 중첩규제 풀어야"
조계종 '야단법석2' 첫 마당
"동대 경주캠 강도 높은 구조개혁'

시방세계 5
봉은사 미얀마에 신축교사 준공



신행 6
추석맞이 특별템플스테이

지역 10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

부처님 10대 제자에게 배운다 14
수보리 〈상〉

나의 신행 나의 서원 16·17
안청정행 보살

세계에 간화선 정수 전한다

종정 진제 스님, UN세계종교지도자 초청 법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이 간화선법의 우수성과 평화의 방법을 세계에 전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오는 10월 4일 UN플라자 빌딩에서 UN세계종교지도자 모임 초청 법회를 진행한다.

이번 법회는 UN의 NGO로 등록돼 있는 New York Interfaith Center, The Temple of Understanding, The Riverside Church of New York 등 단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진제 스님은 세계 종교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위한 법문을 설한다.

진제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세계평화와 생태학적 위기: 불교의 견해'라는 주제 법문을 설하며, 동양 정신문화 골수인 간화선을 통해 전쟁, 갈등, 억압, 빈곤과 자연환경 파괴 등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서는 세계종교지도자 및 국제환경운동가 50여명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며, 법문 과정에는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된다.

진제 스님은 법회 참석을 위해 10월 1일(한국시간) 출국해 10월 3일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담임목사 더글라스 코어 주최 만찬 참석, 10월 4일(현지시간) UN 세계종교지도자 모임 및 법문, 10월 5일(현지시간) 이슬람지도자 초청 만찬 참석 등 4박 6일의 일정을 마친 뒤 10월 6일(현지시간) 귀국한다.

신중일 기자



오윤희 지음,
440면, 20,000원

왕자의 권세도, 깨달음조차도 버리고 일을 선택했던 왕자 승통!

'천둥이 진동하듯, 비와 이슬이 천지를 적시듯'
과감하고 단호하게 일을 해냈던 일꾼 의천!

그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불교 문헌결집을 이룩한 문헌전문가요,
평생 강연을 쉬어본 적이 없는 교육자였으며,
다섯 임금을 모시고 국가 경영의 중심에 선 정치가요,
승통으로서 불교 종단의 개혁을 꿈꾼 위대한 개혁가였다.



누구나 일은 한다. 일이나 일꾼이라면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의천이란 인물이 특별한 까닭은 그의 일이 특별했기 때문이고, 그의 선택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격변기를 거치며 책은 불타버리고, 지식과 문화의 전통은 지리멸렬, 단절되어 잊혀져버린 시대.
장소(章疏)의 전통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던 시절, 의천은 그런 전통과 가치를 복원하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천 년의 세월과 아시아 대륙을 망라하는 엄청난 일인 문헌집성을 이룩하였다. 그 규모와 배포를 상상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의천이 이룩한 수많은 일들은 그 시대 난리통에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고, 의천의 일도 까맣게 잊혀진 지 이미 오래.
저자는 남아 있는 기록과 흔적을 찾아 마치 퍼즐조각 맞추듯 의천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내고야 말았다.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지음,
400면, 20,000원



동아시아 지식의 보고
고려대장경.
천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오해와 진실.

대장경에 담긴 고려인의 정신세계,
지혜의 큰 그릇으로서의
대장경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석탑, 그대

이 기 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듯이
긴 세월, 몸매 고운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
천년을 기다려도
아직 기다림이 남았는지
그녀는 삼백예순의 낮과 밤을 누굴 기다려
오늘도 먼 곳을 바라본다
여기, 의성군 금성면 탑리
눈썹과 아미와 매무새를 단장한 신라 여인이여
단순호치는 아니어도 그의 어깨와 유방과 들레는 꽃답다
구름이 오면 구름과 벗하고
바람이 오면 바람과 손래잡기하는
아리따운 그대여
무수한 낮과 밤이 그대를 스쳐도
늙는 것은 세월뿐, 아직도 청 이 그대
옥이 부딪는 소리같이 낙랑한 목청
나는 듣는가 혹은 듣지 못하는가
맑은 날 기려 내 그대를 맞노니
이미 가녀린 한 몸으로 역사가 된 그대
손으로 만지면 다수운 체온이 흐를
석탑, 그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기철 시인은… 경남 거창 출생.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등.

10.27법난위 정상화 목소리 높아

조계종중앙종회 종책질의 '10.27법난위' 관련 의제 집중

지리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10.27법난 피해자명예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제191회 임시회에서 종회의원들은 10.27법난피해자명예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이어갔다.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은 "총무부장이 당연직 위원에 취임해야 하고, 관례적으로 위원장에 임명됐다"며 "전임 총무부장이 퇴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고 현 총무부장도 의견만 교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호 스님은 "10.27법난심의위에 현역 군인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으며, 제정 스님도 위원회 운영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법광 스님은 "현직 총무부장과 사회부장이 민간위원에 참여하고 총무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지만, 위원 해촉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며 난항을 겪었다"며 "종단은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 총무부장 지현 스님을 추천하고 위원장 직을 인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법률 개정, 지원단 인적 구성의 문제, 피해자 심의 지연 등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며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인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지현 스님으로 교체
내년 6월 만료 연장에 주력
정상화 촉구 결의문도 채택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10.27법난위원회는 직원의 절반이 현역군인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는 국방부가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발족 초기부터 사전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 여부를 심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4년 9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는 "국방부가 위원회에 파견한 지원단이 10.27법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법난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10.27법난이 실체적 진실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피해 스님과 단체의 명예도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18~19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191회 임시회에서는 10.27 법난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원 스님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어 중앙종회는 △10.27법난위원에서 예비역을 포함한 군인을 즉시 철수시킬 것 △국정조사 실시 △모든 피해자가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도록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이번 회기 간 각종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미등록 사설 사암 창건주 은사로 인해 교육과 법계에 불이익을 받는 도제를 구제하기 위한 승려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미등록 사설 사암 창건주의 도제는 사승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원로회의 종헌 인준 거부로 190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항을 원 위치로 전환하는 선거법,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교육법, 포교법, 호계원법, 종무원법, 법규위원법 개정 번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계로 규정했던 각 교역직 인사 자격이 다시 원 상태로 복원됐다.

한편, 모든 안건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회기 일정을 단축하고 9월 19일 폐회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니 참종권 확대 힘쓸 것"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연구회' 발족

초대회장 일운 스님 선출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정립과 종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됐다.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연구회는 9월 19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장으로는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이 선임됐으며, 총무에는 지홍 스님, 감사에는 정운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비구니의원 연구회 초대회장 일운 스님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들은 적극적인 종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했다"며 "비구니 승가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심을 실현하고 실천해 소통과 화합의 진취적인 승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비구니의원 연구회는 ▷비구니 승가의 올바른 위상 정립 관련 사안 연구 및 조사 활동 ▷비구니 의원 전문성, 자질 향상 ▷재가여성불자들이 신행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스님들은 9월 19일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43기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회향

조계종교육원, 20일 직지사서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0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제43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법회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수계 교육 유나 도일 스님을 비롯한 각 율학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에서 교수사와 습의사스님들이 참석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회향사와 치사를 통해 사미, 사미니 스님들에게 올바른 수행자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9월 20일 직지사에서 제43기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회향식을 봉행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남행자 78명, 여행자 30명이 사미, 사미니 수계를 받았다.

신중일 기자

춘천BBS 10주년 음악회… 속초 중계소 개국

춘천불교방송은 개국 10주년(11월1일)을 앞두고 10월13일 속초와 양양, 고성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속초중계소(FM 93.5Mhz)를 개국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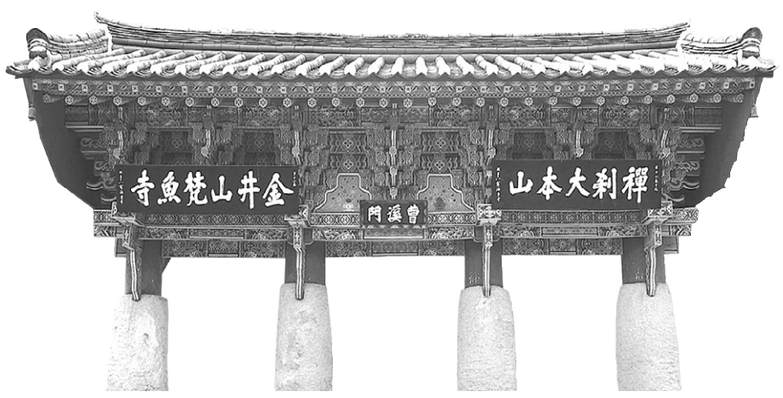
이와 관련, 춘천불교방송은 중계소 개국일인 10월 1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설악산 소공원에서 방송국 개국 10주년 및 속초중계소 개국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산사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춘천불교방송사장 법검 우송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주지)을 비롯한 교계인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채용생 속초시장 등 초청인사가 참석하며, 음악회에는 정태춘과 박은옥 등이 출연한다.

김주일 기자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 경원(經院) 개설

불기 2556년 동안거결제 경원 대중모집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律은 부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禪 · 敎 · 律의 3개의 다리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불교라는 큰 솥을 2600여년 동안 떠받쳐 왔으며, 한국불교의 저변에 면면히 흐르는 통섭과 융합의 문화는 定慧雙修와 禪敎不二를 통하여 17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禪院의 결제와 더불어 經院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불법 수레의 두 바퀴가 될 것이요, 불교 새의 양 날개가 될 것입니다. 금번 범어사에서는 동산 경원을 개설하고 매 안거기간마다 단일 경전강독을 원칙으로 경전 한편을 선택하여 그에 정통한 법사스님을 모시고 결제기간 중 수선실참과 경학연구에 매진할 경원 대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도 동안거 경원 과정 안내

연찬과목 선문촬요
교 수 사 홍선, 무비, 지오, 용학 외 초빙교수
기 간 불기2556(2012)년 동안거 (2012년 11월 28일 ~ 2013년 2월 24일)
모집인원 안거학인 00명
응시자격 법납 5년이상의 비구
제출서류 입방원서(본 원 소정양식) ····· 1부
수행이력서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 1부
반명함판 사진(3.5×4.5) ····· 3매

원서교부 범어사 동산 경원, 범어사종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원서접수 범어사 종무소
접수기간 2012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음력 9월 15일 ~ 18일)
전형방법 사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전형일시 2012년 11월 2일(금) 오후 2시 (음력 9월 19일)
문 의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우) 609-8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동산 경원 원장 무비

템플스테이 광고전 대상 '마음의 쉼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공동주최로 실시한 '제1회 템플스테이 대학(원)생 광고 공모전'에서 '애플회식' 팀 이건희(24, 상지대), 조정화(22, 상지대)의 '마음의 쉼표' 〈사진〉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인 '마음의 쉼표'는 템플스테이의 이미지를 알기 쉽게 형상화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대상 외에도 특별상 1팀, 각 부문별로 최우수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입상했으며, 시상식은 9월 20일에 개최됐다.

신중일 기자

전통발효음식 교육과정 개설

진관사, 26일부터 16주간

된장과 고추장 등 전통발효음식 강좌가 마련됐다. 진관사(주지 계호스님)는 9월26일부터 16주과정으로 '전통발효음식 조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16주 동안 총 40시간 과정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직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 강좌는 된장과 고추장, 장아찌 등 각종 저장발효음식 조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강의로 진행된다. 이는 향후 사찰음식 조리사로서 창업 및 창직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제공돼 눈길을 끈다.

강의는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스님과 연구원, 한의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저장발효음식에 대한 조리법과 효능 등의 이론강의가 진행된다. 또 수강생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만든 발효음식을 판매용으로 포장하고 판매까지 체험하는 과정이 마련된다.

또한 수강생을 4개 팀으로 구성 멘토를 배정, 교육 이수 후 실제로 창업이나 창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혜숙 기자**

"사찰 중첩규제 법령 철폐해야"

김봉석 변호사, 20일 선재포럼 정책 세미나서 강조

전통사찰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봉석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9월 20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재포럼(상임대표 박대성) 주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불교 규제 국가 법령과 더불어 봉은사와 승가사 등 피해사례에 대해 주목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봉은사는 신도회 건물 등 19개소를 신축하며 25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강북 화계사는 대적광전, 보회루가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강제 이행금 5억 원, 변상금 1억 5천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통사찰은 중첩 규제로 인한 이해강제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소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감안해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전통사찰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택지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변호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의 수용보상금을 건물과 토지 시가로 선정하는 방식 ▷토지 재매수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중첩 규제로 무허가 건물 양산
제한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해야
택지 개발 시 종교 할당제 필요

또한 신도시 종교용지 분양에 있어서도 ▷종교별 할당제 실시 ▷토지 수용 사찰에 대한 장기 임대 ▷수용된 전통사찰의 우선 분양권 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신도시 내 종교 용지 분양에 있어 불교계가 분양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대부분 종교 용지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개신교계가 독식하고 있다. 분양 방식에 대한 제고와 종단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와 노천문화재에 대한 정책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용철 안양대 교수는 '폐사지 및 노천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책' 제하의 발제를 통해 "비지정 사지와 노천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현황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문화재청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 사지 관련 규정 시행 위한 관련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 현안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총무원장 특보단장 원담스님, 태고종총무원 부원장 청봉스님, 진각종 문사부장 덕정정사, 정갑윤, 안홍준, 김장실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선재포럼은 오는 10월 중순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종교화합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재포럼은 9월 20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봉석 변호사는 전통사찰 중첩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깨달음은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야단법석2' 첫 마당 열어

불교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9월 19일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조계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야단법석 시즌2'에서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첫 번째 마당의 주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자기 회고적 질문들을 던졌고, 이 질문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답했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설명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며 "중국 선종에서 '깨달음'이라는 경지가 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런 영향을 한국불교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경전에서도 '깨달음'을 명시한 구절은 없다"면서 "굳이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삶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답을 진행한 도법 스님 역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깨달음이고 불교"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결사추진본부가 개최하는 '야단법석 시즌2' 두 번째 마당은 9월 26일 오후 7시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이야기 손님으로는 조계종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경주캠 강도 높은 구조개혁"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종관위 발송 공문서 밝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이 최근 취업률 허위보고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린 경주 캠퍼스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 주문을 천명했다.

정련 스님은 9월 17일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스님은 "최근 대학 평가의 척도는 취업률이지만 현재 경주캠퍼스의 학문 구조는 인문학 학제로 구성돼 있어 취업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인은 경주캠퍼스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이며 사회적 수요가 우선되는 학문 구조로의 이행만이 대학 구조조정의 엄혹한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2년 뒤 아시안게임에서도 기적 이룰 것"

런던올림픽 · 패럴림픽 불자 선수단 환영 법회

올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2012런던올림픽과 런던패럴림픽 선수들이 불자들의 환대를 받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불자 선수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0회 런던올림픽 제14회 런던패럴림픽 불자 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이운택 체육인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이기흥 런던올림픽 선수단장(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종길 태릉선수촌장, 체조 양학선 선수,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불자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선수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스님은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한 9명의 감독과 코치들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기흥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은 답례사에서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 뒤에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7일 불자선수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30회 런던올림픽 제14회 패럴림픽 불자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제 4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알아
맛에 탐닉않는 수행자로
2012.10.5 금 - 10.6 토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프로그램
동문스님들 바자회
바라밀장터
산사음악회 (사회:이수근 1박2일출현)
보시행 속의 경연마당
지계행 속의 시연마당
인욕행 속의 탁발공양마당
정진행 속의 정보마당
선정행 속의 공연마당
지혜행 속의 체험마당
문의 및 안내 봉녕사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m.bongnyeongsa.org
※사찰음식 경연대회 참가신청은 10월 2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홈페이지 참조)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묘엄불교문화재단, 심우불교대학, 선우회, 진여회,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방경찰청

일 주 문



인드라망 '2012 가을 한마당'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 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2012 가을 한마당'을 개최한다.



'마음챙김수행의 날' 개최

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BTN불교TV와 공동으로 10월 20일 플럼빌리지 법사단을 초청, '마음챙김수행의 날'을 펼친다.



'소통의 길 3천배' 정진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27일 대웅전에서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소통의 길 3000배'를 진행한다.

(02)720-1390



제22차 '비움으로 행복찾기'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9월 21일 서울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제22차 '비움으로 행복찾기'를 개최했다.



도원사 산사 음악회

전남 화순 도원사 주지 진철스님은 오는 10월 1일 도원사 야외음악당에서 도원사 개원 6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다문화 어울림 마당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은 10월 7일 금강사 경내에서 '제4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여러나라 음식경연 및 차 어울림 마당'을 개최한다.



4대강 이후 변화 포럼

참여불교재가연대 이수덕 상임대표는 10월 9일 장충동 만해NGO문화센터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대불종 만주사 시민화합 경로잔치 봉행



한국불교 대불종 총본산 만주사(총무원장 만주)는 아산시 번영기원 시민화합 경로잔치를 9월 15일 만주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석보광 대법황을 비롯하여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의륜스님, 송산 총무원장 등 종단 임원 및 각 종단 지도자 및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만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주사 수행정진 10년을 회향하는 큰 의미를 담아 쇠퇴해 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들인 공양을 올리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사는 의륜 이사장, 송산 총무원장, 해광 이사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이 했다. (041)547-7792

"정상화와 문도화합에 힘쓸 터"

신임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사부대중 108배 참회 정진

광제 스님 방장 추대 예정

"그동안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던 백양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백양사 주지직 무대행을 맡고 있던 진우 스님〈사진〉이 9월 17일 신임주지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에게 백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백양사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빨리 본사를 안정시키고, 파행적으로 이뤄진 일들을 수습하여 수행도량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총림의 정상화, 문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백양사 소임자와 참여대중들은 100일간 참회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예불 후 108배 참회정진과 정근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백양사 대중들이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고 있다.

진우 스님은 "백양사는 최근 2~3년에 걸쳐 본사로서 진행되어야할 많은 것들이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중 선원, 강원, 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점과 종무행정의 미비, 일부 문도간의 갈등을 꼽았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진우 스님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 수행처인 운문암이 안거기간에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태여서 대웅전 뒤에 신축중인 하선원(前 고불선원)을 보완하여 동안거를 지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폐쇄 직전인 강원과 율원을 복원하고, 향후 염불원까지 설치하여 총림의 골격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만암 · 서옹 스님의 뜻을 잇는 '참사람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참사람운동에 대해 진우 스님은 "불교적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중들을 위한 참사람 운동을 전개하겠다. 백양사 스님들뿐 만 아니라 석학들을 초청하여 연구단체를 만들고 정기적 세미나와 신행조직을 만들어 전국화 하겠다"며 "향후 선원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결연사업을 진행 새로운 선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방장선출과 관련된 산중총회에 대해서는 "향후 대중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옹 · 수산스님의 부촉유시에 따라 광제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한다는 원칙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양사에는 문도스님 30여 명이 참회기도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바쁜 손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진우스님은 의외로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겉으로 보는 백양사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스님의 입장으로 보면 지나가는 인연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기에, 지금 상황에 끄달리지 않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외 원조사업 활성화하겠다"

'(사)하얀코끼리' 발족한 범해 운영위원장 스님



"해외원조사업은 불교계가 기독교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외원조와 문화교류를 확대해보자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를 설립했습니다"

해외원조사업을 위한 불교계 단체 '사단법인 하얀코끼리'가 발족한다. 이에 운영위원장 범해 스님(개운사 주지 · 사진)은 9월 19일 갤러리나무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업 내용과 목표를 설명했다.

하얀코끼리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화엄사 문화센터건립 ▷조선족 유치원 지원 사업 ▷네팔 자원봉사단 파견사업 ▷네팔 바글룽 지역 초등학교 지원 사업 등을 벌인다.

범해 스님은 "지난 6월 20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이었던 보림회가 조계종단의 쇄신노력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해체를 결의했다. 하지만 영담스님이 '이왕 한번 맺은 인연이니 이 인연을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아직은 부족한 해외원조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가 보자'고 제안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안에 따라 보림회 회원 스님들은 전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7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어 범해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영담스님은 설립준비위원장 겸 이사장을 맡았다. 하얀코끼리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진각종, 동국대 병원과 진료 협약

신도 10%, 스님 · 스승 25% 감면 혜택



진각종 교도들도 동국대 병원에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와 동국대의료원 태석기 원장은 9월 17일 동국대 일산병원 4층에서 진료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진각종 신도들은 동국대의료원 산하 일산병원과 한방병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분당한방병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경북 경주시 석장동) 등 5개 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및 입원진료비의 비급여, 선택진료비 1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교계 스님과 스승(정사, 전수)들은 본인부담금의 25%를 감면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각종 통리원 기획국장 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상명 정사, 동국대 일산병원 법사 대업 스님, 채석래 일산병원장, 김민호 행정처장, 곽월희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신축법당 국방부에 기증



조계종이 국방부에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법당을 기증하며 불사를 성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정호 육군훈련소 소장에게 장병 정신교육도량으로 활용해달라며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기증서를 전달했다. 김정호 소장은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도량"이라며 "그릇이 큰 만큼 많은 장병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호국연무사 불사에 큰 힘을 보탠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민병덕 국군불교후원회장(국민은행장), 호국연무사 주지 현조 이동경 법사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울산사암聯 '자비도량 참법 기도'



울산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불교신도회가 주관하는 '제 2회 자비도량참법 5일 정진 기도법회'가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 법회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봉행됐다. 한편 이날 모연된 수익금 1천5백여만원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성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이 주최하고 FC붓다(회장 이동격)가 주관한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가 9월 15일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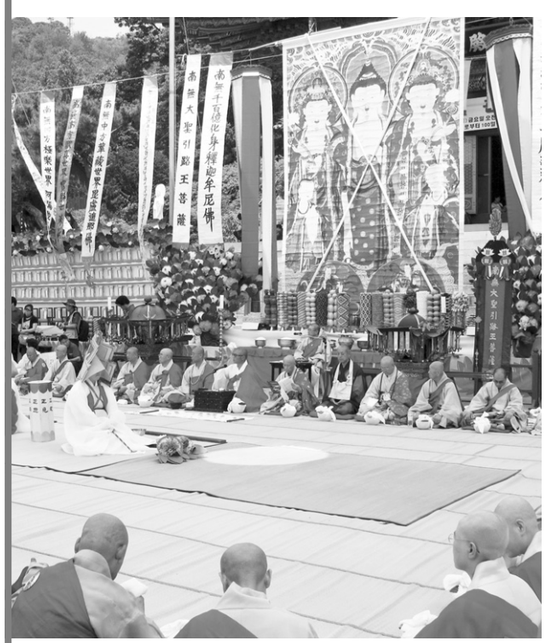
불교계 최초 연합 축구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중앙승가대학, 한국불교기자협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사자후 봉은사 연합팀,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사설사암연합회), 총지드레곤즈, FC붓다 총 8개 팀이 출전해 축구경기와 번외경기로 족구시합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경기는 승부차기로 총지드레곤즈가 초대 우승을 차지 우승트로피와 상금, 부상을 받았다.

제10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국제학술 세미나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 1회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천년의 원형을 유지하며, 한국 불교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영산재는 한국의 대표적 불교예술로써 세계적 무형문화재 보존가치를 위해 학술적 기반과 더불어 1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이스라엘 공연과 텔아비스대학에서 거행된 제9회 영산재 국제 학술세미나는 유대교와 불교 등 종교 간의 통섭 폭넓은 소통은 세미나의 내적 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금년 학술세미나도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영산재의 위상 재조명 및 학술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 제 : 불교의식의 현황 – 과거, 현재, 미래

개회사 및 인사말 Opening Address & Greetings

개회식 오후 1:00 ~ 1:40

개 회 사 : 원허스님 (옥천범음대학장, 봉원사 부주지)
축 사 : 인공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구해스님 (영산재 보존회 총재)
일운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장, 봉원사 주지)
기조연설 :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 해외에서 바라본 영산재의 위상
진 행 : 김응기 (법현) –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국내 발표자 논고
1. 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일고찰 심만춘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2. 한국 불교의례의 전통과 석문의범 양은용(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3. 불교 공연예술 박진태(대구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4. 불교 예술 무용 – 승무 – 정재만(숙명대학교 무용학과교수)
5. 불교 음악 선율 분석 김세종박사(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교수, 다산연구소 실장)

해외 발표자 논문
6. 대만불교 의식 현황 의은스님(대만불광사 한국분원 불광산사 주지)
7. 중국 불교의식 현황과 연희 박영일 (중국 연변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해외 발표자 투고 논문
8.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방글라데시의 바울 노래 (BAUL SONGS OF BANGLADESH)
발표자 : 모하메드 알리 (방글라데시정부 기원연구부 지역책임자)
9.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부탄 불교무용 – 드라메체로부터의 북춤
발표자 : 틴리 감쵸 (부탄 문화부)
10.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러시아 – 쿠티야참 – 세기의 귀중한 보물
발표자 : 리도바 N.R., 세계 문화연구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모스코바
11.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일본 – 노우(能のう) 일본노우 무형문화재재단
발표자 : 노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좌 장 : 유민영(연극 평론가, 단국대 명예교수 현 서울예술대학교 석좌 교수)
토 론 자 : 김영렬박사(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김말애(경희대 무용과교수, 문화재위원)
김향금(국립창원대학교 무용과교수 문화재위원),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손병우(예원예술대학교 무용과교수) 김태훈(원광대 한국문화학과)
최성규(위덕대학교) 김응기(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장 소 :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7시
서울 신촌 봉원사 옥천범음대학 2층 세미나실 (02-392-3234) 담당자 김혜련
주 관 : 한국불교태고종,(사)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영산재보존학회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협 찬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사)세계문화예술컨텐츠교류연맹, 불교음악연구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봉은사, 미얀마에 '강남스타일' 자비행

9월 20일 바간 제따원 사찰에 초등학교 교사 준공 법회

바자회 열고 기금 5400만원 모금 80여 불자 참석…동화책 등 선물 현지 어린이들 "한국불교에 감사"


제따원 학교 교실에 '코리아'가 적힌 칠판 앞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다. 봉은사 신도들은 이들이 자라나 한국을 기억할 것을 확신했다.

"Do you know '강남스타일?' "

전세계에서 '강남스타일'이 열풍처럼 유행하는 가운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미얀마에도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아닌 강남 불자들의 나눔을 통한 리얼한 '강남스타일'이다.

9월 20일 한국의 경주와 같이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미얀마의 고도 바간 주의 한 사찰에서는 이 지역 마을 축제가 펼쳐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국제구호단체 프라미스(상임대표 법등)가 제따원 사찰 내 학교 교사를 준공한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사찰을 부를 때 '짜웅', 학교도 '짜웅'이라 부른다.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오래 전부터 사찰은 학교, 스님들은 선생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학교가 건립된 제따원 사찰도 마찬가지다.

2006년 제따원 주지 우 아데익사 스님은 바간 냐웅우 지역에서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 파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운영을 결심했다. 스님의 원력에 정년퇴임한 우조 후 선생님(76) 등 4명의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탰지만 곧 한계가 닥쳤다. 46명의 아이들이 300여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가난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을 사찰이 외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교사 수는 8명으로 늘었지만 교실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하루 7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는 고학년 학생의 경우 이부제 수업으로 1년 만에 학년 수업을 모두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소식을 멀리 한국에서 들은 봉은사 신도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모금활동도 강남지역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다웠다. 신도회가 연 제따원 학교 건립을 위한 바자회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수익금으로 곧 제따원 학교 건립 기금 5400만원이 마련됐고 미얀마 등지에서 국제구호에 나서고 있는 불교계 NGO 더 프라미스가 현지 파트너로 2012년 2월 기공식에 들어갔다.

8월 경 학교가 준공된 이후 봉은사는 제따원 사찰 측의 초청을 받았다. 여기서도 강남스타일이었다.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간의 미얀마 성지순례를 겸한 제따원 신축교사 준공식 행사에 신도들이 대거 참여했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지로 해 미얀마 양곤을 지나 바간 제따원 까지 가는 시간만도 1박 2일, 그 긴 여정에 80여명에 가까운 봉은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교과서가 부족해서인지 학생들은 이날 받은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었다.


봉은사 신도들이 학교 준공에 앞서 미얀마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윽고 도착한 제따원 사찰에서는 예정에 없던 행사가 하나 추가됐다. 스님들께 직접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봉은사 신도들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따원 사찰 앞에서는 한국불자들이 무릎을 꿇고 제따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사가 펼쳐졌다.

이어진 환영행사에서는 제따원 주지 우 아데익사 스님의 환영사와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의 감사말에 이어 학교 학생들의 전통공연 등이 진행됐다. 봉은사 신도들과 마을 주민들 등 500여 대중은 함께 박수치며 이들의 장기자랑을 관람했다.

제따원 주지 우 아데익사 스님은 "봉은사 여러분의 후원에 우리 미얀마 스님, 교사, 학생들은 너무 행복하다"며 "부족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심으로 학교건물을 후원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진화 스님은 신도들에게 고마움이 섞인 감회를 밝혔다. 스님은 "어렸을 때 흙바닥에 나무의자 하나 놓고 공부하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다. 오늘 우리 신도님들이 낸 마음 하나하나가 이 나라 인재를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치사했다.

이어 우 아데익사 스님이 진화 스님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했으며 이경자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이 동화책과 필기구 등을 우 아데익사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경자 사무총장은 "거리에서 돈을 달라는 모습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하며 미래 꿈을 익혀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아이들이 미래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 후 아이들은 행사에서 '오성과 한음' '우렁각시' 등 미얀마어로 번역된 동화책과 필기구를 나눠받았다. 아이들은 받자마자 교실로 뛰어가 읽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7학년인 윈윈 에(12) 학생은 "한국 스님들과 한국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1학년인 이이 엥(7) 학생도 "책을 받아서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진화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스님, 신도들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제따원 학교 우조 후 선생님은 "한국불자들에게 고마운 만큼 이 아이들을 힘 닿는데 까지 열심히 가르치겠다"며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익어가는 곡식처럼 봉은사 신도들의 뜨거운 나눔열기 속에 미얀마 동량의 꿈은 익어가고 있었다.

한편, 봉은사 신도들의 나눔의 행보는 계속 이어진다. 봉은사는 미얀마, 캄보디아 등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 자선음악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다. 취지에 공감한 COEX 측이 1000명이 수용 가능한 콘서트홀을 무료로 대관하기로 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후원의사를 밝힌 상태다. 진짜 강남스타일은 따로 있었다.

미얀마 바간=노덕현 기자

"아이들이 미얀마의 희망 되길 축원"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입니다. 이번 이번 제따원 학교와의 인연은 우리가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 공덕을 쌓는 기회였습니다."

봉은사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면에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매 법회 때마다 제따원 학교 돕기를 비롯한 보시행을 강조해왔다.

스님은 "법회마다 매번 같은 소리를 들어준 신도들에게 미안하다"며 "준공식을 하는 건물과 학용품, 동화책은 봉은사 신도님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진화 스님은 봉은사 주지 취임 이후 수행하는 사찰, 나누는 신도문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봉은사에 만들어진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나눔장터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일환이었다.

스님은 "신도들이 직접 미얀마 친구들을 위해 물건을 모아 팔고 기부를 받아 기금을 만들고 전할 물건을 마련했다"며 "제따원의 어린 친구들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추석, 산사서 명상 등으로 지친 마음 힐링

가을 · 추석맞아 특별 템플스테이 및 수행프로그램 진행

모든 결실이 여무는 계절 가을. 1년 계획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인 만큼 많은 생각들이 나를 짓누른다. 이제 바쁘게 달려온 1년을 차분히 정리하며 숨고르기 할 시간이다. 낭만과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고요한 산사에서 마음과 몸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다.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함께 보내며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산사 템플스테이와 수행프로그램들을 만나보자.

삼림욕, 명상, 트레킹 등 다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가을을 맞아 명상과 산행이 어우러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에 준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은 농익어 가는 가을 숲길에서 삼림욕과 명상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게 꾸며졌다.

먼저, 올 가을에는 남도로 떠나보자. 남도 답사 1번지인 백련사는 '나를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이라는 테마 아래 '남도기행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단풍이 아름다운 백운동 별서와 천년을 이어온 스님들의 수행처 상견성암 등을 둘러보는 2박 3일간의 여정은 진한 여운과 감동을 전한다.

해안절벽 변산반도에 위치한 내소사는 마음 수행과 산행을 병행하는 '트레킹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천년고찰 내소사의 유서 깊은 향기를 느끼며 명상과 차담을 즐기고, 내변산의 직소폭포, 제백이고개, 관음봉 삼거리, 전나무 숲 등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경북 성주군의 심원사에서 준비한 '단풍에 물드는 心心 거북이 충전소'도 독특하다. 심원사 템플스테이에서는 가야산 만물상 능선을 따라 트레킹을 하며 수려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보름달 보며 소원성취 발원

추석 연휴 기간 열리는 템플스테이들은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소망을 기원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함께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제공된다.

경상북도 경주 골굴사는 '함월산 그윽한 달밤에 달빛명상과 선무드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불가의 수행법인 선무드라(선무도) 수련과 달빛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으며, 솔잎 따기, 송편 빚기, 합동 차례, 윷놀이, 국궁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용인 화운사에서는 '행복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밤 줍기, 송편 빚기, 민속놀이 등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랑명상, 소금 만다라, 풍등 날리며

트래킹 · 소원빚기 · 명상 등
고요한 자연 속에
스트레스 날리고 자기 점검

소원 빌기, 가을 숲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돼 있다.

충남 공주 마곡사는 추석을 맞아 '달빛 솔바람 맞으며' 템플스테이를 갖는다. 태화산 정기를 품은 마곡사에서 낮에는 솔바람 따라 숲길을 걸으며 명상을 하고, 밤에는 달빛 가득한 마곡사 도량을 돌며 가슴 속에 간직해온 소원을 빌어보며 한가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참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을 집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 방배동 제따와나선원은 '팔정도 집중수행'을 통해 수행자가 반드시 익혀야 할 명상법들을 지도한다. 집중수행은 삼일과정으로 성냄과 분노를 버릴 수 있는 자애명상과 붓다에 대한 명상법을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녹차밭에서 즐겁게 차를 따고 있다. 사진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경기도 안성 활인선원은 선원장 대효 스님의 지도아래 화두참선법을 진행한다. 스님의 법문과 화두드는 법, 참선점검 등이 이뤄진다.

서울 상도동 상도선원은 연기 · 중도의 삶과 마음수행의 원리를 알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수행 학교를 진행한다.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이 직접 지도법사로 나서 마음원리 집중강의와, 수행 코칭을 실시한다.

충남 천안의 위빠사나명상센터 호두마을은 집중수행 프로그램과 우울증세와 건강증진을 위한 바른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위빠사나 수행을 중심으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는 참선을 중심으로 한 '참선입문반'을 운영한다.

참선은 본래 부처의 모습을 보기 위한 수행법으로 국제선센터 선원장 법오 스님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계를 잠재우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신중일 · 이은정 기자

〈표〉프로그램 일정(템플스테이 www.templestay.com 참조)

구 분	사 찰	프로그램	기 간	참가비	문 의
가을특별프로그램	대구 파계사	가을 달빛 맞이 템플스테이	9~10월 매 주말	성인 5만원, 학생 3~4만원	(053)984-4550
	강진 백련사	남도기행 템플스테이	10월 26~28일 / 11월 23~25일	15만원	(061)432-0837
	부안 내소사	달빛맞이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성인 10만원, 학생 7만원	(063)583-3035
	성주 심원사	단풍에 물드는 心心거북이 충전소	1박 2일(문의) / 2박 3일(문의)	5만원 / 8만원	(054)931-6886
추석특별프로그램	용인 화운사	행복을 찾아서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성인 6만원, 학생 5만원	(031)337-2576
	용인 법륜사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	9월 29일~10월 1일	성인 6만원, 학생 5만원	(031)332-5702
	화성 용주사	추석 보름달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성인 10만원, 학생 8만원	(031)235-6886
	양평 용문사	천년의 은행나무 용문사 템플스테이	9월 29~30일	성인 5만원, 학생 4만원	(031)775-5797
	남양주 봉인사	한가위 특별스테이	9월 29~30일	9만원	(031)574-5585
	가평 백련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성인 10만원, 학생 6만원	(031)585-3855
	강릉 현덕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9~30일	5만원	(033)662-5878
	인제 백담사	참나를 떠나는 행복 템플스테이	9월 29~30일	10만원	(033)462-5035
	공주 영평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9~30일	성인 6만원, 학생 5만원	(041)854-1854
	공주 마곡사	달빛 솔바람 맞으며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성인 10만원, 학생 5만원	(041)841-6226
	충주 석종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5만원	(043)854-4505
	대구 파계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30일~10월 1일	성인 4만원, 학생 3만원	(053)984-4550
	경주 골굴사	함월산 그윽한 달밤에 달빛명상과 선무드라	9월 29일~10월 1일	성인 5만원, 학생 4만원	(054)775-1689
	산청 대원사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	9월 29일~10월 1일	성인 12만원, 학생 10만원	(055)974-1112
	화순 쌍봉사	나를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1일	성인 5만원, 학생 4만원	(061)373-9041
	해남 미황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9~30일	성인 5만원, 학생 3만원	(061)533-3521
	구례 화엄사	휴식형 템플스테이	9월 29일~10월 3일	성인 4만원, 학생 3만원	(061)782-7600
	김제 금산사	금산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30일~10월 1일	성인 7만원, 학생 3만원	010-6589-0108
	부안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	10월 6~7일	성인 5만원, 학생 4만원	(063)583-3035
수행프로그램	서울 제따와나선원	팔정도 집중수행	10월 4~6일	10만원	(02)595-5115
	서울 상도선원	마음수행학교	10월 4일~11월 29일	20만원	(02)815-3391
	서울 국제선센터	참선입문반	10월 9일~11월 27일 / 10월 13~14일	10만원	(02)2650-2209
	안성 활인선원	손에 잡히는 참선	10월 26~28일	10만원	1644-5266
	천안 호두마을	도경 스님 집중수행 건강증진을 위한 바른명상 프로그램	10월 12~18일 10월 5~11일	문의 35만원	(041)567-2841

내·외국인 대학생 한국불교 체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9월 22~23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대전 · 충청지역 청년불교문화 국제교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포교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중인 내 ·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도, 참선,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국제포교사회 측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가진 한국과학기술원 외국인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불교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름길

조계사 불교대학과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행복한 노후생활 마련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을 운영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성인 남 · 여 50~60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황금빛 인생후반전'은 10월 10일~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 동안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연에는 부모교육 전문강상인 권희정 씨가 강사로 나서 '즐거운 우리 가족의 역할 찾아보기' '가족의 중심, 부부' '자녀와의 대화, 잘 할 수 있어요!' 등을 주제로 가족구성의 역할 분석 및 대화방법 등에 대해 강연한다. (02)720-1390

추석 맞이 네팔이주민 축구대회

한국YBA동두천이주민센터(센터장 우르겐 라마)가 추석을 맞아 '능인선원장배 전국 네팔인 축구대회 2012'를 개최한다.

행사는 9월 29일 오전 8시 경기도 동두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네팔인 아마추어 축구단 12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이 기량을 뽐낸다. 행사에는 선수단 및 가족들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르겐 라마 센터장은 "네팔이주민들이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타향살이의 고된 마음을 잠시 잊고 추석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영어도서관 요가교실 개설

서울 종로 불교영어도서관이 인도 전통 요가인 '아유르베다요가'를 10월 6일부터 개설해 운영한다. 강좌는 아유르베다요가로 30년 동안 수행하고 전파해온 린 애멀슨(Lynn Emerson)이 강사로 나서, 요가를 통해 마음과 몸의 조화를 유지하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요가법을 소개한다.

린 애멀슨은 캐나다에서 아유르베다 특별치료 자격증을 이수하고, 미국에서 명상과 아유르베다 고급과정을 연구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아유르베다 의과대학 임상병원 이사를 역임했다.

(02)730-0173

다문화가정 전문자원봉사 양성교육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이 봉사자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정전문자원봉사의 의미와 역할 ▷다문화가정의 갈등사례와 해결 ▷다문화 가족의 상담 실제 등을 바탕으로 10월 23일~11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강사로는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윤석인 소장,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연화 센터장,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장미마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경욱 교수,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예리 센터장 등이 나선다. 참가비 6만원. (02)722-2101~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올 추석 소외 이웃 나눔 행사 '풍성'

교계 복지관, 송편나누기, 합동차례 등 다양

올 추석에도 소외된 이웃에게는 정을 나눠주고 가족 간 화목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행사가 도심사찰과 불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하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영운)= 9월 26~27일 '더불어 함께하는 한가위'를 개최한다. 복지관은 한국야쿠르트 강북지점으로부터 200만원을 후원받아 재가수혜자에게 추석맞이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SK 제2경로당, 오현경로당에서 10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송편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복지관은 9월 30일 오전 9시~12시까지 복지관 1층 데이케어센터에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동차례 지내기'를 실시한다. (02) 999-9179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추교선)= 9월 27일 오전 10시 저소득가정 자립기금 및 아동치료비 마련을 위한 추석맞이 바자회를 개최한다. 별양동 우물가에서 진행되는 바자회장터에는 의류, 장류, 잡화류,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한다. (02)507-6319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 9월 26~27일 추석맞이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연다. 26일 지하 1층 강당에서는 재가어르신 100명과 함께 송편만들기를 진행한다. 9월 27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합동차례지내기를 마련했으며 선물도 증정한다. 또한 복지관은 9월 26~27일 복지관 경내에서 '자양 어부바 축제'를 개최하고 노래자랑, 바둑대회를 진행한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지현)= 9월 28일까지 소외이웃에 명절음식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복지관은 추석용품 및 현금후원 캠페인을 통해 모인 제수용 음식 및 10㎏백미를 저소득 어르신 180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051)265-9471

길음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성운)= 9월 26일까지 250㎏ 햅쌀 모으기 행사를 진행한 복지관은 9월 27일 모금된 쌀로 송편을 빚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02)985-0163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결혼이주여성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맛대맛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전굽기, 송편빚기 등 차례음식 만들기와 차례상 차리기, 손님맞이 예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054)439-8279


불교계복지관은 소외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나눔행사들을 마련했다. 사진은 교계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합동차례 모습.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광진복지관내 영화데이케어센터는 9월 28일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송편만들기, 어울림마당 등을 개최한다. 복지관은 지역내 전문자원봉사단체를 섭외해 민요공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을 마련한다. (02)497-8252

한편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김지훈)은 9월 24일 양양군 내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점심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했다. 같은 날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저소득가구 220세대에 쌀 220포를, 119개 경로당에 라면 425상자를 전달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9월 25일 복지관에서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300세대에 쌀 10㎏와 배 7.5㎏ 1박스, 상품권 10만원권씩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 정각원, 중림사회복지관 운영

9월 20일 개관식 열어, 지상 7층 규모

서울시 중구 서부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9월 20일 개관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중구청으로부터 수탁하고 동국대정각원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 제정 스님을 비롯한 최창식 중구청장, 정호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만 1289.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 '중림종합복지시설'의 4~7층에 자리 잡았다.

음악·한자·영어 교실에서 각종 공예, 댄스스포츠, 고전무용까지 아동·청소년, 성인, 어르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은 물론 커피전문가, 초콜렛 전문가, 미니화단 만들기 등 취업·창업 준비교실도 마련된다.

이용갑 관장은 "동북쪽에 치우쳐 있는 중구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중림·회현·소공동 등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복지를 펼치겠다"며 "무엇보다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경로식당 운영,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게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02)362-3348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 제정 스님을 비롯한 최창식 중구청장 등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저소득 어린이 책가방 보내기 바자회 성료

아름다운동행, 16일 나눔바자회 개최


공익법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 앞에서 후원물품과 의류 및 아동 도서, 주방용품, 생활용품, 쌀국수, 떡국 등을 판매했다.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보내기 위한 기금 마련 나눔바자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공익법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 앞에서 후원물품과 의류 및 아동 도서, 주방용품, 생활용품, 쌀국수, 떡국 등을 판매했다.

바자회에는 2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5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후원물품을 지원해준 단체는 세왕섬유, 잠뱅이, 락앤락, 주니어김영사, 동대문의류상가, 코바식품,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맛, 송인서적 등이다.

이날 나눔바자회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10~12월까지 진행되는 '책가방보내기' 캠페인에서 모금된 성금과 함께 2013년 상반기에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세트 등 입학선물로 전달 될 예정이다.

'책가방 보내기' 기금 동참은 농협 301-0077-7946-11 (예금주:아름다운동행)으로 가능하다.

황송노인복지관, 동국대 한방병원 연계 진료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원장 김장현)은 9월 20일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동국대 병원은 10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스트레스 측정검사, 건강상담, 침치료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장 일운 스님은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성남 지역에 퇴행성 질환이 많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침·뜸의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불교계 의료기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장현 원장은 "양·한방을 결합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기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침구, 약, 진단기기, 물리치료기기 등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속적 의료지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원장 김장현)은 9월 20일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연꽃마을, 국내최대 승마힐링센터 개원

경기도 시흥에 국내 최초 승마 시뮬레이터 도입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국내 최대 규모의 승마힐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연꽃마을은 9월 19일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사업인 승마힐링센터를 경기도 시흥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승마치유는 살아있는 말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승마를 배우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등 청소년의 신체, 심리, 사회적 치유효과가 뛰어나다.

'시흥 승마힐링센터'는 국내 최초로 말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재현해 실제 승마전에 말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승마 시뮬레이터를 도입했다. 또한 재활승마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 10명이 상주하며 15개 상담실에서 50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시흥 승마힐링센터는 승마치료를 중심으로 일반 인지학습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치료, 예술치료, 두뇌훈련, 심리검사, 전문가 멘토링 등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터넷중독,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승마를 통해 치유하게 된다.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라 사설 승마힐링센터에 비해 3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장태평 마사회장은 각현 스님에게 운영비 15억원을 기부했다.

장태평 마사회장은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 하는 승마재활프로그램은 다른 치료와 달리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뛰어난 재활치료"라며 "앞으로 10년 내로 전국에 30개소의 승마힐링센터를 설립해 장애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승마힐링센터 홈페이지(www.krash.or.kr)

이나은 기자


9월 19일 열린 시흥 승마힐링센터 개소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다섯 번째), 장태평 한국마사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각현 스님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 교육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홍근 박사

生과 死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生과 死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대상인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느냐 만큼 중요한 것이다. 결국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삶의 일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의식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웰다잉이다. 지난 9월 19일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웰다잉 심화과정 첫 강의 '아름다운 마침표, 그 아름다운 성장과 하나됨' 이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홍근 박사(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삶과 죽음, 둘 아닌 도리' 를 일깨워주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웰다잉 심화과정 첫 강의 '아름다운 마침표, 그 아름다운 성장과 하나됨' 이 9월 19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홍근 박사(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삶과 죽음, 둘 아닌 도리' 를 일깨워주었다.

선(禪)은 삶과 죽음이 없는 '그 자리(落處/當處)' 를 단도직입으로 직지(直指)합니다. 삶과 죽음은 원래 실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실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삶과 죽음이 없는 그 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방거사 어록〉에 이 '낙처'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년의 방 거사가 약산유엄 곁을 떠날 때, 약산이 열 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산문 앞까지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눈이 내리자 거사가 말했습니다. "탐스러운 눈이 펄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好雪片片 不落別處)" 그때 전(全) 수좌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하고 묻자, 거사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대는 남들이 선객이라 하겠지만, 염라대왕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눈이 있어도 장님과 같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방 거사가 말하는 '그 자리' 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삶과 죽음이 없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그럼 '그 자리' 를 먼저 불교의 핵심인 '연기(緣起)와 성기(性起)' 를 통해 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보현실 법당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연기맵을 그려 봅시다. 이 보현실은 천장 벽 기둥 바닥 전등 좌복 사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또 땅 공기 햇빛 … 결국 우주로 연결되겠죠. 보현실은 보현실이지만, 보현실은 보현실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假合, 一中多).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보현실은 없습니다(諸法無我). 보현실은 보현실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보현실일 뿐입니다(〈금강경〉). 그리고 보현실을 구성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보현실도 더불어 변하고 있습니다(諸行無常). 또한 보현실은 동시에 주위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多中一). 만물은 서로 맞물려 변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러면 '불법' 이라고 할 때의 법(法, Dharma)을 오늘은 이렇게 한 번 풀어봅시다. '법' 이란 말은 '진리' 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제 '법' 무아의 경우처럼 '만물' 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물은 그대로 진리' 라는 말인데, 마치 법(法)이 물 수(水)자와 갈 거(去)자가 합친 것처럼, 만물의 실상은 끊임없는 '흐름(法)' 으로서, 연기실상(緣起實相)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금강경〉에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無有定法).' 고 했는데, 이렇게 만물의 연기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보는 눈(法眼)' 입니다. 연기법은 서구에서 말하는 '존재' 라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존재' 는 환영(幻影)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기법은 인과동시(因果同時)를 드러냅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물은 어느 샘에서 왔겠죠. 이 물 자체는 샘에 있을 때나, 조금 전 컵에 담겨있을 때나, 이제 마셔서 제 몸의 일부가 된 지금이나, 그 자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물은 태어났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위치가 변화되어 온 것뿐입니다. 인연(원인과 조건)따라 제 피가 되었다가, 인연이 다하면 또 다른 것으로 변하겠지요. 연기법에 의하면, 만물도 이 물과 같습니다. 만법은 태어났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옮겨갈 뿐입니다. 이 '태어나지 않는 진리' 를, 부처님은 법의 도장을 꽉 찍어서 '무생법인(無生法忍, 忍=印)' 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실상(法界實相)' 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부증불감(不增不減)입니다.

이 법칙에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상 '죽을 나' 는 없습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가 새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생겨나지 않으니, 죽을 것도 없지요. 오직 연기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문제였던 생노병사(生老病死)에서 노병사는 생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왜 생했을까요? 그 답은 연기법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 가합(假合)된 것입니다. 이 몸이 연기되어 일어난 것이며 끝없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을 나라고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로 만들어졌지만, 태어난 실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멸하는 것들 즉 형상, 생각, 감정 등의 만법을 실체시하고, 특히 이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무명(無明)입니다. 실체시하지 않고 연기실상(法)을 꿰뚫어보는 것이 명(明)입니다. 이 밝음이 반야지혜입니다.

연기법과 성기법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 설명
웰다잉은 죽을 '나'
없음을 알아가는 과정

〈화엄경〉에서는 이 수평적 연기를 수직적 성기(性起)로 확장했습니다. 아까 연기맵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연기법에 의해 만물은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막히죠? 우리 안에는 정신의 벽이 있습니다. 연기맵의 만물은 사실 바탕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형상(諸相)에 시선을 뺏겨 그 바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기로 가합된 환영의 실상을 꿰뚫어보면(若見諸相非相), 그 바탕(性品)이 드러납니다(即見如來). 수평적 차원에서 수직적 차원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연기된 만법이 생멸하는 '바탕(그 자리)' 의 발견! 모든 것이 그 바탕에서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마조와의 문답에서 심안을 연 방 거사는 눈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 바탕 자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바탕은 텅 빈 것 같지만, 실은 신령스런 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空寂靈知). 진공인 듯하지만, 생명이 가득합니다(眞空妙有). 온 법계가 오직 본래 청정한 그것뿐입니다.

마라나 존자는 '마음이 만 가지 경계 따라 나툰다(心隨萬境轉)' 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진공묘유의 공(空)이자 바탕(性品)입니다. 그 바탕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性起). 공즉시색(空卽是色)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다하면 돌아갑니다(色卽是空). 연기가 성기로 전환되면서, 바탕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색과 공이 불이(不二)인 일심법계로 회통됩니다. 알고 보면 일체가 아미타불의 나툼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물 자체를 실체로 안보고 주변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法)으로 봅니다. 인간도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상황일 뿐입니다. 결국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을 '나' 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나는 '불이(不二)의 색과 공'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은 처음부터 변해가는 환영일 뿐이며, 결국 나의 성품인 바탕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알고 보면 참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적도 없는 나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웰다잉은 죽을 '나' 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라고 잘못 알고 있던 환영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몸 받고 그 명(命)이 다하기 전에, 아상(개념으로서의 나)이 먼저 한 번 크게 죽어야 합니다(大死一番). 하지만 '아상' 이라는 환영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실제 나는 펄펄 살아있습니다(絶後蘇生). 그것은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서의 참나입니다. 웰다잉은 이렇게 한 번 당겨 죽어보는 것입니다. 생사일대사의 해결은 자아(아상)가 당겨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통 일진법계가 드러납니다.

사실 연기에서 성기로 한 차원 올라가는 데에는, 정신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연기된 만물은 보이지만, 한 차원 높은 그 바탕은 심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의 벽을 뚫고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참선법입니다. 방 거사가 말하는 '그 자리' 를 당신은 보십니까? 바로 눈앞이 온통 그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 같다면, 자비로운 방 거사의 한 방을 맞아야 합니다.

웰다잉은 결국 생사일대사의 해결입니다. 그 지름길은 나를 쳐줄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신의 벽을 뚫는 길은 선지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웰다잉은 미리 죽는 것이고, 당겨 죽으려면 선지식의 자비로운 한 방을 맞고 심연으로 떨어져 그 바닥을 쳐봐야 합니다. 지옥 밑이 꺼지면, 그곳이 극락입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그 기막힌 맛을 한 번 보십시오. 사람이 길입니다. 지금 즉시 목숨 걸고 스승을 찾으십시오.

"소통으로 마음의 온도 유지하자"

황수경 박사의 '소통과 나눔 강의'



"얼마전 한 직장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한 청년이 너무 안됐고 불쌍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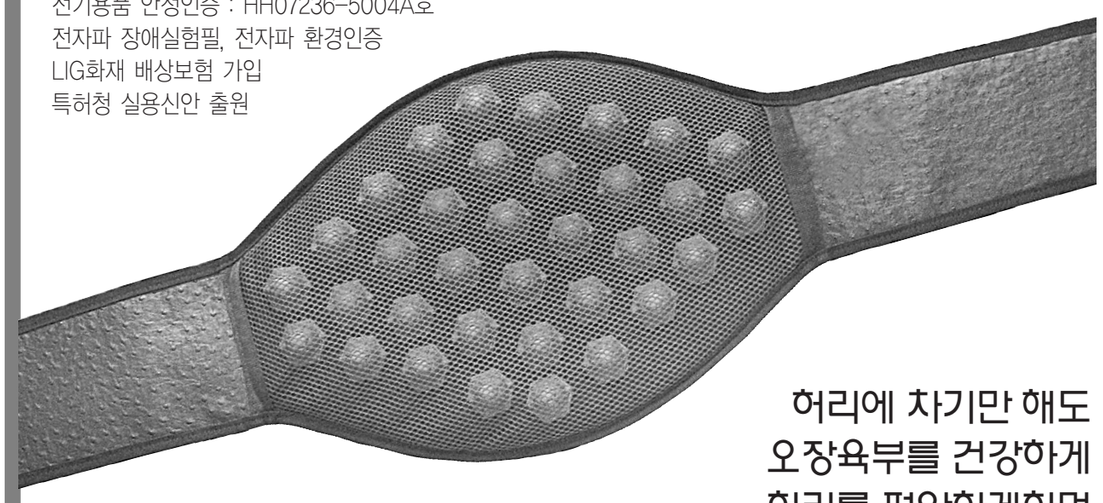
"88세 중증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아름답게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언니와 함께 수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웰당잉심화과정 첫째날 강의 후반은 황수경 교수 (사진 · 동국대학교 명상상담학과)의 '소통과 나눔' 강의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말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 박사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지만 예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대화의 단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 소통을 배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안다면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황 박사는 마음의 온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는 교도소에 상담을 많이 나갑니다. 그곳 재소자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대화의 단절로 남의 말을 공감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곧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거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오늘의 만남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무의식 분석… 전인격 치유 의문”

김성철 교수, 불교심리심포지엄서 심리상담 불교적 해법 강조

“무의식에 대한 치료는 대상자의 정신을 면밀히 분석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할 때 가능하다.”

정신치료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무의식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법을 강조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9월 15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서불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에서 ‘무의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법론’을 역설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


9월 15일 열린 불교와 심리 심포지엄에는 200명이 넘는 대중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의식통한 상담 효과 ‘의문’
심리치료에 불교 방법론 필요
사성제 수행으로 극복 가능
편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해야

김성철 교수는 발표에서 무의식에 대해 자동차에 비유하며 접근 방법의 요지를 설명했다.

“우리 앞에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자동차를 보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서 자동차 내부와 밖을 보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자동차를 바라보지만 그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운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것과 동사섭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것은 그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이 수면에 든 것을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확고부동한 표현이 아닙니다. 남이 볼 때는 잠을 자고 있지만 당사자는 꿈 속에 깨어있습니다. 불교용어로 ‘비량(比量)’(추론)이 될 뿐인 것입니다.”

김성철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심리치료와 상담에 있어 무의식을 드러내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기존 의학방법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 ‘멍석을 깔면 하던 짓도 멈춘다’는 속담이 있다. 정신분석을 통해 그 속내가 발각 됐을때 이 증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게 된다”며 “정신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드러내는 일이 분석가의 지적 호기심과 학문적 적합성을 가질수 있어도 그의 전인격이 치유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리치료와 상담에서 불교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사밧티 성에 ‘말라깽이 고따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학대를 받던 이 여인은 아들을 낳자 대접을 받았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죽은 아들을 등에 업고 약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다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따미는 겨자씨를 구하려 온종일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고따미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부처님이 고통으로 신음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의 방법이 현대 상담심리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무상, 고, 공, 무아의 고성제를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구사론의 사성제 수행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따미의 일화를 현대적 정신분석에 적용하면 고따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비교했다.

“당신은 마르고 못생겨서 자학과 열등감에 빠졌지만 아들로 인해 칭찬을 받습니다. 이 아들이 죽자 예전처럼 조롱받고 학대받을 것이 두려워 약을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행동을 멈추세요.”

김 교수는 끝으로 “정신분석이 맞춤복 같은 상담이 아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성복과 같은 명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심리치료 등에 효과적”이라며 심리치료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과 교수의 ‘뇌과학을 통해 바라본 명상의 효과’, 조옥경 서불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의 ‘켄 윌버가 본 명상과 무의식’, 문을식 서불대 교수의 ‘요가명상에서 심층의식의 기능과 역할’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한 달 만 해도 뇌를 바꾼다

권준수 교수, 명상의 효과 역설



서구사회에서 명상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사실이 알려지며 명상 붐이 인 지 오래며 이러한 관심은 지속적인 연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사진〉는 9월 15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서불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에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의 발표 중 이목을 모으는 것은 2012년 UCLA Luders 박사 등의 연구결과다. 이들은 명상이 기억저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30명의 명상군과 30명의 대조군에서 시행했으며 명상군은 좌 · 우측 해마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커진 결과를 낳았다.

권 교수는 “해마의 크기 증가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명상 시 알아차림이나 삼매 등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명상으로 주의집중 등 정신적 상태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에 일조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명상으로 인한 뇌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명상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장기간이 아닌 한 달 등 단기간의 명상으로도 뇌 백색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는 등 단기 명상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평등심 실천이 붓다와 성철의 중도”

조준호 교수, 성철 스님과 초기불교 중도관 비교 발표

〈백일법문〉에서 초기불교의 중도에 대해 설법한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의 중도관과 부처님 당시 초기불교의 중도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련불교문화재단이 9월 21일 개최한 ‘성철 스님의 중도관’ 세미나에서 조준호 한국외대 교수는 초기불교의 중도와 성철 스님의 중도관을 비교 발표했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초기불교의 중도에 대해 ‘초전법륜의 가르침은 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이라 표현할 만큼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중도를 꼽았다.

조준호 교수는 성철 스님의 중도관에 대해 “성철 스님은 ‘견성’은 바로 ‘성불’이며, 이는 ‘중도를 깨친 것’이라고 보았다”며 “성철 스님은 중도에 대해 ‘어느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입장으로 불교의 근본진리’라고 설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초기경전에서는 팔정도와 함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를 비롯한 삼십칠조도품이 모두 중도로 설명된다”며 성철 스님의 중도관이 부처님 당시의 중도관에서 비롯됐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부처는 중도의 내용으로 평등심과 청정심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설명한 것에 성철 스님은 상대적인 편견을 버렸을 때 이 즐거움이 나온다고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불교의 중도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자세”라며 “차별하지 않는 평등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붓다와 성철이 역설했던 중도의 실천이고 깨달음의 삶”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호귀 교수가 ‘선종의 선문답과 중도’에서 선종에서 나타나는 중국불교의 중도구조를 설명했으며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은 ‘퇴옹성철의 법어에 나타난 중도의 표현’에서 백일법문에서 중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구조가 스님의 대중법어, 나아가 상당법문에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11월 29일 국제학술포럼 ‘불교의 명상 : 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사찰 주변 시설물 미관 정리 점검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물 디자인 지침 제정

정부가 사찰에서 사찰 본연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을 위해 문화재 주변 설치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원칙 및 기준이 되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했다.

문화재 공공디자인 지침은 문화재 주변 화장실, 안내판, 매표소, 휴게의자 등의 42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도록 미관을 지정한 것이다. 국가 문화재의 40% 가량이 사찰인 상황에서 매표소, 해우소, 사찰 안내판 등에 디자인적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재청은 공공디자인 지침에 △순응하는 디자인 △간결한 디자인 △비우는 디자인 △절제있는 디자인 △소통하는 디자인 △질서 있는 디자인의 6대 원칙과 함께 시설물의 배치, 형태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 등에 적용하며, 시 · 도지정문화재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의 공공디자인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 산지 가람의 특징은 ‘대지의 건축’”

김봉렬 교수, ‘한국사찰의 세계유산 가치’ 세미나서


김봉렬 교수


흥선 스님


김상현 교수

“한국의 천년 고찰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건축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의 토대가 되는 땅의 모습을 보존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산지 가람은 ‘대지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명산 고찰들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초기 위치를 고수하며 변화를 도모한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사진〉는 9월 22일 양산 통도사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의 중창불사 개념에 주목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대규모 불사가 불가능했고,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가람을 변화하는 ‘중창’의 개념이 도입됐고, 이 ‘중창’의 개념이 한국 산지 가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선정한 7개 사찰들은 초기 가람의 형태를 간직한

중창, 탄압 피하기 위한 대응
과거 보존하며 가람에 변화

사찰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산지 가람의 특징에 대해 김 교수는 “풍수적 자연관의 발달은 사찰이 산에 둘러싼 형국을 가지게 했다”며 “종합적 수도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에 생활공간과 수행시설이 섞이는 건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축 형식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 산지 가람의 현재 모습은 긴 과거의 축적”이라며 “이는 초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대지의 모양을 바꾸지 않았기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존 허드 이코모스 자문위원회장의 기조 강연과 김상현 동국대 교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고우잔 이코모스 부회장, 노부코 인드라쓰쿠바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 종 안 내 ◈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종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희망 時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종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붕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재)일붕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 · 교육 · 수행종단 · 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붕”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붕문도와 일붕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전국교구 종무원 ※

경기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경기북부교구원장 :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붕홍법원)	☎ 064-702-2328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종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룡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

“두 번 다시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9월 16일 군산 동국사서 제막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및 일본 조동종 스님들이 9월 16일 일본 참사문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

국내유일 일본식 사찰이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가 제막됐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는 9월 16일 창건 104주년을 맞아 한일합동 다례재 및 일제강점기 희생자 합동위령제,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하 동지회)’ 회장 이치노헤 쇼코 스님과 오다케 요시아키 부대표, 도다 이쿠고(일본 작가) 및 일본 조동종 관계자가 참석해 일제의 강제 조선 침탈과정에서 희생된 한일 양국 희생자 영령들의 위령제를 봉행하고 참회했다.

이어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조계종 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도정 스님을 비롯한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시의원, 이복웅 군산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가로 3m, 높이 2.3m의 참사문비는 최고급 황등석으로 장문의 참사문을 요약해 일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병기해 음각했으며 제작비용은 일본 동지회에서 부담했다.

참사문비에는 “해외포교라는 미명 하에 일제가 자행한 야욕에 영합해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인권 침해, 문화멸시, 일본 문화강요, 존엄성 훼손 행위가 불교적 교의에도 어긋나며, 석가세존과 역대 조사의 이름으로 행해 왔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이며 진심으로 사죄하며 참회한다. 특히 명성황후 시해 폭거, 창씨개명으로 국가와 민족을 말살해 버렸는데, 조동종은 그 첨병이었다. 불법을 세속법에 예속시키고,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우리는 맹세한다.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새겨졌다.

가로 3m, 높이 2.3m 참사문비
명성황후 시해, 창씨개명 등
일본 부끄러운 행위 참회 새겨져

동지회 회장 이치노헤 스님은 참사문비 제막과 관련한 참회사에서 “일본 불교계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본 국가권력에 협력하며 전쟁에 가담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동아시아에 남겼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일본은 패전이후 충분하게 반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한일 불교교류는 있었지만 불자로서 진정한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우호활동에 그치고 있어 한일 양국 불교계는 의혹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스님은 또 “조동종이 지난 1992년 발표한 참사문이 한국에 건립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오늘 동국사에 제막된 참사문비가 일본 불교의 양심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명 스님은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가 동국사에 세워지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며 “이번 참사문비 제막식을 계기로 한일 불교계는 물론 외교관계도 우호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은 축사에서 “일본 조동종이 스스로 일제의 첨병이 되어 제국주의적 만행의 과거를 참회하고 참사문을 발표한 것은 진정 양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다”고 평가하고 “참사문비 제막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진정어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열어가는 상징이 되며 이정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도 “법구경에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을 쉼으로써 원한을 갚으라 했다”며 “참사문비가 한일 양국의 상생과 화합의 한 송이 연꽃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치노헤 스님은 일제 강점기 군산에서 발행됐던 ‘군산일보’를 군산시에 기증했다. 참사문비 제막식후에는 부연 스님의 법고 시연과 인간문화재 임귀성 선생의 승무공연, 고살매 농악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2011년 10월 이치노헤 스님은 동국사를 방문한 이래 참사문비 건립 없이는 진정한 한일 불교계의 교류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동국사 합동 다례제 봉행 ▷한일 불교문화교류 활성화 노력 ▷동국사 창건일 총독부 관보 게재일로 확정 ▷일체의 정치적 행위 배제 등 5개항을 합의한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치노헤 스님은 2012년 일제강점기 희귀자료 200여 점을 동국사에 기증한바 있으며, 2013년에 일제강점기 일체 자료 족자 21점을 동국사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참사문비 건립을 주도한 동지회 한국회장 종걸 스님은 “참사문비 건립은 한일 불교계의 순수한 종교행사이다. 정치적 의미를 배제해 달라”고 주문하고 “올 12월경 한일 학자 20여 명이 참여하는 불교심포지엄과 동북아 연구소주최의 한국의 일본 범종(다카하시가 만든종)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북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전북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9월 15일 완주 송광사에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했다.

45명의 지역 내 청소년들과 지도교사들이 동참한 이날 교육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성폭행 사건을 재구성한 역할극을 통해 성폭력의 위해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생활 지침인 33개 항목을 통해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관계자는 “매월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한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추석을 맞아 저소득가정을 위해 쌀 2000㎏을 전달했다.

추석 맞이 독거노인 위한 쌀 지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지역 내 쌀 2000kg전달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중추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추석을 맞아 독거어른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지난 9월 19일 광주 서구 농성1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신도회에서 마련한 2000kg의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자비의 쌀은 매년 2회씩 부처님오신날과 추석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전달된 쌀은 차상위계층의 수급자와 정부지원사각지대 미지원자, 독거어른들 80세대에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1988년 개원이래 매년 2회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신도회 김희남 고문은 “처음에는 매년 김치를 담가 700~800세대에 전달했으나, 최근 3년 전 부터는 신도들이 ‘자비의 쌀’을 마련해 지금까지 6,000kg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원은 자비의 쌀 이외에도 매년 결손가정의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 위해 노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건강나눔 의료봉사행사 진행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도완)은 9월 16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창군 건강나눔 의료봉사’를 개최했다.

열린의사회와 롯데홈쇼핑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의과·내과·치과·통증의학과·기초검사 등 5개 과목에 20여 명의 의료진들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350여 명의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진찰 및 약 처방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다채로운 민속공연과 참여자를 위한 점심 및 다과 등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영어캠프마련을 위한 바자회 의류 1170벌을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도완 스님은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이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만드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건강나눔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한편, 열린의사회와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고창지역을 방문해 무료의료봉사활동 및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찬불가로 부처님 법 전하겠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 창립 법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가 지난 9월 21일 광주불교회관에서 합창단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찬불가 포교에 나섰다.

서경희 합창단장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노래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창립 의미를 밝혔다.

창립식에는 지용현 회장을 비롯해 정영균 광주전남포교사단 등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합창단 창립을 반겼다.

지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음성공양을 통해 불법을 알리는 포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남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추가로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한 합창단은 박현 지휘자 외에 단원 40여명이 매주 1회 찬불가 연습을 진행하며, 오는 10월 11월 부루나합창단과 함께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정기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행

제 41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초대의 말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일붕문도님 여러분들과 귀빈여러분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근대불교사에 한획을 그어 놓으신 우리의 스승이신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 제자(은, 법, 조카, 손상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가 매년 10월 10일이면 봉축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제41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고 일붕존자님을 다시한번 추앙하면서 존자님의 사상이 먼 훗날까지 길이길이 이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일붕존자님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대 법 주 : 김도기 대화상 (일붕문도회 명예회장)
대 회 장 : 송 산 (일붕문도회 수석부회장)
봉행위원장 : 청 파 (일붕문도회 경남지회장)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 장 겸 이사장 의 륜 서주범 합장

- 다 음 -

행사제목 : **제41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일 시 : 불기 2556(2012)년 10월 10일 (음, 8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1부 - 오전 10시 인기가수 축하공연
2부 - 오전 11시 일붕문도의날 법요식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번지 / 세종홀 전화 02)735-4111~3
문의전화 : 02)355-0093(문도회), 02)777-0959(일붕신문사), 010-6253-4936 서병열 사무총장

* 인기가수 축하공연(10시부터) / 점심공양제공(뷔페) / 주차장 (세종문화회관 지하 세종로 주차장 이용) / 오전 10시까지 입장완료

가을 맞은 법주사, 대중들 추억 속으로

사진전 · 7080콘서트 등 개최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현조)가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문을 열고 대중들에게 나아간다.

법주사 이번 가을 행사의 메인 테마는 '7080세대'. 그 시절 소풍과 수학, 신혼여행지였던 법주사에서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먼저 법주사는 최고의 여행지였던 법주사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한 '법주사 추억여행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하려면 법주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사진과 사연을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해 10월 25일까지 우편과 이메일(spning@beopju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9월 15~16일 법주사에서 열린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법주사가 올 가을 산문을 열고 대중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불교체험 부스 상시 운영
지역민 등 위한 일요법회
다문화가정 템플스테이도

법주사는 심사를 거쳐 법주사 주지상, 보은군수상 등을 수여하며, 참가자 전원을 템플스테이에 초대한다.

이와 함께 법주사는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 법주사 팔상전 특설무대에서 '7080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박강성 등 7080가수들이 그 시절 인기가요들을 대중들에게 선사 할 예정이다.

또한, 법주사는 10월과 11월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불교문화체험부스도 상시 운영한다. 부스는 보은, 성주 지역 포교사들이 사경, 인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펼칠 예정이다.

법주사 연수국장 보관 스님은 "법주사는 70, 80년대 최고의 관광지이자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라며 "그 시절 산사에서 보낸 추억을 공유하고,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민을 위한 상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9월 15, 16일에는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2~13일, 26~27일에도 연이어 개최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연극, 미술 심리 상담, 불교 문화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10월 29일부터 30일에는 유명 골퍼 양용은 선수를 초청해 보은, 성주, 대전 지역 골프 꿈나무를 위한 템플스테이도 연다.

또한 법주사는 새로운 포교 모델로 '숲 속의 일요법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는 도심 사찰 위주로 진행되는 일요법회를 천년 고찰에서도 시도하겠다는 주지스님의 의지가 담겨있다. 10월 21일 처음 예정인 '숲 속의 일요법회'는 숲 속 트래킹, 명상, 법문 등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법주사는 9월 22일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한 '제1회 충북민속축제 한마당'을 펼쳤으며, 9월 25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VIP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채식위주의 46가지의 사찰음식 등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행사에 대해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가을 행사를 통해 지역과 국민들에게 추억과 낭만, 문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법주사의 문화포교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소식

선우와 함께하는 청년구법순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는 9월 15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선우들과 함께하는 53정년구법순례에 입재했다.

53정년구법순례는 21세기를 여는 청년불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행에 근간하는 청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경북 · 포항시 불자의원 격려법회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11일 경북도의회와 포항시의회에서 활동하는 불자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역 스님들을 비롯한 신도회, 신행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 정각회는 2011년 8월 포항지역 시 · 도의원들 중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다. 이 자리는 회원들의 승진 등을 축하해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포항시의회 의장에 부회장인 이칠구 시의원이 선출됐고, 정각회장 장두욱 도의원이 경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장 선임되는 등 회원들의 소식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항 보경사 교정불자회 창립

포항 보경사(주지 효웅)는 9월 13일 포항교도소에서 불자교도관 30여 명과 지역 신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불자회 '불심회'를 창립했다.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은 "포항교도소 교정직원들의 신행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 이번 불자회 창립을 지원했다"며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경사는 지금까지 매월 한차례 포항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위문법회를 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아대 법등회 1주년 기념법회

동아대 법등회는 9월 16일 부산 전등사 구보타원에서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구례 칠부사 서봉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박재현 법등회 신임회장은 "법등회는 불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되겠다"며 포교활동을 열심히하는 전법사로 서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제12회 갓바위축제 성료

경산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최동주)는 14일 경산 갓바위 공영주차장에서 경산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과 정병윤 경산시 부시장, 최동주 갓바위축제 추진위원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경산시립합창단 축하공연과 선무도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 유명 문인들 '삼국유사'에 취하다

'국제 펜 대회' 참가자 인각사서 불교문화 체험

'제78차 국제 펜 대회'에 참가한 세계 유명문인들이 인각사를 찾아 〈삼국유사〉를 통해 불교를 접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사찰인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는 9월 13일 인근 일연공원에서 국제 펜 대회에 참가한 세계 114개국 250여 명의 문인들과 함께 삼국유사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국유사의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이 공연됐으며 법고시연과 외줄타기 등 불교와 민속놀이가 선보였다.

이날 주지 도권 스님은 존 롤스톤 소울 국제 펜 클럽 회장에게 삼국유사 영인본을 선물로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누각 앞에 설치했던 계단의 부적절한 장식이 지금은 단아한 모습으로 개선됐다. 사진은 경남의 ㅎ사찰

건축 공간의 계층적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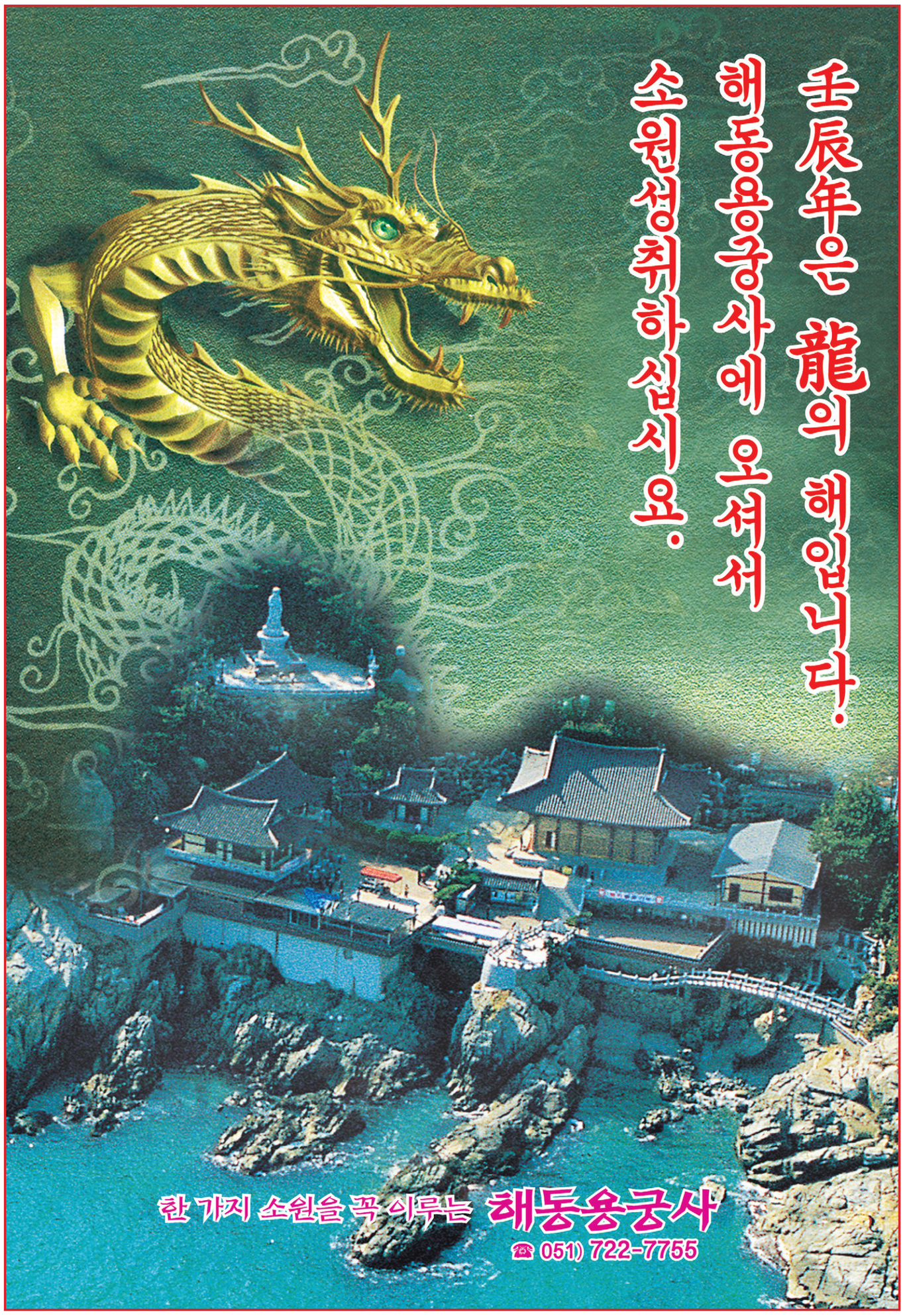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이나 계급, 가문의 촌수 또는 연령에 따라 위와 아래가 엄격히 구분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조화로운 질서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계층적 질서의 구현은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건축공간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사찰에서 주불전의 공간규모를 다른 건물에 비해서 크게 한다든지, 주불전을 가장 높은 곳 혹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짓는다든지, 주불전의 장식성을 다른 불전과 차별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사찰에서 계층적 질서를 구현하는 방법이었다.

최근에 들어 사찰에서 이러한 계층적 질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물을 앉히거나, 부불전이나 부속건물을 주불전보다 크게 짓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장식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찰에서 지켜온 계층적 질서가 교란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찰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물은 없겠지만, 그 건물에 어떤 불보살을 모시는지, 그 건물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그 건물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조영법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찰마다 많은 신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과는 다른 건물들을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건축공법과 기술이 발전되고, 재료가 달라지면서 건물 규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장식효과도 이전과는 달리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익숙하게 여겨왔던 공간질서가 무너지고, 경관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규모나 양식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계단과 같이 작은 요소마저도 장식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뚱맞은 경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불전이 아닌 건물에 설치한 계단의 난간을 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법수에 지나치게 강조된 법륜을 두기도 하여 그 건물 성격을 오해하게 만든다.

한국 사찰에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경관적 정체성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계층적 질서를 존중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질서자체가 훼손되고 오염된다면 우리 사찰에서 더 이상 한국성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⑫ 북한산 내시묘역길
그리고 흥국사





1300년전 원효 스님이 창건한 흥국사 약사전에는 약사여래가 약합을 들고 아픈 중생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와 앉은 불자 한 분이 약사부처님과 한참을 앉아 있다.

약사여래 모신 흥국사는 아픈 중생 '위로' 도량

개울길, 아스팔트길 다양한 길 걸어
내시묘역, 여기소터 등 사연 있는 길
찬비 지나간 자리에 코스모스 피네

태풍이 연이어 지나갔다. 많은 것들이 망가졌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집이 망가졌고, 길이 망가졌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태풍은 지나갔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차가운 비가 내렸고, 차가운 비가 지나간 자리엔 코스모스가 피었다. 위로는 그런 것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가 내리고, 비 내린 자리에 가을꽃이 피는. 우리 삶에 위로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 그 것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차가워진 길을 걷는 것뿐이었다. 북한산 둘레길 10구간 내시묘역길이다. 그리고 그길 옆에는 흥국사가 있다.

은평구 진관동 방패교육대에서 효자동 공설묘지까지 걷는 길이다. 총 3.5km이고, 모두 걷는 데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북한산 둘레길 중에서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이다. 길의 대부분이 평지다. 기자는 내시묘역길과 이어진 마실길(본지 7월 11일자에 소개)의 삼천사 입구에서 시작했다. 500m 쯤 걸으면 내시묘역길과 만난다. 한쪽은 개울이 흐르고 한 쪽으로는 숲이 따라온다. 조선조 임금을 받들던 내시들의 묘역이 있는 구간이다. 개울가엔 아직 갈대라고 할 수 없는 푸른 갈대들이 가을을, 그리고 겨울을 향해 흔들리고 있다. 가을바람이 고추잠자리를 몰고 나타난다. 물가에 잠자리를 내려놓은 바람이 갈대를 키우고 날아간다. 숲에선 풀벌레들의 음성이 밀려온다. 차가워진 길에서 듣는 그들의 음성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들었던 것보다 왠지 진지하게 들려온다. 태양 아래서 들었던 소리가 1악장이었다면 가을의 문 앞에서 듣는 그들의 소리는 4악장이다. 차가운 길 위에서 듣는 뜨거운 4악장이다. 풀벌레소리 사이사이로 참새들이 어지럽게 들락거린다. 호박밭을 얼쩡거리다 깨밭을 휘젓고 날아간다. 이집 저집 대문도 창문도 의미 없다. 개울이 끝나고 따라오던 숲도 끝난다. 풀벌레 소리도 멀어진다. 이정표(둘레길)를 따라 약 1km 쯤 걸으면 주택가 길로 접어든다. 듬성듬성 숲 속의 집들이 보이고, 다시 작은 개울과 산이 다가온다. 멀리 북한산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200m 쯤 걸으면 여기소(汝其沼) 터가 나온다. 조선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에 동원된 관리를 만나러 먼 시골에서 온 기생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다. 너(汝)의 그 사랑(其)이 잠긴 못(沼), 여기소라 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엔 경로당이 들어서 있다. 100m 쯤 걸으면 백호사란 절이있고, 그 뒤편이 내시묘역이다. 하지만 그들의 묘는 없다. 묘역이 있던 자리는 개인 소유의 땅이 되었고, 묘는 모두 없어졌다. 다시 100m 쯤 걸으면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된다. 내시묘역길은 난간으로 정리된 개울길과 크고 작은 텃밭들이 늘어선 흙길과 아스팔트길 그리고 산 속의 숲길까지 다양한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지루하지 않은 길이다.

흥국사는 내시묘역길에 없다. 흥국사는 북한산과 마주한 노고산에 있다. 5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쪽은 북한산이고 한 쪽은 노고산이다. 위에서 말한 둘레길을 걷다가 개울이 끝나는 지점(이정표가 나온다)에서 둘레길을 버리고 5차선 도로를 따라 1km 쯤 걸으면 흥국사 입구다. 길가에 큰 표지석이 있다. 거기서 약 600m 쯤 올라가면 흥국사다. 나팔꽃, 구절초, 코스모스. 가을꽃들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와 여름이 지나간 자리를 위로하고 있다. 짙어가는 숲길 끝에 일주문이 서있다. 흥국사는 661년(문무왕 1)에 원효스님이 창건했다. 북한산 원효암에서 수행 중이었던 스님은 어느 날, 북서쪽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산을 내려와 흥국사 자리에 이르게 됐고, 서기(瑞氣)를 발하고 계신 약사여래를 보신 스님은 인연도량이라 생각하여 본전에 약사여래를 모시고 흥성암(興聖庵)이라 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전해오는 것이 별로 없다. 1770년 (영조 46)에 영조가 절에 하루 머물게 되고 이후로 왕실의 원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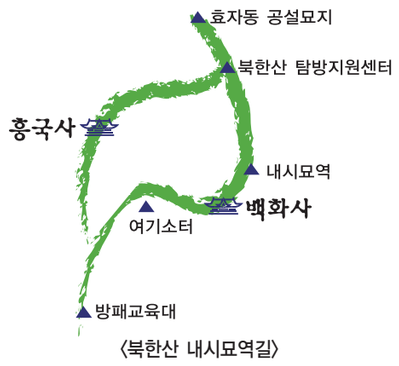
도량은 불사로 인해 조금 어수선하다. 마당엔 여름도 가을도 없다. 중장비 한 대가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도 일종의 위로였다. 설법전을 지나 본전인 약사전에 들었다. 무릎을 꿇고 약사여래의 약사발을 바라보니, 이 곳 저 곳 안 아픈 곳이 없다. 먼저 와 앉은 불자 한 분도 약사부처님과 한참을 앉아있다. 맞은 편 설법전에는 극락구품도가 있다. 극락세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약사전을 나와 설법전으로 갔다. 극락이 있었다. 약사여래의 약사발이 그냥 약사발은 아니었다. 흥국사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하다. 몇 해 전, 흥국사에선 쉽지 않은 템플스테이가 있었다. 이스라엘 대학생과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이 함께한 템플스테이였다. 서로의 목숨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두 민족의 대학생들이 한국 땅 흥국사 마당에서 연등을 밝히고 몰랐던 손을 마주잡던 그 밤이 생각났다. 그 때도 가을이 오고 있었던 것 같다. 흥국사는 최근 이색 템플스테이 '싱글파티 만남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약사발을 든 약사여래가 있고, 극락구품도가 걸려있는 흥국사엔 '위로'가 있었다. 흥국사에도 태풍이 지나갔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흥국사는 사바를 위로하고 있었다.

흥국사를 나와 큰길에서 다시 둘레길에서 걷던 방향으로 700~800m 쯤 걸으면 삼거리에서 둘레길이 정표를 만나게 된다. 이정표를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쪽으로 300m 쯤 걸으면 내시묘역길과 다시 만난다. 3분의 2지점이다. 흥국사까지만 다녀와도 괜찮고, 다시 둘레길의 나머지 구간을 걸어도 좋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걸었던 길에는 1300년 전부터 사바를 위로하고 있는 흥국사가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흥국사 약사전 약사여래



〈북한산 내시묘역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생태사회와 불교

순환적 사회와 불교의 윤회

직선적 세계관이 환경문제 초래





강원도 제132호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영월 보덕사 해우소(사진 왼쪽)와 선암사 뒷간(사진 오른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 해우소들이다. 사찰 화장실은 해우소(解憂所)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는 정랑(淨廊), 청측, 뒷간이라고 부른다. 순환적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不死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리산에 올라가 발아래 펼쳐진 끝간데 없이 연이은 산봉우리들과 촘촘히 자란 나무와 거대한 계곡과 숲을 보면서 크게 감동한다. 그 작은 씨앗, 묘목이 자라서 어떻게 저토록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이 만들어 졌을까. 정말 경이롭기 까지 하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크는데 나무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숲은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서 자랄까?

당연하지만 모든 생명에게 고루 비추는 따뜻한 햇살과 구름이 쏟아내는 비, 흙속의 많은 영양분과 바람, 벌레, 새들과 별들이 합쳐 만든 우주적 하모니의 결과다. 자연은 서로 서로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그물(Net)이다. 공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연결돼있다.

태고적부터 이 나무의 아버지나무, 할아버지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나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선조들의 수많은 죽음 덕분이다.

그렇다. 그 죽음이 다시 땅속(地)에 분해돼 영양소로, 물속으로(水), 뜨거운 기운(火)과 에너지로 그리고 가스(風)로 변화해 다른 생명들을 먹이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4대로 화(化)해 흩어진 물질들이 다시 어떠한 식물의 인연으로 모여 씨앗으로 만나고, 정자와 난자로 만나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된다. 이것이 윤회이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식물과 동물은 다시 성장하면서 다시 땅과 물과 화기와 에너지를 섭취하고 활용한다. 그래서 결국 다시 죽음이다. 잘 죽는 것이 결국 잘 살리는 것, 그래서 잘 썩는 것이 곧 잘 살리는 것이다. 죽음이 곧 살림이 되는 것이며, 생(生)이 곧 사(死)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삶과 죽음은 하나인 것이다.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들이 이러할진데 유독 사람만이 죽지 않으려고 한다. 영원히 살려고 한다.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뿐아니라 자신만이 만든 물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비닐 플라스틱, 핵폭탄, 원자력발전소 등등. 이것이 자연 정화능력을 넘지 않았던 작은 양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고?

사람들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한다. 그 '위'는 계곡상류이고 또한 깊은 산속의 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산속 계곡에서 흘러내려가 내를 이루고 강에 이르러 바다로 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흐르는 물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맞는 말일까? 실제 보이는 세계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한다면 산에는 물로 가득 차 있는 물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런 물탱크가 있을까?

그런 물탱크는 없지만, 물탱크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곧 나무와 풀이 물을 머금고, 흙이 물을 흡수해 지하수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수로 흘러가 밖으로 나와 샘물이 된다.

그 물이 계곡 물로 흘러가고 낮은 계곡이나 평지의 지하수가 흘러 모여져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산의 물이나 계곡의 물은 결국 비가 내려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름이다. 결국 구름이 있어야 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곡의 물을 만든다. 그래서 더 깊이 사색을 하면 그 시원(始原)이 구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일까? 물의 시작은 구름이고 종착역은 바다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구름은 결국 물의 증발과 증산작용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물방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잘 썩는 것이 곧 잘 살리는 것
자연은 반복하며 윤회한다
절 해우소서 '변'은 퇴비 역할
생태계의 순환은 본래 이치

있어야 구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물방울은 어디서 오는가? 계곡이나 강물, 바닷물이 증발해서 혹은 땅의 수분 등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숲이나 산림은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오를 전후해 먼 산을 바라보면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여 나뭇잎으로 증산작용으로 안개를 만들기 때문이다. 바다와 강, 계곡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비로 내리고 계곡 물이 되고 장강을 이뤄 바다가 되고 다시 증발해 구름이 되고… 등을 반복하며 윤회한다. 돌고 도는 것, 이것이 자연이다.

수세식 변소와 퍼세식 해우소

오늘날 수세식변소에서 '변은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좋다고 생각해 벨브를 눌러 물을 내리면 직선적으로 흘러가버렸다. 나와 관계없는 멀고 먼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퍼세식 해우소에서 변은 더럽고 버려야 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냄새야 나지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퇴비라고 생각해 잘 모아서 밭에 뿌리면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로 화(化)하여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먹어 다시 변을 만들어 내보낸다.

인간의 생활은 이러한 순환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보면 더러운 것, 쓰레기란 없는 것이다. 모두가 서로 연결돼 살려주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나와 관계없이 멀고 먼 곳으로 갔다 생각해 버린 수세식변소의 변은 결국 강물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켜 내가 먹는 음료, 생선등에 축적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과 그에 기반해 만들어진 모든 생활문화에서 윤회와 순환적세계관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환경, 생명생태주의자들의 인식이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모든 존재는 '연관되어 변화한다'는 이 세계는 제석천의 그물망(인드라의 그물망)처럼 구슬 하나하나에 전체가 비춰있어, 하나속에 전체가 전체속에 하나가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인 것이다. 이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다.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순환과 윤회의 세계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설명은 생물의 윤회는 생태학의 기본이자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의미다. 더욱이 윤회의 세계관에서 볼때도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역시 보이는 것만이 세계의 전부라 생각한다. 물이 위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 인식할 뿐 물이 위로 올라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환경문제는 바로 "보이는 세계만이 실제의 존재"라는 생각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금은 산에서 취사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등산 가서 자신이 있는 곳 윗 쪽 물을 퍼 밥 짓고, 아랫쪽의 물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렇지만 조금 밑으로 걸어내려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설거지 한 물로 밥 짓고, 자신도 그 밑에서 똑같이 설거지를 한다.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위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해 밥 짓고, 그 밑에서는 더러운 물이라 여겨 오줌을 누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구분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의 전부라고 한다면 자신이 있는 위치의 위(상류)에서 물은 시작되고 밑(하류)으로 직선적으로 흘러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세계는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가 구분할 수 없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인 것이다.

생태계가 순환(循環), 윤회(輪廻)하는 것이 자연 본래의 이치이다. 환경문제는 서로 연관 맺으며 순환하는 이치를 무시하고, 직선적인 시간관, 직선적인 발전,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온 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사)대한불교 조동종 연수교육 안내

대한불교 조동종은 포교방법과 전법이 뚜렷한 선종으로서 묵조선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에서는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5차 연수교육 및 금강계단(수계 및 구족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 종도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종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556년 10월 17일 (음 9월 3일) ~ 10월 19일 (음 9월 5일) (2박 3일)
장 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다보사 수련원 043)833-7789
대 상 : 전 종도 및 불자
준 비 물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집결시간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문 의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02)2091-0408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수락산 도선사 (내)
Tel : 02)2091-0408 Fax : 02)952-0408
홈페이지 : 조동종.kr

희대의 살인마 조복시킨 부처님을 보다

⑤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상〉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 십대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공(空)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해 해공제일(解空第一)로 불리는 수보리의 이야기다. 큰아버지 수닷타를 비롯해 아버지 등 가족들과의 불화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시기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설법제일 부루나를 만나면서 부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어주는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대화자로 등장하는 그는 부처님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공 사상과 가르침을 후대에 전한 부처님의 십대 제자다.



그림 · 김홍인

사위국 브라만가문 출생
가족과 불화일으킨 문제아
거리 무법자였던 수보리
부루나 만나면서 부처님 알게돼
살인마 교화하는 부처님보고
기원정사서 출가하기로 결심
"업을 씻고 마음의 주인이 돼라"
수행하러 죽림정사로 떠나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

큰아버지인 수닷타 장자는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자 수보리의 아버지인 수마나 장자에게 매우 인색했다. 사위성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생에게 쌀 한 톨 보태주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한 살도 채 안됐을 때 어머니를 잃고 홀아비 밑에서 자란 수보리는 철이 들면서 그런 큰아버지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는 아버지가 불쌍했다.

하지만 아버지 수마나는 형에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고 형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 수보리는 큰아버지만을 원망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버지까지 미워졌다. 그러면서 수보리 자신마저 삐뚤어지게 됐고 거리의 무법자로 변해갔다.

수보리는 동네 불량친구들과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행인에 시비를 걸거나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와 친동생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던 큰아버지가 부처님을 위해 기원정사를 짓는 공사에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수보리는 큰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났고 친구들을 모아 기원정사 불사 현장에 들어가 일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부루나와의 만남

친구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도착한 수보리는 의아했다. 부루나가 사리불을 도와 기원정사를 지으면서 거리에서 탁발을 다니고 있었다.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원을 지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영 딴판이었다.

수보리는 탁발을 하는 부루나에게 달려가 말했다. "이 나라 최고 갑부의 주머니까지 털어 절을 짓는 재주를 지닌 부처님의 제자께서 밥을 빌어먹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탁발은 출가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더불어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는 시작이지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탁발을 하십니다. 이제 탁발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아셨습니까?"

"나같이 하찮은 놈이 그걸 어찌 알겠소."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 법에는 절대 하찮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올바르냐에 따라 평가될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그대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루나는 팔을 뻗으며 손바닥을 펴 보였다.

"사람은 누구나 한 손에 손가락이 다섯 개 입니다만, 길고 짧은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엄지가 아닙니까? 반면 새끼손가락은 가장 가늘고 짧지요. 그렇다고 차별을 하며 새끼손가락을 잘라 버리면 손이 어찌되겠습니까?

수보리는 "어찌되긴 불구가 되는 거잖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루나는 "그렇습니다. 부처님법은 다섯 손가락이 어우러져 완전한 손이 되듯이, 길거나 짧은 차이를 조화로 잘나고 못난 차별을 없애며, 사람은 모두가 평등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고, 차이는 있지만 잘나고 못난 차별은 없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루나는 인사를 한 뒤 탁발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갔다.

수보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부루나라는 친구가 왠지 싫지 않았으며 기원정사 불사에 훼방을 놓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이윽고 기원정사가 낙성되던 날, 수보리는 부루나를 우연히 만난다. 수보리는 부처님이라는 인물이 궁금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분이시네. 사람에게는 불행으로 가는 세 가지 마음의 길이 있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길을 가리키시는 스승이시네."

부루나의 설명에 수보리는 점점 더 부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앙굴리말라와 부처님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어 늪에 빠진 이들을 염려하면서 신통으로 세상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위성 근처 숲에서 피범벅이 돼 돌아다니는 앙굴리말라를 발견했다. 그는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 수도인 사위성 주변에서 살인을 일삼으며 세상을 어지럽히던 살인마였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바라문 밑에서 공부하게 된 앙굴리말라는 도를 깨치게 해주겠다는 스승의 꼬임에 빠져 닥치는대로 사람을 죽인 다음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다. 999명을 죽인 그는 마지막 한 명을 채우기 위해 사위성 근교의 숲에 숨어있었다. 앙굴리말라는 저 멀리 부처님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봤다. 칼과 화살을 들고 부처님 뒤를 쫓았으나 이상하게도 전속력으로 따라가도 부처님과의 사이를 좁힐 수 없었다. 앙굴리말라가 외쳤다. "멈춰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어 있다. 너야말로 거기 멈춰 서거라." 부처님이 말했다.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말하는 뜻이 궁금했다.

"사문이여, 너는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추어 서 있다고 하는구나. 너는 멈추어 서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생물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로부터 떠나 자비와 인욕을 성취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멈추어 서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살아 있는 것을 해치고 괴롭히며 자비와 인욕이 없다. 너는 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 그래서 너는 멈추어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 정신이 든 앙굴리말라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게 됐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참회하며 출가의 청을 올렸다.

"잘 왔구나, 비구여" 부처님은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수보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성격이 매우 까칠하고 예민했던 수보리는 부처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동안 허비했던 삶을 정리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기원정사로 향해 다시 부루나를 만났고, 출가결심을 이야기했다.

"수보리야, 삭발하는 것만으로 번뇌망상을 지울 수 없듯이 진리 또한 쉽게 깨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의 주인이 돼 온갖 마음을 다스려 깨끗이 유지할 때 공(空)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부디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수보리가 간곡히 청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진정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그동안 네가 사위성에서 쌓은 번잡했던 업을 씻고 법을 보려면, 죽림정사로 가 한적한 영취산에서 수행하도록 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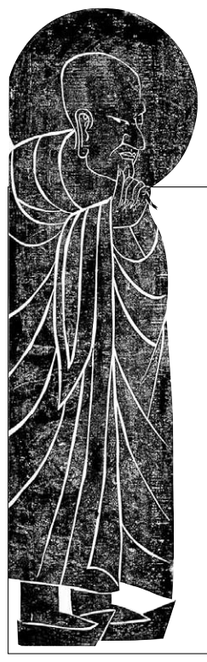
수보리는 기원정사를 떠나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밖에 있는 죽림정사로 향했다. 이때 사리불이 수보리를 영취산 토굴까지 안내했다.

영취산의 정기가 흐르는 길목에 자리를 잡은 토굴은 목건련이 신통력을 터득한 곳이기도 했다.

수보리는 난폭하고 까칠했던 성격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귀신이나 축생은 물론 지옥까지도 만든다. 그 때문에 도를 얻는 것도 마음이요, 온갖 법도 마음 따라 일어난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천신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가는 대로 따라 가서는 안 된다. 마음을 조복받아 부드럽고 순하고 스스로 텅비워야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해공제일의 수보리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깎은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말했다.

참고문헌
〈부처님의 십대제자(성각 스님 편저)〉〈부처님의 십대제자(성법 스님 편저)〉〈붓다를 만난 사람들(조계종 출판사)〉〈금강경〉〈아함경〉

수보리 존자는

수보리는 산스크리트 이름 수부띠(Subhūti)의 한자 음역이며, 선(善) · 선업(善業) 등으로 의역한다. 사위국(舍衛國)의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수보리는 16나한(羅漢) 중의 하나로서 무쟁삼매(無諍三昧)의 법을 깨쳐 모든 제자들 가운데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출가 전 수보리는 화를 잘 내고 스스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부처님을 알게 되어 출가했고, 스승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證得)했다. 북방불교에서는 출가 후의 수보리를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깨우쳤다는 '해공제일(解空第一)' 이라고 칭했으며 초기경전인 〈증일아함경〉에서는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 으뜸' 이라는 의미로 '무쟁제일(無爭第一)' 이라고 한다. 또한 '공양을 받을만한 자들 가운데 으뜸' 이라는 의미로 '피공제일(被供弟一)' 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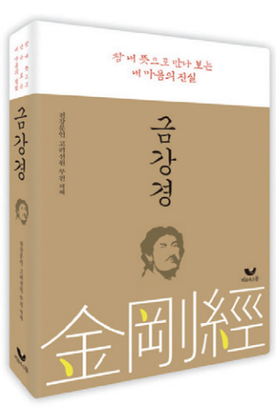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수보리상 판화)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지금' 깨닫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昨夜勞中頓發疑
車中熟眠後開眼
天地是明明淨淨
寂寂滅滅樂平安
_저자의 오도송(悟道頌)

금강경
참 내 뜻으로 만나 보는
내 마음의 진실
전강문인(田岡門人) 무진 역해
신국판 | 2도 | 324쪽 | 33,000원

늘 그대 것인 "이뭣고?"를 허공 난간에 걸어두니,
본래 그대가 청정(투명)한 채로 흡족함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안산 고려선원(T. 031-408-0108) 무진(無盡) 선원장이 당대의 6대 선지식로부터 인가(認可) 받은 전강(田岡, 1898~1975) 선사의 문인(門人)으로서 40여년 참선한 깨달음의 안목(眼目)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핵심적인 참뜻의 흐름으로, 또는 육조혜능 선사의 돈오선(頓悟禪)의 뜻으로, 또는 구체적인 수행체험을 근거로 자상한 도움말을 주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적하수오'
묘목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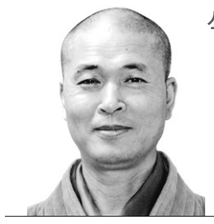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비로자나불의 스승은?

학승이 물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간택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밭일이나 하는 촌놈아, 무엇이 간택이란 말인가?"

問 至道無難唯嫌揀擇 如何得不揀擇 師云 天上天下唯我獨尊 云此猶是揀擇 師云 田庫奴 什麽處是揀擇

조사들의 공격은 날카롭다. "무엇이 간택이란 말인가?"하고 반문했을 때 노승이 창을 들고 찌르는 것이다. 이때 학인은 한 손으로는 방패로 막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찔러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방패와 창을 동시에 쓰는 것인가? "견공은 던지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는 던지는 자의 눈빛을 째려본다."

학승이 물었다.

"삼계 밖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쩌나 노승은 3계 안에 있는 걸."

問 如何是三界外人 師云 爭奈老僧在三界內

삼계를 벗어난 초인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을 증득한 사람이다. 삼계를 벗어난 초인은 아무도 그를 이 세상에 끌어내릴 수 없다. 그는 이미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가? 삼계 안에 있다. 명안자(明眼者)는 삼계가 곧 출삼계이다.

학승이 물었다.

"있음과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만약 다시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노승을 묻는 것이야."

問 知有不有底人如何 師云 你若更問 即故問老僧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만 만약 한 번 더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라네. 겸손한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들에게 가르쳐 이야기했다.

"남쪽을 향해 총림(叢林)으로 달려가거라. 여기에 있지 말고."

어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의 이곳은 시림(柴林)이야."

師示衆云 向南方趨叢林去 莫在者裡 僧便問 和尚者裡是甚處 師云 我者裡是柴林

총림(叢林)은 나무가 빽빽이 나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는 나무가 옆으로 자랄 수가 없다. 시림은 풀과 잡나무가 엉켜서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는 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없다. 나이 들어 고목나무와 같은 조주 선사는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형식을 싫어했다. 눕고 싶으면 눕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에서 살았다. 누가 선사라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채 그저 한 사람의 노인으로 살았다. 그곳이 조주 선사가 사는 곳이다. 초심자들은 그런 조주 선사를 보고 실망할지도 모른다. 도에 들어가기 전에 나태하고 방일한 것을 먼저 배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주 선사의 뜻은 명확하다. 납자들에게 '가려거든 남쪽으로 가라' 고 했다. 남쪽은 육조 혜능 선사의 뜻을 이은 곳이다. 선불교가 융성한 곳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본성이 제자이다."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性是弟子

그분은 본성을 제자로 삼는다. 만약 누가 비로자나불의 스승을 알려면 본성[心性]을 잘 관찰하면 된다. 본성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본성이 하는 것은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본성이 가는 길은 그분이 가라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을 알면 그분을 안다. 어떻게 본성을 알 것인가? 마음을 촌보(寸步)도 움직이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32〉

괴로움이 일어나는 열두 가지 인과관계

십이연기설–①십이지(十二支)의 해석

인간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를 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연기설이라면,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은 이 연기설에 기초하여 모든 현상의 인과법칙을 열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이는 초기불교에서 아비달마의 교학중심불교로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이 설한 인과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해석하려는 불교 논사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먼저 초기불교의 경전에서 연기설은 대략 세 종류의 유형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십이지분(十二支分) 혹은 그 이하의 지분으로 설명된 일반적 유형의 연기설이다. 두 번째는 감관기능[根], 감관기관의 대상[境], 그 대상을 식별하는 마음 작용[識]과 이 셋의 화합에 의한 인식[觸], 그리고 그 인식에 의한 느낌[受]으로 연속하는 인식관계에 기반을 둔 연기설이다. 세 번째는 위 두 유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잡다한 연기설이다. 어떤 종류의 연기설이든 무명을 제거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 연기설로 자리 잡은 것이 십이연기설이다.

십이연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이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무명(無明)' 은 사성제나 연기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명이 없는 것, 즉 사성제나 연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팔정도의 정견이다. ② 무명을 연해서 일어나는 것이 신체와 생각과 말의 잘못된 행위[身行 · 意行 · 語行]이다. 행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축적되는 여분의 힘도 포함된다. ③ '식(識)' 은 안식(眼識) · 이식(耳識) · 비식(鼻識) · 설식(舌識) · 신식(身識)의 5식과 의식(意識)을 말하는데 특히 인식주체로서의 육식을 가리킨다. ④ '명색(名色)' 은 식의 대상인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法)의 6경(六境)을 말한다. ⑤ '육처(六處)' 는 감각을 느끼고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 사유능력이 그것이다. ⑥ '촉(觸)' 은 6근(根)과 6경(境)과 6식(識)이 화합하는 것이다. 즉 감각이나 지각에 의해 인식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수(受)' 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을 느끼는 감수작용(感受作用)이다. 이것은 인식[觸]한 뒤에 일어나는 느낌으로, 동일한 물건을 보고도 과거의 무명이나 행에 의해 탐욕스러운 사람은 즐겁게, 화난 사람은 괴롭게 느낄 수 있다. ⑧ '애(愛)' 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렬한 욕구이다.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渴愛]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괴로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욕구 등이다. 고락에 대한 애증이 모두 애(愛)이다. ⑨ '취(取)' 는 갈애 뒤에 일어나는 취사, 즉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실제행동을 말한다. 예컨대 살생 도둑질 간음 험담 궤변 이간질 등의 몸과 말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⑩ '유(有)' 는 현상적인 것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 이 유에는 업의 존재인 업유(業有)와 업의 과보인 보유(報有)가 있으며 다음의 업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힘으로서의 업유도 포함된다. ⑪ '생(生)' 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의 모든 경험에서 비롯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소질, 즉 유(有)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 ⑫ '노사(老死)' 란 태어난 뒤에는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 이러한 노사는 자연적인 사실인 동시에 모든 괴로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십이연기는 각각의 지분이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다. 이 십이 지분을 순서대로 파악하여 연기의 원리를 자각하고, 역으로 제거해 감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 십이연기설의 취지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㊲



그대들이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은 법에 대한 대화가 아니면 가치있는 침묵 뿐이다 〈우다나(自說經)〉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됐고, 오늘(9월 19일) 드디어 무소속으로 또 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들이나 그 선거운동 진영에서는 앞다투어 조계사를 찾아올 것이다. 이미 다녀간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조계사 뿐이겠는가. 유력 종단이나 조계종 안의 본사들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들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우리 불교계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종교편향'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듣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립각도 많이 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8년 여름의 범불교도대회이다. 나는 그때 인도의 남부 방갈로르에 머물고 있었다. 시청 앞에 모인 수많은 스님들 모습이, 방갈로르에서 나오는 지역 신문의 '해외토픽' 란에 실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자성과 쇄신의 결사' 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식자들은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 라는 것이 정말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불교 역시 너무나 많은 영향을 정치로부터 받는다. 그런 점을 인정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거중립"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선거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불교는 전체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흔들리니까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론이다. 보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기 때문이다. 오늘나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주신 말씀의 모음집인 〈우다나(自說經)〉에서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도 그랬다. 출가자도 사람이니까, 뉴스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관심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거권은 없었지만…. 비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마가다(수도: 왕사성)와 코살라(수도: 사위성)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겠는가 하는 점이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비구들의 대화를 한마디로 '잡담' 이라 폄하했다.

이런 잡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비구들 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어 모여 앉았는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이실직고를 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때만 해도, 규범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문일까. 비구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부끄럼없이 말씀드리고 있다.

비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부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규범을 하나 정해 주신다 : "비구들이여! 믿음으로써 집을 버리고 출가인이 된 선남자인 그대들로서 그것은 참으로 법답지 않은 잡담이다.



그림 · 박구원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은 법에 대한 대화가 아니면, 가치있는 침묵, 이 두가지 뿐이다."(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35쪽)

무슨 논리로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법에 대한 대화' 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출가인이 나누어야 할 법에 대한 대화가 아니다. 선거가 있을 때면, 간절히 바라는 '나의 소원' 이 하나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각 정당의 선거상황실에 임석(臨席)하고 있는 스님이 안 계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제발 이번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2012년 2학기 치유요가테라피 강사과정
2012년 9월 8일(토) 오후 2시 개강!!!

1. 교육목적
건강과 테리피(Therapy)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요가에 대한 관심도와 수련자들의 체계적인 학습의 욕구에 부흥하여 질병과 스트레스를 치유 YOGA 와 명상(Meditation)을 통해 心身의 안정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유로서의 Yoga를 학문적으로 이해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요가지도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교육과정
◆ 요가테라피 1 – 생활통증별 원인과 예방행법
◆ 요가테라피 2 – 도구를 이용한 치유요가테라피
◆ 요가테라피 3 – 대상별 원인에 따른 치유요가 테라피 (임산부, 실버 요가 등)
◆ 요가테라피 4 – 개인 맞춤 운동습관 프로그램하기
◆ 요가테라피 5 – 비만관리와 요가테라피
◆ 그 외 요가의 정의, 아사나 기본 행법, 요가호흡법, 기초 요가생리학, 요가해부학, 대상별 심리에 따른 교수법 활용

3. 교육기간 및 수업료
1) 이수기간 : 16주 (총 64시간)
2) 수업시간 :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3) 수 업 료 : 80만원 (교재 및 자격비용 별도)

4. 입학대상 및 정원 (20명) – 19세이상 남녀 누구나

5. 전형방법 및 접수기간
1) 전형방법: 지원서 1부 (본교양식)

6. 자격취득 및 자격증 발급
1) 수료 후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2) 수료 후 일정 자격검증 시험을 거쳐 치유요가테라피 강사 자격증 발급 (대학원 산학협약 요가교육전문협회)
3) 교육기관 및 기타기관에 강사추천
–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사회단체 및 문화센타, 시 체육관, 복지관 등 요가 강사 취업
– 기업체 연수교육, 대학 시간강사, 기업요가 특강 등 요가 강사 추천

6. 책임교수
임동호 (동방대학원 대학교 자연치료학과 전임교수, 요가전공, 철학박사) 외 지도교수 2명

6. 문 의 02)3668-9890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8〉

“지장보살 닮고 싶었어요…

재소자들의 어머니 안청정행 보살



안효진 보살은 … 1919년 출생, 1970년 군부대를 비롯한 각 교도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다 1972년 본격적으로 교화활동에 나섰다. 이후 40여 년 동안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이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효진 보살은 6년 전 현장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재소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법명 안청정행 보살로 유명하다.

〈흥부전〉은 불교의 인과(因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전소설 중 하나다. 놀부가 박을 탈 때마다 도깨비들은 조상이 저지른 죗값까지 놀부가 치르게 했다. 불교에서는 악한 행위를 많이 하면 업보에 따라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난다고 한다. 또 사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무지한 중생들은 지옥에 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무지한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을 때 까지 윤회(輪廻)한다.

지상보살은 이렇게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접 지옥에 들어가 그들을 제도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서원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육도(六道)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그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망백(望百)을 넘어 백세(百歲)를 바라보는 안효진(93 · 청정행) 보살은 자신도 지장보살의 삶을 닮고 싶다고 말했다. 안청정행 보살로 알려진 그는 93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이처럼 무척이나 고운 피부를 갖고 있었다. 피부가 정말 곱다는 말에 안 보살은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그래요”라고 낭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투 역시 또렷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마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더 살고자 하는 욕심도, 몸을 건강히 유지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사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비워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건강히 지내요.”

안 보살은 40여 년이 넘게 교도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재소자 교화활동에 힘써왔다. 안 보살은 ‘죄인’이라는 명목아래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는 수인들의 ‘엄마’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선몽을 꿨어요. 어느 날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작은 나뭇가지 조각 여러 개를 제 앞에 두고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조각들이 글자로 변하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 글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후로 봉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1970년대. 불교계 안에서 봉사는 매우 낯선 이방인이었다. 봉사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안 보살은 작은 녹음기와 확성기, 카세트를 걸망에 넣어 둘러메곤 영등포 교도소로 향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교도소의 벽을 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몇 번을 사정하고 졸랐다. 쫓아내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또 찾아와 재소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불교에 대해 더 무지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재소자들에게 불법(佛法) 전하고픈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녀는 교도소에 출입했다. 교도관은 안 보살의 고집에 못 이겨 제대로 된 명석을 깔아줬다. 전체 강당에 재소자들을 다 모아놓고 안 보살이 법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지만 교도소를 방문한 첫 날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당시 교도소 환경이 열악해 마이크와 제대로 된 음향시설이 없어 법문을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안 보살의 포교활동은 그 때부터 점차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안 보살은 영등포 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40여 교도소를 다녔다. 또 병원, 군법당, 공장 등 자신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갔다.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니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았어요. 스님도 없이 여자 혼자서 봉사활동도 하고, 법문도 하러 다니니까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불교계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해에요. 오히려 불교가 더 인색했죠.”

봉사활동을 다니는 곳이 많다보니 수중의 돈은 항상 부족했다. 그럴 때 마다 절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안 보살은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 양장점, 가정집을 돌며 헌옷을 주워 매일 밤이면 옷들을 세탁하고 새벽까지 바느질을 했다.

“아이들이 매일 쓰레기를 주워온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두 잠들었을 때, 이불을 뒤짚어 쓰고 몰래 바느질을 했어요.”

40년 전, 교도소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안

40년간 수인들의 ‘엄마’로
기복신앙 거부한 청정행 ‘싸움꾼’

불법 전하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 등
전국 40여 개 교도소 돌며 포교
교회 · 양장점에서 헌옷 주워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봉사활동 포기하지 않아

보살은 겨울에 지푸라기만 깔고 자는 재소자들이 동상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거렸다. 헌옷들을 조각내 재소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양말과 내의 등을 만들었다. 또 출소자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을 때도 옷을 개조해 그들이 입고 나갈 옷들을 만들었다. 가위질을 오래 해 구부러진 그녀의 오른쪽 중지는 그간의 보살행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다. 하루 두 세곳의 교도소를 돌며 법회를 열고 재소자들의 간식을 챙겼다. 지방에라도 다녀와야 하는 날에는 동트기 전 새벽에 집을 나와 하루 종일 교도소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밥도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 밥솥에 밥을 도시락에 담을 시간도 없어, 비닐봉지에 한 줌을 담아가면 그것으로 하루종일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그마저도 밥을 싸지 못하는 날에는 그냥 굶어야 했다. 하지만 몸이 아파도 그녀는 교도소 방문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밥도 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식사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재소자들 간식 챙겨주고 법문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리죠.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돌아오다 길거리에 주저앉은 적이 여러 번 이에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내쉬면서 배고픔을 달랬죠. 아픈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진통제 먹고 그 다음날 또 교도소로 향했죠.”

혹시나 사람들이 준 보시금으로 혼자서 배불리 먹고 잘지낸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우유한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포장마차에 파는 감자가 너무 먹고 싶어도 함부로 사먹지 못했다. 주린 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안 보살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불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안 보살의 식사를 걱정하며 도와주는 이들도 늘어났다. 안 보살은 자신의 진심이 통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행복함을 느꼈다. 그럴수록 안 보살은 더욱 더 자신을 점검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며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제가 제대로 봉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라고요. 제가 정말 위선자인지 아닌지 점검했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부처님 법이 앞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을 두들기며 제 자신을 흔들고 시험했어도 절대 앞을 치며 정법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안 보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불법에 갈증을 느꼈다. 제대로 된 부처님 법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을 만나 법을 구했지만 허탕 치기 일쑤였다. 오히려 스님이나 신도들과 싸우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싸움꾼이었다. 옳지 못하고, 이치를 거스리는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스님들도 제대로 된 불법을 신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녀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었지만,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법문은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기복신앙에 불과했어요. 스님들께 그건 부처님 진리가 아니라고 대드니, 신도들이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쫓겨나기 일쑤였죠. 스님들은 시주 많이 하는 신도들만 챙기고,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술이다 사다 바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딜 가나 저는 환영받지 못했죠.”

그녀의 방 한 쪽 벽엔 표창장과 함께 청담 스님, 광덕 스님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안 보살은 “청담 스님과 광덕 스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들이다”라며 “두 분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광덕 스님은 안 보살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지원활동을 해주셨다. 하지만 두 스님들에게만 불법을 의지할 수는 없었다. 안 보살은 스님들께 불법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도에 들어갔다.

“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일러 주려고 하셨습니까?’라고 발원한 뒤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정말 신기하게도 제 귓가에 어떤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비닐 봉투에 꼭꼭 쌓아둔 종이 한 장을 펼쳐보였다. 그 종이에는 당시 안 보살이 깨우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체도 예쁘지 않았지만 종이에는 그녀가 정성스레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글자들이 담겨있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도서 및 쥬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2-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322호 (주)한메소프트

다음 생에도 봉사 하고파”





안효진 보살은 교화활동 10여 년만에 서울구치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당시 안청정행 보살은 불자로서 최초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 두번의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탐착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충실히 살아라. 일체 모든 것은 청정하다.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말없이 살고 있다. 인간은 지혜가 있기에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안 보살은 어여쁜 목소리로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안 보살은 처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다. 떠오르는 대로 무작정 적은 글귀가 훗날 불교의 핵심임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죽을 때 이 종이는 꼭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후로 그녀는 재소자들에게 더욱 많은 부처님 법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들에게 불법을 들려줄까 고민했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다시 용기가 생겨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어요.”

안 보살은 자신에 의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교화된 재소자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보살은 “부처님은 길에 핀 들꽃에서도 불성이 있다고 했다. 마음이 있으면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다”며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음 생에 업을 잘 다스리면 결국 불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일까. 이상하게도 안 보살에게는 최고형벌을 받은 재소자들이 많이 따랐다.

“기독교에서도 교화활동을 자주 나왔는데, 이상하게 교도관들이 간첩이나 사형수 등 죄질이 무거운 애들만 저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도 많았어요. 마음이 있는 애들은 결국 저의 진심이 통해요. 나중에 그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저를 따를 때 정말 행복했죠.”

재소자들과 오랜 세월을 보낸 만큼 그녀에겐 사연도 많았다. 그 중 한 사형수는 죽은 후, 가족들 대신 안 보살이 자신의 장례를 치르도록 양도했다.

“그 아이는 항상 저한테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여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그 인연이 안 되면 도반이라도 돼서 행복하게 지내요’라고 말했죠.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 저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장례를 무료로 진행했죠. 돈이 없어 공동묘지에 가 관리인에게 3평만 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공짜로 내어 줬어요. 그리고 시신을 이동시킬 차량이 없었는데 그때도 사정을 말하니 주인이 공짜로 차를 빌려줬어요. 아마 그 아이가 제가 돈이 없는 걸 알고 도와줬나봐요.”

간첩 · 사형수들 많이 교화
지금도 그들이 보고싶어
건강 · 돈 욕심버리니 행복해
악성 종양도 수행 · 봉사로 치유

안 보살은 또 다른 사형수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녀는 현재 공주 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형수가 쓴 책이라며 〈법화경〉 〈금강경〉을 보여줬다.

“정말 열심히 공부 했나 봐요. 읽어보면 〈법화경〉과 〈금강경〉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제가 읽어보곤 정말 기특해서 책들을 복사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형수가 쓴 책이라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현장을 지키던 안 보살은 지금은 더 이상 여력이 되지 않아 교도소에 나가지 못한다. 안 보살은 “지금도 애들이 보고싶다”고 말했다.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안효진 보살은 평생 교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녀가 받은 표창장 및 감사패만 30개가 넘는다.

“한 때 제가 피부암에 걸려 봉사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대신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재소자들을 돌봐줬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사래 치셨어요. 그때는 봉사에 미쳐 있었어요. 정말 즐거웠죠. 당시 조직검사에서 악성종양으로 판명돼 길어야 3개월 밖에 못산다고 했어요. 그때 몸을 고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더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거 같아요. 욕심을 버리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가피를 받아 밥도 잘 먹고 고생도 안하고 지내는 거 같아요. 돈을 벌지도 않는데 제 수중에 단돈 만원이라도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안 보살은 자신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아픔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과 봉사활동으로 치유했다. 오른쪽 팔 인대가 끊어져 팔을 쓰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능엄경〉을 7시간 동안 사경하며 아픔을 이겨냈다.

구순을 훌쩍 넘긴 안효진 보살은 지금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시를 한다. 안 보살은 “항상 사람은 자비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봉사자들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 들어요. 하지만 봉사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실 된 마음과 자비심이에요.”

안 보살은 평생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외길을 걸어왔다. 안 보살이 봉사활동의 대모로 불리기 시작하자 자신을 내세워 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안 보살은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들과 이념이 맞지 않아 혼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안 보살은 조용히 홀로 하는 봉사가 가장 편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22세에 어머니를 따라 우연히 절에 갔는데, 그곳에 스님이 절 보더니 저는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현세에도 스님이 될 인연이고 내생에도 스님이 될 운명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전생에 교만하고 죄를 많이 지은 스님이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현생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지도 모르죠. 저는 다음 생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어요. ‘지장보살’처럼요. 그게 저의 바람이자 마지막 원입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소운암을 알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멀지 않은 곳에 미술관이 들어섰다. 장소는 석파정을 끼고 둥지를 틀었다. 오가며 공사 진행도 지켜 본 터라 개관이 되면 자주 이용해야겠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탈고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술관을 찾았다. 개관 기념으로 첫 번째 이중섭 화백전이 열리고 있었다. 혼자 간 길이라 머물고 싶은 작품 앞에서 주변 제약이나 일행과 보조 따위는 마음 쓸 필요도 없어 자유로웠다.

작가의 소 그림에 발길이 머물렀다. 육중한 터치 하나하나가 박력이 넘쳐 마치 부사리 같다. 이는 시대의 아픔, 개인의 고독과 절망을 표현주의적 경향의 자유롭고 강렬한 터치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작품 해설에 따르면 소는 민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는 모티브이자 작가의 신분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갈등과 고통, 절망, 분노를 대변함과 동시에 희망과 의지, 힘을 상징한다고도 했다.

안내 화살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석파정에 이른다. 길에서 보면 우뚝 솟아 있는 한옥 한 채가 명절빔을 차려입은 아이의 자태 같아 두 손으로 덥석 안고 싶었다. 인왕산 상행길에도 그 한 채만 보일 뿐이었다. 정원에 들어서니 여지껏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한옥 여러 채가 층층을 이루고 있었다.

우선 눈에 익은 채로 발길을 옮겼다. 서서 보고, 마루에 걸터앉아 보아도 좌우의 산이 선연히 들어왔다. 왼쪽엔 백악산, 오른 쪽엔 인왕산을 바라보니 대칭이 이상적이었다. 그 중 인왕산에 눈길이 머물렀다. 세칭 치마바위가 지척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치마 바위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를 간직하고 풍상을 감내하며 저렇게 의연히 있구나 생각하니 인간의 희로애락이란 한낱 부질없는 유희가 아닌가 반문해 보았다.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 신(愼)씨의 500여 년 전 애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기암괴석이다. 연산군을 몰아 낸 반정공신들이 신수근 형제를 죽이게 된다. 친정아버지 신수근의 죽음이 신씨를 중전 자리에 둠으로써 위태롭다고 생각한 반세력들이 그냥 둘리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중종이 중전자리를 지켜주기에 역부족인 것을 안 신씨는 궐을 나와 인왕산 아래 옛날 집으로 돌아갔다. 절을 나오며 약속을 한다. 살아있는 동안 인왕산 바위에 분홍치마를 펼쳐 놓고 임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하며 흐느꼈다.

그 후 매일 아침 일찍 인왕산에 올라 중종과 함께 살던 때 자주 입었던 분홍치마를 걸어 놓았다고 한다.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임금도 자주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쪽을 바라보며 신씨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녀는 또 임금이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를 기다려 말죽을 쑤어 사직단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임금이 탄 말에게 먹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끝내 궁궐로 돌아오지 못하고 만다. 그녀는 70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50평생을 인왕산 바위에 분홍치마를 걸었다고 하니 그 슬픔과 그리움이 오죽했으랴.

이러한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춘 남녀는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들어온다. 난이내 자리를 떴다. 그 분홍치마는 간데없고 소복한 여인 마냥 흰 구름이 눈앞에 드리운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고 했던가. 새털 같이 가벼운 저 구름, 목화송이 같이 방긋 웃고 있는 백운은 인간의 사고 범주를 훨씬 추월하고 만다. 왜 이렇게 더디게 와 나의 아픈 영혼을 이제야 달래느냐고 한스러워 하는 듯한 그녀의 음성이 끼룩거리는 산새가 전달하는 듯했다. 장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 깊숙이 패인 물길 마냥 한 여인의 온갖 설움과 회한이 골이 되어 물길 보다 더욱 깊게 파이고 폭이 넓어지는 듯하였다.

상념을 떨치고 개울물을 자박자박 밟으며 건넜다. 사람 키 높이의 바위가 눈길을 끈다. 그 위쪽으로는 신라시대 탑으로 추정되는 훤칠한 3층 석탑도 보였다. 옳거니. 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이 있었음이 분명한 듯하였다. 그것은 필자의 속단임을 곧 알게 되었다. 바위에 소수

물을 품고 구름이 드리운 초막
숙종 때 문신 오제 조정만의 별장
오랜 세월 권력 남용 현장으로 이용

운렴암(巢水雲廉庵)이란 횡초서 글씨가 음각되어 있었다. ‘물을 품고 구름이 발을 드리우는 초막’이란 뜻이다. 숙종 때 문신 오제 조정만의 별장 소운암인 것이다. 다음 사람이 와 보고 탑이 있고 음각된 암(庵)자가 보인다 하여 절터를 찾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암은 초막이나 별장이란 뜻도 있으니 말이다. 탑 또한 최근에 수집가로부터 고가에 구입하였다고 들었다.

오제 이후 철종과 고종 때 영의정 김흥근이 살았는데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라 하였다. 어느 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와 보니 군침이 돌아 묘안을 내었다. 조선 후기 학자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흥선대원군이 김흥근에게 팔라고 청했으나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인 고종을 하룻밤 묵게 하였다. 분위기를 파악한 김흥근은 ‘임금이 주무신 집’이라 하여 흥선대원군에게 내주게 된다. 뒤에 대감은 산세가 골산이라 이름을 석파정(石坡亭)이라하고 호도 석파로 하였다고 한다. 소유권은 이희, 이준, 이우에게 전해졌고 한국전쟁 직후 고아원, 병원 등으로 쓰였다고 한다. 권력을 남용한 현장이로구나. 보고 들어 새길만한 일이 아닌 듯하여 서쪽 바위에서 흘러내린 계류의 낙수에 눈을 씻고 귀를 씻고 나니 백운의 미소가 해맑다.

연꽃과 LED조명과의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재질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몸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꽃과조명 LED ART FLOWER
NAVER 카페 꽃과 조명 cafe.naver.com/flowernled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nled)
제휴쇼핑몰 불교TV(btn mall) / 사찰몰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적 메시지를 주는 영화 8選

미국 온라인 영화 사이트 불교영화 소개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불교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온라인 영화 상영관 사이트 그린시네(GreenCine)는 '영적인 영향을 준 불교 영화들(The Most Spiritually Affecting Buddhist Movies)' 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8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영화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등 2편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그린시네는 "영화로 불교생활과 영적진리를 묘사하기란 서구 종교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법(Dharma)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며 "깨달음은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심오한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눈길을 끄는 영화로 만들기가 쉽지않다"고 설명하며 불교영화 8편을 소개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은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다. 동자승이 성장할 때까지의 구도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감독이 그동안 탐구해 왔던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애증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인간이 어디선가 왔다가 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듯이 얼굴도 모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아이가 절과 속세를 넘나들며 겪게 되는 삶의 여정을 설화적인 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은 배용균 감독의 작품으로 깊은 산중의 퇴락한 한 절에서 젊은 수도승과 노스님, 그리고 동자승이 속세의 번뇌와 오묘한 진리 속에서 벌이는 구도(求道) 과정을 정적인 화면 속에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제42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Uncertain Regard)' 부문에 선정됐고, 스위스에서 열린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미국 온라인 영화 상영관 사이트 그린시네(GreenCine)는 '영적인 영향을 준 불교 영화들' 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더 컵(The Cup)'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포스터.

'봄 · 여름…' '달마가 동쪽으로…'
한국영화 2편 선정돼
담마형제, 시간의바퀴 등 다큐 소개

이밖에 그린시네는 '더 컵(The Cup, 1999)' '시간의 바퀴(Wheel of Time, 2008)' '씬레드라인(1998)' '스타 워즈 에피소드 - 시스의 복수' '평화로운 전사(Peaceful Warrior, 2006)'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2007)' 등을 불교적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로 꼽았다.

'더 컵(The Cup)' 은 1999년에 제작된 키엔츠 노부 감독의 부탄 영화다. 히말라야 부탄에서 만들어진 첫 장편 극영화로, 월드컵과 종교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를 유쾌하게 다루면서 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담마 형제(The Dhamma Brothers)' 는 2002년 5월 미국 알라바마교도소의 중범죄자들에게 불법과 위빠사나를 접목한 교화 활동 이후 이들의 심성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를 다룬 실험영화다. 명상프로그램으로써 4시간 동안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한 이들은 그들의 범죄를 참회하게 되고 자신들에게도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확인해 간다. 감독 제니필립스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에 의한 변화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웠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제작 기간동안 재소자들의 호응과 참여가 증가하고 이들에게 붓다의 명상이 희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아웅산 수치 美 '의회 금메달' 수상

달라이 라마 · 요한 바오로 2세도 선정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67) 여사가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인 '의회 금메달(Congressional Gold Medal)' 을 받았다.

수치 여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은 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 가운데 하나"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유와 정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미얀마의) 암흑의 시기에 미국 국민이 우리를 가슴 속에 담아준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8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수치여사를 의회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지금까지 금메달을 전달하지 못했다.

4년만에 금메달을 받은 수치 여사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치 여사를 '친구' 라고 표현한 뒤 "당신이 (미얀마의) 의원 자격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인 미국 의회에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감격을 표시했다.

존 매케인(공화 · 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축사에서 수치 여사를 "나의 영웅(my personal hero)"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치 여사는 의회 행사 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30분간 미얀마 민주화 ·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처음 만난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의 정치, 경제 개혁 증진과 미얀마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미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 라마(좌)와 아웅산 수치 여사는 9월 19일 미국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인 '의회 금메달(Congressional Gold Medal)' 을 받았다.

한편 미국 의회는 달라이 라마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도 의회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나은 기자

日 대표적 티베트 불교학자

세계의 불교학자(34)

오노다순조 日 북교대학 교수



오노다순조(小野田俊藏) 북교대학 교수는 일본학계에서 티베트학 분야로 주목할만한 학자다.

그는 일본에서 티베트어 회화를 자유로이 구사하기 시작한 초기 세대로, 몽골어와 만주어에도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일본 티베트학의 1세대 대가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에게 큰 영향을 받은 오노다순조 교수는 스위스의 티베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도와 라싸 등을 현장 체험하며 연구했다.

특히 박사과정 입학과 더불어 시작된 스위스 유학에서, 당시 스위스에 티베트 겔룩파 계통의 세라사 전통 사찰을 세운 게셰 랍뎬의 문하에서 티베트의 전통적인 승원 교육을 2년 간 수학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그는 티베트의 논리학, 철학, 음악, 미술, 본교(티베트 전통종교) 등 티베트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티베트 탕카를 직접 그리고 기타연주와 노래에도 능한가 하면, 인도의 시타르와 티베트 현악기들도 연주하는 예술적 재능을 키웠다. 이런 다방면으로의 관심을 그는 〈티베트의 워르 만달라(1991)〉 같은데서 잘 보여줬다.

대부분의 일본 티베트 연구자들이 불교학이나 철학적 관심에서 관련 티베트문헌으로 관심이 옮겨간 데 반해, 오노다순조 교수는 처음부터 티베트문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또한 만주와 몽골지역의 불교까지 관심을 넓혀 〈장역 무량수경 울란바토르 사본(2003)〉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티베트에 한정됐던 그의 관심변화는 보다 열린 세계를 지향하며 소수민족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그의 세계관과 연결됐다. 그는 옛 몽골제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심, 그리고 다양성을 용인했던 몽골제국이 추구했던 이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다얀우르스' 라는 단체에 참가해 티베트문화와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노다순조 교수는 다수 교정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아비사마야 알람까라〉의 티베트어 주석서인 〈리췬빼 된뒨쭈〉를 교정해(1983) 문헌학적 역량을 보여줬고, 데이빗 잭슨(1988), 드레이퓌스(1994) 등과도 공동 연구한 교정본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티베트어 해석을 할 때 철저하게 어원학적 분석을 통해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전문용어들도 한 음절 단위로 어원을 분석해 들어가 종합해 해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야마구치 즈이호에게서 영향 받아 오랜 기간 변천돼온 티베트어 철자법에 따라 주요 사전들에 나오지 않는 철자의 단어들까지도 다양한 가능성으로 탐색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는 티베트 승원 논리학인 두라(bsdus grwa)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이다.

10여 년 간 지속되는 티베트 승원 교육의 가장 첫 단계에서 가르쳐지는 두라 논쟁술은, 변항의 형식화된 사용과 같이 인

티베트 · 몽골어 · 만주어 구사
티베트 전통 승원교육 받기도
몽골 · 만주지역 불교도 연구
티베트 두라 논쟁술 천착

도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던 기술적인 측면들이 강조돼 있고, 형식화 돼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노다순조 교수는 두라시스템에 천착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발표했으며 〈티베트 승원 논쟁술: 뒤라 논리의 역사와 구조에 관한 연구(1992)〉라는 영역버전을 발표했다.

한편 티베트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티베트인들의 관점과 주장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려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티베트의 종교지도자들과 그 행적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티베트민족주의가 가미된 주장이나 신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3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점인데, 그 점에서 그의 주장은 매우 신뢰할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의 변방 문화에 관심을 가진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추석맞이 현물샵 상품 대잔치

秋夕

원목 고탁자

상판과 다리를 두껍게 제작하여 견고성이 탁월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원목 그대로의 나무결을 살려 나무 고유의 멋과 은은한 자연미를 선사합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엄선 사용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GS가구의 통원목 고탁자 입니다.
모던한 거실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원목 고탁자는 상판만 원목이며, 통판으로 제작되어진 제품입니다.
원목 통판으로 제작되어 여름과 겨울에 원목의 수축작용으로 갈라짐이 생기는데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갈라짐 현상은 제작상의 문제가 아닌 원목(나무)의 특성상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 응접실테이블,책상,아이들 공부택상, 다과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테이블

● 가격 : 18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청도 王(반) 건시

왕건시 30과 청도군 특산품 추석 선물세트

친환경 농산물로 수입저가 농산물과는 비교 하지마세요.

경북 청도군은 감이 씨가 없습니다. 간혹 씨가 있는제품이 있긴 하지만 거의 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씨가 없으니까 먹기가 편하시겠죠? 일단 드셔보시라니까요~

청도반시 꽃감으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으며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청도가 자랑하는 특산물입니다. 미주지역 수출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품은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게 좋구요.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가격 : 6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 원산지 : 경상북도 청도 ● 제조사 : 동일농산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추석 맞이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질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장미목 미니찻상





장미목에 우레탄 칠을 한 미니찻상입니다.
찻잔 받침없이 여러분이 담소 나누실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찻상이 오래사용해서 상처가 많이 나거나 찻상으로 쓰기 힘들때 화분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5,000원

가로 515㎜ × 세로 115㎜ × 높이 35㎜
3만원 미만 주문시 배송시 택배비 2,900원 별도.
[계좌 : 053-01-269062 농협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한 조각 마음 차 한잔에 담아"

다유구덕(茶有九德)

며칠 전에 인터넷의 상위검색어로 갑자기 녹차가 떴다. 중국의 한 의대에서 녹차속의 화학물질이 사람의 기억력과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발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이미 몇 백년전에 우리 스님들은 다 알고 계셨던 사실들이다. 초의스님의 동다송에 이미 그런 사실이 적혀있어서, 초의-범해 각안스님으로 이어지는 삼대(三代)째 응송(應松)노스님께서 다화(茶畵)에 다유구덕(茶有九德)이라 화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단 두 줄의 선으로 목판으로 된 소박한 찻상을 그리고, 그 위에 찻잔 하나 다관 하나를 그리셨다. 단정한 글씨로 차가 지닌 아홉 가지 덕을 쓰셨는데, 효당 최범술 님의 글은 많이 보았어도 응송 노스님(1893~1990) 친필과 그림은 처음 보았다.



대둔사 응송스님 '다유구덕' (강릉 능가사)

응송스님 승가 다회 전통 계승
한국 차맥 원류 복원 일등 공신

실제로는 한국 승가의 정통다도를 익히고 지키셨던 분은 응송스님인데 차 배우는 다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제다법과 차이론을 제대로 지금까지 잇도록 노력하신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한국 승가의 다회(茶會)전통은 거의 잊혀질 뻔했다.

응송스님은 불에 타 없어졌던 원래 일지암 위치를 알려줘 복원불사를 무사히 마치게 해서 한국차맥의 원류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다. 그럼에도 응송노스님을 아는 다인이 많지 않고, 그 친필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몇 번을 별러서 강릉 능가사에 가서 화가이신 법관(法觀)스님을 뵙고, 그 다실에서 스님의 다화를 보니 감개무량하다.

화제의 내용은 ▷이뇌(利腦, 두뇌활동에 이로움) ▷명이(明耳, 귀가 밝아짐) ▷명안(明眼, 눈이 밝아짐) ▷소화조장(消化助長, 소화를 크게 도움) ▷성주(醒酒, 술취함을 깨움) ▷지갈(止渴, 갈증을 없앰) ▷해로(解勞, 피로를 풀어줌) ▷소면(小眠, 잠을 줄여줌) ▷방한파서(防寒破暑, 추위를 막고 더위를 없앰) 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박하게 관지(款識)도 없이 대둔사(大芚寺, 지금의 해남 대흥사) 응송승(應松僧)이라 글을 쓰셨는데 은은한 감동이 전해진다.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응송스님의 술회에 의하면 사찰의 다회는 우선 선방의 벽에 달마화상을 걸고, 그 앞에 목판으로 만든 투박한 다상을 놓았다. 그 위 삼베로 만든 다포를 깐 다음 향로, 다기와 쌍촛대에 불을 밝히고 일단 참선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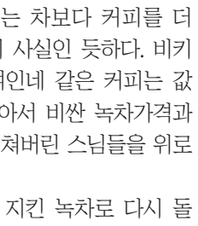
그리고 그 옆에 지필묵(紙筆墨)과 사군자(四君子) 화분을 들여놓는데, 꽃은 너무 화려하다 하여 기피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후에 다동이 차를 달여서 다반과 다완을 가지고 들어와 올리면 이를 마시며 다선일치의 선경(禪境)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요즘 승가에서는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비키니를 입은 서양여인네 같은 커피는 값도 싸고, 향도 좋아서 비싼 녹차가격과 가짜 보이차에 지쳐버린 스님들을 위로하는 중이다.

그러나 불교를 지킨 녹차로 다시 돌아감이 정석인 듯하다.

여말선초 시기의 우리 불교를 대표하셨던 함허 득통(函虛得通, 1376~1433)스님의 다시(茶詩)를 읽으며 글을 마친다.

一椀茶出一片心(일완다출일편심)
한 잔의 차에서 한 조각의 마음이 나오고,
一片心在一椀茶(일편심재일완다)
한 조각 마음은 또한 한 잔의 차 안에 담겼네.
當用一椀茶一嘗(당용일완다일상)
마땅히 이 차 한 잔 맛보시게나
一嘗應生無量樂(일상응생무량낙)
한 번 맛보면 한없는 즐거움이 생겨난다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박물관서 만나는 명품 고려불화"

국립중앙박물관 '나한도와 고승 진영' 展

나한은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하여 해탈을 얻은 아라한이다. 그래서 사찰마다 나한전 혹은 영산전에 십육나한도 혹은 오백나한도가 봉안돼 있다. 나한상은 높은 신통력을 가졌다고 해 불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돼 왔다.

고승들의 진영은 어떤가? 대표적인 고승은 여러 사찰에서 진영을 제작해 추모했다. 또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전통이 있는 선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스승의 진영을 그려 모심으로써 가르침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법맥을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 서화관 불교회화실이 '나한도(羅漢圖)와 고승 진영(高僧 眞影)'으로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들을 찾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한도를 비롯 지공화상, 해담경화 등 고승 진영 15점이 전시된다.

특히,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중 '혜군고존자(慧軍高尊者)'와 '의통존자(義通尊者)' 두 점은 이번 전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명품이다. 고려 1235~1236 그려진 연작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오백나한도는 나한의 신통력을 빌어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던 고려시대 나한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립 중앙박물관은 "현재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 흩어져 남아 있는 작품이 14점 정도인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그 중 7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고 어두워진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는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시에만 아껴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승 진영 부분에서는 한 시대의 불교를 풍미했던 승려들의 초상을 만날 수 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 3대 의승장의 하나였던 기허영규(騎虛靈圭, ?-1592), 청허계 편양파(淸虛休靜, 1520~1604)의 계보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던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 문파의 학승으로 이름 높았던 화담경화(華潭敬和, 86-1848) 등 쟁쟁한 조선시대 스님들의 진영이 눈길을 끈다.

서화관 불교회화실 15점 전시
혜군고존자 등 나한도
지공화상 · 화담경화 진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 서화관 불교회화실이 '나한도(羅漢圖)와 고승 진영(高僧 眞影)'으로 새 단장해 관람객들을 찾는다. 사진 왼쪽은 지공화상 진영, 오른쪽은 해군고존자.

화담경화는 마치 경전을 읽다가 잠깐 얼굴을 든 듯 펼쳐진 책 위에 안경을 벗어 놓은 모습으로 그려져, 그의 높은 학식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선종의 초조로 추앙받는 달마대사, 고려 말기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지공화상(指空和尙, ?~1363)은 인도 승려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영으로 그려진 특수한 경우다. 지공화상은 보통 승려들과 달리 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진다. 불화승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무경관주(無鏡觀周, 19세기 활동)의 진영도 주목할 만한데,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롭게 입수되어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다. 전시는 2013년 5월 12일까지다. (02)-2077-949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중생의 염원 화폭에 담았죠"

이용애 '민화의 조형적 모색展'

"민화 작업은 내게 있어 기도이고 행복이다"

민화 작가 이용애 씨가 10월 3~9일 '민화의 조형적 모색展'을 종로구 경운동 장윤선 갤러리에서 연다. 이 씨는 이번 전시에서 모란도 까치 호랑이 등을 소재로 한 민화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이 씨는 "민화는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 전 많은 생각과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도안한다.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이상세계가 그 속에는 있다. 모든 염원을 담아 기도하듯이 민화 작업을 한다. 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음 한다"고 전한다.

민화는 민중의 삶과 항상 함께 해온 그림이다. 해학과 풍자로 사물을 표현하며 일상생활 곳곳에 놓여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 해왔다. 작가는 이런 민화 작업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씨는 "민화에 들어 있는 상징성, 해학성, 은은한 향과 같은 소박함이 너무 좋다. 하나하나의 작업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채색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그림을 느끼고, 완성 후의 모습을 상상함도 큰 즐거움"이라고 설명한다.

민화에 등장하는 사물 하나하나는 기복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란은 부귀영화를, 석류와 포도 물고기는 다산을, 바위와 소나무는 선비 정신을, 거북과 국화 천도복숭아는 장수를 뜻한다.

작가는 이런 민화의 고전적 의미에 현대적 해석을 가해 눈길을 끈다. "작품 '행복'은 화병에 복(福)자 대신 HAPPY를 써 넣었어요. 현대인들에게 좀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자는 의미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 민화인 만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번 전시에서 호랑이와 모란, 어디서 왔니, 동행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줄 것이다. (02)730-3533

정혜숙 기자

화병에 'HAPPY' 그려 넣어
현대적 해석 '행복' 눈길
10월 3~9일 장윤선갤러리서



이용애 作. 행복

불교문화재의 추억 사진으로 남겨요

불교중앙박물관 공모전

불교중앙박물관이 2012년 사진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문화재에 얽힌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담으면 된다. 박물관은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혹은 스캔한 사진들을 우편 및 이메일, SNS로 접수 받는다.

응모 사진들은 특별전 기간동안 전시되며 당선자에게는 1등(1명), 금목탁(1돈), 2등(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3등(2명) 문화상품권 5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buddhism.or.kr)를 참조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당선 사진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와 함께한 사진展'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e-메일: cbmuseum2011@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museum/ 트위터: cbmuseum2011 (02)2011-1960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10월 감사 특가 91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중국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4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유류할증료 불포함)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깊어가는 가을산사 음악회 '풍성'

10월 산사음악회 다채


10월 각 사찰마다 풍성한 산사음악회가 마련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화엄사의 '화엄제'

가을이다. 폭염으로 밤잠을 설치고 태풍으로 가슴을 졸였던 한여름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에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이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절정의 가을날 산사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성숙의 계절을 상징하는 단풍의 정취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을 산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음악회의 추억이 그리워서일 것이다. 가을, 산사에는 어떤 음악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 2001년 시작해 산사음악회의 원조라 명명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0월 6일 열린다. YB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 가수 우순실, 인디밴드 8번출구, 정율 스님, 특별출연 현정수 신부와 친구들 등이 출연한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청량사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되고자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음악회를 즐기길 바란다. 그리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산사의 음악회로 치유받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월정사 오대산불교문화축전 산사 음악회도 주목할 만하다. 10월 20일 '생명 마음 치유'를 주제로 펼쳐지는 음악회에는 정세훈, 켈싱츄키, 웅산, 유진박, 니르바나 현악 4중주단 등이 출연한다.

해남 미황사는 10월 1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제 13회 괘불재와 함께 개최되는 음악회는 가수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이 특별 초청되고, 인간문화재 박양애의 강강술래, 인간문화재 이인자의 민요 공연이 펼쳐져 남도의 소리를 만끽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산 부석사도 산사음악회 10돌을 맞았다. 10월 6일 펼쳐지는 음악회에는 도신 스님, 원미 현악 앙상블, 심진스님, 가곡 김영온(테너), 시낭송에 이해인 수녀, 관무용단 등이 출연한다.

월출산 도갑사는 10월 13일 산사음악회를 펼친다. 이 자리에는 범능스님, 이용, 현숙, 신계행, 김태곤, 박강수, 임수정, 오로라 등이 출연한다. 음악회와 더불어 열리는 제 7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도선국사 다례제, 광제루 현판 제막식, 신임 주지 취임식, 특별강연회 등을 함께 펼친다.

전등사는 10월 6일 가을음악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정재형, 루시드 폴, 김창완 밴드, 퓨전국악 '다비' 등이 출연한다.

화엄사도 화엄제로 풍성한 음악 한마당을 펼친다. 10월 27일 개최되는 음악제에는 디첸, 쥬얼, 양상블, 마니쉬 비아스, 이아람 등이 출연한다.

이밖에도 금산사 '유쾌한 내비둬 콘서트'가 10월 13일, 천안성불사 10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가 10월 4일 각각 가을 산사 음악회를 펼친다.

산사의 가을 밤, 사찰에서 만나는 음악회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의 가슴에는 가을 산사의 선율이 설레임으로 남을 것이다.

청량사-윤도현 밴드 등 공연

월정사-웅산, 유진박 무대 펼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2년 10월의 산사음악회 (날짜 순)

사 찰	날 짜	출연진	전화번호
백련사	10월 04일	현철, 주병선	(02)306-0288
청량사	10월 06일	윤도현 밴드, 우순실 등	(054)672-1446
서산부석사	10월 06일	도신 스님, 이해인 수녀	(041)662-3824
전등사	10월 06일	정재형, 루시드 폴	(032)937-0125
미황사	10월 13일	박양애, 이인자 등	(061)533-3521
도갑사	10월 13일	범능스님, 이용	(061)473-5122
금산사	10월 13일	퓨전 국악팀 Aux, 안병주	(063)542-0048
천안성불사	10월 14일	다섯손가락 녹색지대	(041)565-4567
월정사	10월 20일	웅산, 유진박 등	(033)339-6800
화엄사	10월 27일	디첸 이아람	(02)703-6599

부처님의 미소에서 백제 문화를 읽다

부여박물관 26일부터 특별전


부여 부소산 출토 '부처 얼굴'

금동입상보살 · 부처 얼굴 등

백제의 문화와 역사 보여줘

서산마애삼존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온화함은 백제가 어떤 땅이었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이 지역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그 풍족하고 넉넉한 얼굴 표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백제인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국립부여박물관(관장 박방룡)은 9월 26일~내년 1월 13일까지 특별전 '백제인의 얼굴, 백제를 만나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유물에서 보이는 얼굴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5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1부는 선사시대로부터 얼굴을 표현해 온 전통을 다루는 '백제 이전의 얼굴' ▷2부는 삼국의 얼굴을 함께 살펴보는 '백제 이웃의 얼굴' ▷3부는 기와 · 불상 · 회화 등 다양한 유물에서 백제인을 만나보는 '백제인의 얼굴' ▷4부는 중국, 서역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삼국에서의 이국적 얼굴'을 ▷5부에서는 백제를 빛낸 '역사 속 백제인'과 함께 백제인의 숨결이 남아 있는 '백제인의 후예들'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여 구교리 출토 부처, 부소산 출토-부처 얼굴, 현북리 출토-금동보살입상 등 다양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백제 중흥을 도모했던 제26대 성왕(聖王)의 흉상을 복원, 역사 속 백제인을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그리고 1995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한 부여 능안골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을 토대로 백제 귀족 부인을 복원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당염립본왕회도(唐閻立本王會圖)에 그려진 백제사신의 복원품과 그 과정을 국립박물관에서는 처음으로 3D 입체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복원작업은 얼굴박사로 알려진 조용진 교수(전 서울교대)에 의해 진행됐다.

또한 '백제사람 되어보기' 라는 체험코너를 마련하여 관람객이 직접 1400년전 백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특별강연회 '얼굴로 보는 백제인'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미스 · 미스터 백제 선발대회'도 열린다.(061)473-5122 **정혜숙 기자**

템플스테이 방법 안내해드려요

문화사업단 참가자용 '클레이 애니메이션' 개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발한 클레이애니메이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 이하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홍보 동영상을 개발했다.

7분 가량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한국어와 영어 2종으로 구성됐으며, 귀여운 클레이 인형이 다양한 상황을 통해 사찰에서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애니메이션은 이달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사찰에 배포된다.

문화사업단은 "불교가 생소한 참가자들에게 좀 더 알기쉽게 사찰예절과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며 "귀여운 캐릭터들로 제작된 만큼 참가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마그네틱'과 '동자승 카드' 등 템플스테이 문화상품도 개발했다. 한국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해 개발된 이번 문화상품은 일상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통해 전통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석의 시와 삶展

문화공간 숨도…10월 7일까지

시인 백석은 길상사 공덕주 길상화 보살과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로도 유명하다. 그의 시는 월북했다는 이유로 한때 금기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불교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숨도에서 시인 백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송민선 작가의 '백석, 시와 삶' 展을 연다. '그림으로 보는 시' '삶으로 느끼는 시' '시구로 곱씹는 시' 세 파트로 나뉘어 9월 19일~10월7일까지 진행된다. (02) 717 3535

만트라에 담은 자비의 선율

아니 초잉 돌마 'Inner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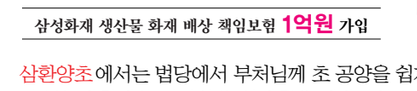


'만트라'는 그 음절 하나하나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소리의 정수이자, 소리 에너지의 형태로 표출된 진리다. 때문에 만트라를 암송하면 마음이 집중되어 평정과 집중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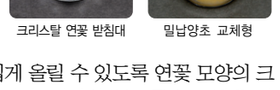
네팔이 배출한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비구니 스님 아니 초잉 돌마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천상의 목소리로 담아낸 만트라를 'Inner Peace'〈사진〉에 담았다. 이번 앨범은 Namo Ratna Traya Ya(나모 라뜨나 뜨라야 야)-대비주(大悲呪) ▷'Om Tare Tuttare Ture Soha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 녹도모심주(綠度母心呪)' ▷'Om Mani Padme Hung (옴 마니 베메 훙) - 육자대명주 (六子大明呪)' ▷'Om Amarani Jevan Teye Soha (옴 아마라니 제완 떼예 소하)-아미타불심주(阿彌陀佛心呪) 등 6개의 만트라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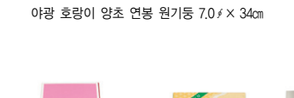
특히, 앨범 타이틀로 수록된 '나모 라뜨나 뜨라야 야-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지혜를 보여준다. 타라 만트라(Tara Mantra)는 자비와 사랑의 여신이자 만물의 어머니인 타라(Tara)를 통해 사바세계의 온갖 고난과 장애물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원을 담았다. **정혜숙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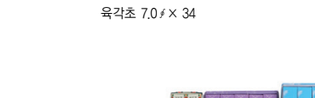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 후라지아 / 영원향 장,단(소바라) / 향수림

백목향,목향 /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 연두 / 백색 / 핑크 / 환타 /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명상은 체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멈춤의 여행
각산 지음
공감의 기쁨 펴냄
1만2천원

세계적 명상가 아잔 브람의 제자가 들려주는 명상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참된 ‘나’를 찾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복잡한 이론을 피하고 경전에 충실해 문자 그대로의 핵심만 추려 올바른 명상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책은 단계별 수행을 중시한다. 자칫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단전호흡, 뇌호흡, 기공수련 같은 수련이나 미얀마 방식으로 일관된 위빠사나 명상을 탈피한 명상법을 소개한다. 수행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 마음관찰, 호흡관찰, 호흡 전체 보기, 감미로운 호흡, 마음의 보름달, 선정으로 설명한다. 대화명상, 걷기명상, 운전명상, 불면증 명상 등 생활 속 명상을 함께 이야기하며 일상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첫 단계는 마음관찰이다.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기는 위빠사나 명상의 기본이자 선정과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사마타-위빠사나의 기초입문 단계입니다. 사마타-위빠사나의 기초입문 단계입니다. 사마타-위빠사나를 닦으면 깊고 오묘한 이치를 꿰뚫게 됩니다.” 위빠사나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집합체인 오온(五蘊)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떻게 오온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좌선할 때 신체의 앉음과 닿음을 알아차리거나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단계인 호흡관찰은 수행의 첫 단계인 마음관찰을 통해 수행의 진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되는 본격적 선정수행 단계다. 수행법은 숨이 길면 긴 숨인 줄 알아차리고, 숨이 짧으면 짧은 숨인 줄 알아차려야 한다. 숨의 전체 과정을 알아차리고, 숨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저자는 호흡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호흡을 통제하려 들지 말라고 말한다. 호흡을 구경꾼처럼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보는 수행이 쌓이고,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호흡은 고요함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이론 피하고 경전에 충실
선정에 드는 여섯 단계 소개
대화명상 등 생활 명상 함께 다뤄

세 번째 단계는 호흡 전체보기다. 들숨과 날숨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는 순간가지 호흡의 전체를 관찰하는 것인데, 호흡의 전체보기를 수행하면 마음은 달아나지 않고 집중이 더 깊어진다. 이러한 호흡은 매우 평화롭고 고요하며 놀랍도록 감미롭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허공과 하나가 된 부드럽고 ‘감미로운 호흡’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모든 호흡의 알아차림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 염념상속(念念相續)이 한두 시간 경과하면 좌선 때마다 한 시간 이상, 사흘 연속 이상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마음의 빛인 심월(心月)이 일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감미로운 호흡이다. 이 단계는 수행의 도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단계다. 마음은 매순간 허공과 하나 된 우주 허공 그 자체의 평온한 호흡만 있게 되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평화로운 지복(至福)의 상태로 향한다. 호흡이 차츰 사라지면서 호흡의 결정체요, 극치인 ‘감미로운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 마음의 보름달은 감미로운 호흡의 수행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진입되는 단계로, 몸의 감촉을 비롯한 다섯 가지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외부에 대한 인식작동이 거의 멈추는 단계를 말한다. 오직 아름다운 정신적 대상의 심월인 찬란한 빛만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최상급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선정이다. 선정삼매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심오한 무위(無爲)의 세계로, 육신을 가진 채로 육신 없는 세계로, 오로지 순백한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행복감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선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흥분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깊은 몰입의 삼매로 들어서면서 황홀감의 극치를 난생처음 체험하게 되고, 가슴에 몰아치는 흥분을 억제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을 무덤덤하게 진정시킬 수 있을 때, 지상 최고의 절대평온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형성을 소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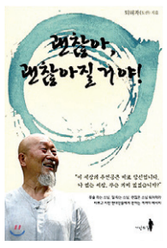
세계적인 명상가인 아잔 브람의 제자인 각산 스님은 “삶의 성공적인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법에 있습니다. 실천법을 모르면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 궁리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체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무소유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퇴허자(도산) 지음 | 거인의 길 펴냄 | 1만3천원



“‘무소유’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알맞게 갖는 것과 적당하게 갖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소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당하게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해서 슬퍼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소유(無所有)입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는 퇴허자(도산) 스님의 명상 에세이다.

늘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를 입에 달고 다녀 ‘괜찮은 스님’으로 통하는 저자는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차 한 잔의 향기 속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한다.

젊은시절 합기도 도장에서 여러 수련생들을 지도하던 성공한 무도인으로, ‘무술심경’이라는 가르침을 남기고 홀연히 출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말하고 있다.

희생 없는 종교, 서로 비방하는 종교를 질타하고 상업화로 치닫는 힐링 유행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종교 화합으로 작은 통일을 이루자’는 발심으로 20년 가까이 ‘3대 종교 화합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도산 스님의 치유 명상 에세이
3대 종교화합운동 20년간 펼쳐

또한 저자는 진정한 무소유는 나누는 것이기에 깨달음조차 소유하지 말고 서로 나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마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도구 삼아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재미와 의미 그리고 보람을 동시에 찾는 프로인생을 살 자는 것이다.

승보사찰 송광사서 수행했고, 승달산 ‘토굴산방’서 용맹정진한 스님은 이 책에서 ‘우주만법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풍광직설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한편 광주 대각사에 주석하며, 전남 화순 장애인 복지시설인 ‘호산마을’을 설립했다. 최근에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이들의 모임 ‘괜찮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저자는 “흔히 무소유를 말하면서 물질의 소유로만 좁혀 보곤 하지만 인간의 소유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무소유에 대한 해법도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2~9/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자기치유	조순희	정우서적
8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운주사
9	깨달음으로 가는 위빠사나 명상	해공	근원출판
10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백파 긍선 스님의 육조단경 주석서

육조대사법보단경요해

백파 긍선 술 | 김호귀 역주 | 정우서적 | 1만5천원



달마에 의해 시작된 중국 선종의 제6조 혜능이 소주의 대범사에서 설한 법을 제자 법해가 기록한 〈단경〉의 주석서로, 조선 후기 〈수선결사문〉을 지어 전통적인 선수행법을 거양했던 백파 긍선 스님이 1845년에 내놓은 주석서다.

〈단경〉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여러 선사들에 의해 가필(加筆), 보충된 형태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본이 있으며, 제목도 조금씩 다르다. 현존 최고(最古) 판본인 돈황본을 비롯해서 대승사본, 흥성사본, 덕이본과 종보본이 있는데, 덕이본과 종보본의 제목이 ‘육조대사법보단경’이다. ‘단경’이란 이들 여러 판본의 제목들에 공통적으로 쓰인 제목이다. 이번 책은 덕이본을 바탕으로 주석한 것으로 긍선 스님의 진공과 묘유의 도리를 적용하여 〈단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단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혜능의 친설과 후대에 첨가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인물에 의하여 이러한 일이 추진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혜능의 말에 대하여 후인들이 첨삭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남종선(南宗禪)의 인물들에 의하여 남종선 확립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의 소산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첨삭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건 한 사람이건 혜능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선법의 기록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단경〉은 돈오, 견성, 무념 등의 사상을 강조하며, 금강경을 비롯한 반야사상의 영향도 적지 않다. 또한 〈단경〉은 이전의 선법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선(祖師禪)의 단서가 되는 사상도 다수 발견되어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이 깨침을 터득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던 좌선으로부터 그 수행법과 사상이 발전되고 전승된 선법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는 보리달마를 통해 소위 조사선의 가풍이 시작됐다. 수, 당 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당 말기와 오대에는 선종오가가 형성되어 다양한 어록이 출현했다. 8세기 중반에 당으로부터 조사선법을 수용한 한국선의 경우 9세기부터는 선종오가의 전래와 더불어 다양한 산문을 형성했는데, 고려 중기 이후에는 수많은 선어록과 다양한 선수행법이 전승됐다. 그 가운데 〈단경〉의 수입은 조사선의 사상과 전등(傳燈)에 대한 이해를 크게 고취시켰다. 이후로 〈단경〉은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개판되었고, 한국선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단경〉에 대한 주석서는 거의 없었다. 이번 〈단경요해〉는 그동안 다양한 저술과 주석을 통해 조사선의 전통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했던 백파 긍선 스님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긍선 스님의 당부와 책의 의미가 서문에 있다. “우리의 도반들은 지금 이후로 특별한 마음을 열고 대장부의 마음을 내어서 선 · 악과 인 · 과를 모두 따지지 말고 직접 이 〈법보단경〉의 정법안장을 가지고 영원히 선실 가운데 일용의 명경으로 삼기를 바란다.”

박재완 기자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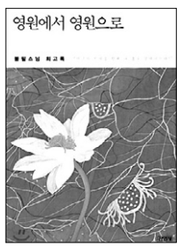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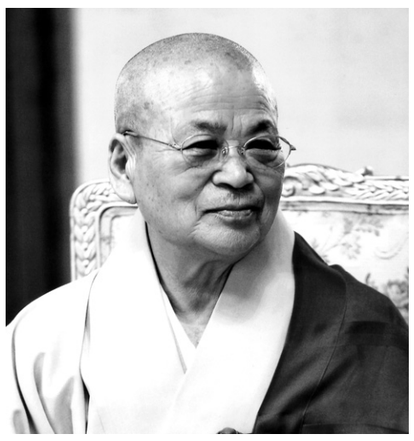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행복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게 있다. 니는 어떤 행복 원하노?"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1만4천원

"묘관음사 입구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질 무렵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을 따라 한참 올라갔더니 우둘두둘 무섭게 생긴 스님이 보였다. 상상 속에 그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의 도반인 향곡스님이었다. …… 아버지 큰스님은 아마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어디론가 피해 계셨던 것 같다. 조금 있다가 향곡스님과 함께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눈이 부리부리한 스님 한 분이



성철 스님 탄생 1백주년 맞아 회고록 펴낸 불필스님이 몇해전 청와대 초청됐을 때 모습

성철 스님 딸 불필 스님 회고록 펴내
가족사와 성철스님 법문 노트 등 공개
"13세때 성철 스님 가라고 쫓아보내"

나타났다. 마음속으로 '저 분인가?' 하는 순간, 그분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 "가라,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한 치의 미련도 없이 삼촌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서버렸다.

"집에 가자, 삼촌!"

지난 1993년 입적한 성철 스님의 유일한 혈육 불필 스님이 처음 마주한 '아버지' 성철 스님의 모습은 단호하고 매정했다.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회고록인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가슴 속 깊은 곳에 꼭꼭 담아 왔던 절절한 가족사와 곱게 간직해 온 성철 스님의 편지, 사진, 친필 법문 노트 등을 세상에 꺼내 놨다.

저자인 불필 스님은 성철스님 친딸이자 제자다. 스님은 1961년 3월 경남 양산 통도사서 정식 비구니계를 받은 뒤 경북 대승사 묘적암, 해인사 국일암, 지리산 도솔암 등에서 수행하다 지금은 해인사 금강굴에 주석중이다.

불필 스님은 지난 동안거 결제 한 철 동안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이 책을 썼다. 처음에는 산속에서만 살아온 선승인 자신이 책 내는 일이 옳은 일인가 싶어 여러 차례 출간 제안을 고사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부친인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큰 스님 법대로 석남사 대중들과 참되게 수행해온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달라는 청을 차마 물리치지 못했다.

이 책에서 불필 스님의 눈을 통해 소개되는 성철 스님은 가장 철저한 수행자인 동시에 너무나 자비로운 존재다. 성철 스님이 머물던 해인사에 하루는 초로의 보살이 찾아왔다. 사연인 즉 들어보니 베트남전에 참전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었다. 성철스님은 일단 보살에게 쌀을 가져다 밥을 지어 부처님 전에 올리라고 했다. 그리고 일을 마치자 이번에는 한 번에 3천 배 기도를 하라고 명했다. 처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일이 끝나자 신심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시킨 것이다.

성철 스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불필 스님의 인간적인 고백 또한 절절하다.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후에도 영결식과 다비식에 가지 못했다. 신문에서 불필 스님의 법명에 담긴 뜻, 즉 '필요 없다(不必)'는 의미를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장애)와 비슷한 뜻으로 해석해 세간에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필 스님은 다비식 당일 늦은 오후 금강굴 위 다비장에서 사그라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다 합해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하는 아홉 번의 절이었다. 불필 스님은 "생사의 바다에서 마음의 눈을 바로 떠서, 영원한 대자유인으로서 성철 스님을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책에는 인홍 스님, 법전 스님, 향곡 스님, 묘엄 스님, 법정 스님 등 치열한 선지식들의 용맹정진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한 예로 11대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법전 스님은 해인사에 있을 때 선방에 앉으면 미동도 하지 않아 '절구통 수좌'로 불렸다. 1주일 동안 잠 자지 않는 해인사 전통의 용맹정진 때도 유일하게 졸지 않은 사람이 법전 스님이었다.

졸지 않는 비결을 묻는 후학들에게 법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화두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졸 수 있는가?" 이처럼 철저한 정신과 수행이 법전스님을 우리 시대의 대승(大僧)으로 만들었다.

성철 스님과 불필 스님의 가슴 찡한 가족사는 이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이야기이다. 불필 스님이 출가를 결심했을 때 어머니는 딸의 출가를 막기 위해 남편인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 철조망을 두른 채 정진하는 성철 스님을 종일 기다린 어머니는 스님이 시자실에 온 틈을 타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다. 성철 스님은 시자들에게 큰 소리로 당장 쫓아내라며 펄펄 뛰었고, 어머니는 지아비 성철스님에게 "스님, 내가 할 말이 있어 왔소!"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자들에게 끌려나오고 말았고,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남편과 딸이 절로 떠나보낸 어머니는 그 불연(佛緣)을 어쩔 수 없었는지 쉰일곱의 나이에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

불필 스님은 "'영원한 행복과 일시적 행복이 있다'고 하실 때 나는 벌써 내 생을 결정내버리고 말았다"며 "항상 행복만 추구했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에 바보가 아닌 이상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출가를 꿈꿨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언니, 출가한 아들을 보러 금강산까지 찾아갔던 할머



사진 좌측 시계방향으로 인홍 묘엄 불필 성철 스님순. 해인사 백련암 장경각 앞에서 촬영했다.

성철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에 불참
금강굴서 홀로 3배 아닌 9배 올려
"영원한 자유인으로 다시 만나자 서원"

니, 남편에 이어 딸까지 출가한 뒤 50대에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어머니까지 "전부 전생에 스님들인것 같았다"는 가족사도 풀어놨다.

성철스님은 법문노트에 수도팔계(修道八戒 · 수행자가 지켜야 할 8가지 원칙) 등의 법문을 담았다고 한다. 영원한 자유를 위해 일시 소소한 영화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희생과 절속, 고독, 천대, 하심, 전념, 노력, 고행 등이 그것이다.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법문도 있다.

"나를 위해 남을 해침은 불행의 근본이요 참다운 행복은 오직 나를 버리고 남을 돕는 데서 옴을 깨달았사오니 항상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일하고 사는 사람이 돼 영원한 행복을 받는 길로 이끌어주시옵소서." 등등.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천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업적 조명

일꾼 의천

오윤희 지음 | 불광 펴냄 | 2만원



2011년은 고려대장경 조성 천 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여러 학술대회가 열리고 전시회가 개최됐다. 1011년(고려 현종 2년) 거란 침략에 불력(佛力)으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돼 1087년(선종 4년)까지 77년에 걸쳐 6,000여 권의 경판으로 완성됐다. 그리고 1073년(문종 27년)부터 1090년(선종 7년)까지 대각국사 의천은 불경과 경소를 정리한 목록집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완성했고, 이 목록에 따라 1099년(숙종 4년)까지 4,740여 권이 인간(印刊)되었는데 이것을 '속장경'이라 한다. 이 경판들은 모두 대구 부인사에 이관, 소장되었으나 1232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몽고군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는 대장도감을 새로 설치하고 1236(고종 23년)부터 1251년(고종 38년)까지 재조대장경을 완성했다. 이 대장경은 663함 1,562부, 6,778권에 경판 수는 81,258판이다. 이 경판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합천 해인사로 옮겨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이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고려대장경이다. 초조, 속, 재조로 이어지는 고려대장경 역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다만 초조대장경에 누락된 불경과 장소를 새로 정리해 목록을 만들고 인간한 스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을 일본 역사학자 오야 토쿠죠는 새롭게 다시 되살려냈다. 오야 토쿠죠는 일본에 전승돼던, 의천 관련 자료를 모아 한국과 중국서 새 자료를 발굴해 1937년 〈고려속장조조고(高麗續藏雕造攷)〉라는 책을 출간했다.

오야 토쿠죠가 의천을 발견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일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대장경 간행사업을 꾸준히 추진했고, 20세기 초에는 속장경도 간행했다. 의천이란 인물의 발견은 그런 일 속에서 이루어졌다.

초조대장경속 누락된 불경 정리
의천, 큰 공헌은 〈교장〉 결집
구법여행길 따라 저자 자료 수집

의천은 문헌결집, 말하자면 책에 삶을 걸었던 인물이다. 그 삶의 중심에 〈고려속장경〉 〈교장(敎藏)〉이 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을 해냈다. 고려 〈교장(敎藏)〉은 그 규모만 따지더라도 세계사적인 의의를 지닌 큰 일이었다. 송, 거란, 일본에까지 장소를 수집해 이룩한 4,000여 권 대규모 문헌집성인 〈교장(敎藏)〉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문헌들을 집성한 것이긴 해도 불교라는 틀 안에서 평가하기에도, 선종이나 교종 등의 종파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도 그 의의와 가치는 너무도 큰 것이다.

의천은 이 〈교장〉 결집을 통해 모든 중생이 올바른 삶과 실천을 통해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의 간절한 소원대로 교장은 불교교리 연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를 축으로 송, 거란,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불교문화로 결속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게다가 의천은 〈교장〉외에도 〈원종문류(圓宗文類)〉나 〈석원사림(釋苑詞林)〉 같은 큰 규모의 문헌집성도 함께 이루어 냈다. 의천이 직 · 간접으로 남긴 기록들에는 그 같은 일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이 점점이 담겨 있다.

세속의 나이 마흔 일곱, 그 짧은 삶 동안 의천이 이룬 일들은 너무도 큰 일들이다. 특히 천 년 세월을 넘어도 칭송받는 역사적 문헌결집은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크고 방대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천대사는 빠르게 잊혀졌다. 다행히 근래 들어 의천이나 그의 문헌결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왜 해야 했는지, 어떻게 해 낼 수 있었는지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저자는 의천에 관한 기록을 모두 찾아 조사하면서 의천의 송나라 구법여행길을 기록에 나온 대로 걸으면서 그 자취와 새로운 기록을 찾아내었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 하나씩 맞추어 가면서 세상 밖으로 의천을 이끌고자 하였다. 자잘한 조각과 단편들에 기대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막연하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심증을 늘어놓을 수만도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남아 있는 기록과 흔적을 있는 그대로 많이 소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섣부른 해석을 읽는 것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 생동감도 더한다는 생각으로 천 년 전 의천을 우리 곁으로 끌어내는 데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주일 기자

염불수행 이론 정립과 실천 수행 소개

일심정토 염불수행

정목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천원



일심정토 염불수행은 소승으로부터 대승에 이르는 모든 수행문을 포섭해 간단명료하고 실천하기 쉬운 수행법이다. 정토는 부처님 지혜의 모습인 연기의 법계, 일심의 생명, 무량한 광명의 세계를 아미타불의 정토라는 종교의 세계로 전환해 보인 것이다. 일심정토 염불수행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정토를 생각하고 관하도록 인도하는 중도의 실현이다. 수행의 요체는 일심, 광명, 화신이다. '일체경계 본래일심'인 지혜를 우러러 믿고, 성소작지에 의지하여 아미타를 법으로 삼아 칭명과 십념과 관상의 공덕을 상속하여 실천한다. 염불의 공덕은 우매한 범부도 자비광명에 섭수되어 윤회를 벗어나게 한다. 믿음과 이해가 깊은 근기는 자연과 중생이 청정한 공덕상을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관하여 정토의 경계를 감득하고 정정취에 들어간다.

이 책 저자인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에 따르면, 원효(元曉, 617~686) 대사의 일심정토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라 한다. 이에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신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

원효 대사의 방대한 저술을 번역하고 강의해 오면서 일심정토 염불수행의 이론 정립과 실천수행을 지속해온 정목 스님은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신심 · 안심 · 발심 · 수행 · 정정취 · 회향 · 일심증득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교학 따로, 수행 따로의 혼란한 불교 수행 및 신행체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주일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갸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보양이 작갑사 즉 운문선사를 세운 까닭은?

삼국통일 발원과 불법 홍포 위해 창건

1. 나말여초의 대표 선사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책의 이름 때문에 삼국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은 '삼국의 빠진 이야기'라는 서명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었던 찬술자 일연(一然)과 그의 제자 무극 혼구(無極混丘)의 역사관을 투영시켜 중세 고려의 역사도 틈틈이 담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태조 왕건(王建)을 가리키는 '아태조'(我太祖) 및 고려 태조 시절의 몇몇 기록이 이를 반증해 준다. 또 「기이」편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경순)대왕'과 '후백제의 견훤' 조목처럼 고려 태조와 경쟁하다 귀부한 두 왕의 전기도 실려 있다. 때문에 이들 기록들은 당시를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의해」편의 '보양이목'(寶壤梨木) 조목 역시 신라 말과 고려 초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양이목'은 '원광서학'(圓光西學) 조목과 연이어 있어 편집상의 혼란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통용되는 중종 임신본(1512)에 의하면 '원광서학' 조목임에도 불구하고 말미 부분에는 보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연은 '원광서학'의 말미에서 "고려의 김척명(金陟明)은 항간의 말을 잘못 윤색하여 「원광법사」전을 만들면서 운문사 개산조인 보양의 사적을 합쳐 하나의 전기로 만들었었다. 그런데 뒷날 각훈(覺訓)은 『해동고승전』을 지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기록과 자신의 글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하여 한 자도 가감하지 않고 두 전기를 자세히 기록했다"고 하였다.

일연은 「보양전」에서 보양의 고향과 성씨의 내력을 자세히 싣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그는 청도군(淸道郡)의 서적들을 참고하여 보양의 행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천복(天福) 8년 계묘년(고려 태조 26) 정월 어느 날, 청도군 계리심사(界理審使) 순영(順英) 대내말(大乃末)과 수문(水文) 등이 주첩(柱貼)한 공문을 인용하여 "운문사(雲門寺)의 경계표[長生標]는 남쪽은 아니점(阿尼岾), 동쪽은 가서현(嘉西峴)이라 했다." 그리고 "이곳 본사 삼강전의 주인은 보양화상이며, 원주(院主)는 현회장로(玄會長老)이고, 정좌(貞座)는 현량상좌(玄良上座)이며, 직세(直歲)는 신원선사(信元禪師)라고 하였다," 또 "개운(開運) 3년 병진년(946, 병오년), 운문산 선원의 장생표탑 공문의 하나에는 장생(長生)이 11곳이니 아니점, 가서현, 무현(畝峴), 서북매현(西北買峴), 북저족문(北猪足門) 등"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경인년 진양부(晋陽府)의 첩문에는 5도 안찰사가 각도 선교(禪敎) 사원이 세워진 연월과 내력 등을 조사하여 문서를 만들 때 차사원(差使員)이었던 동경의 장서기(掌書記) 이선이 조사한 기록에는 정풍(正豊) 6년 신사년(1161) 9월, 군의 옛 전적인 『비보기』(裨補記)에 준하면, 청도군의 전 부호장 어모부위(禦侮副尉) 이칙정(李則禎)의 집에 옛 사람들의 행적과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있다. 벼슬에서 물러난 상호장 김양신(金亮辛)과 호장 민육(旻育), 호장 동정(同正), 윤응(尹應), 전기인(前其人) 진기(珍奇) 등과 당시의 상호장인 용성(用成) 등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태수 이사로(李思魯), 호장 김양신은 나이 89세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70세 이상이었는데 용성도 60세 이상이라 했다"고 적었다. 이처럼 일연은 자신이 머물렀던 운문사의 개산조인 보양의 전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적극성을 띄었다. 보양에 대한 그의 기술태도는 선사로서의 면모보다는 사가로서의 풍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작갑사 즉 운문사의 창사

신라 시대 이래에 청도군의 사원은 큰 사원인 작갑사 이하 중소 사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사이에 대작갑 · 소작갑 · 소보갑 · 천문갑 · 가서갑 등 5소갑이 모두 없어지고 다섯 갑주를 대작갑에 합쳐졌다. 작갑사의 시조인 승려 지식(知識, 보양)은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받고 돌아올 때 용이 그를 서해에서 궁중으로 맞아들여 경문을 외게 하고 금실로 수놓은 비단 가사 한 벌을 시주하였다. 아울러 이무기[璃目]라는 아들 하나를 시봉으로 삼아 딸려 보내며 부탁하였다. "지금은 삼국이 소란하여 불법에 귀의하는 군왕이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에 절을 짓고 살면 도적도 피할 것이오. 또한 몇 년이 못 되어 반드

삼국유사, 고려 역사도 틈틈히 조명
일연, 〈보양전〉에 보양 내력 안 실어
청도군 서적 참고해 보양 전기 재구성
보양법사, 운문사 전신인 작갑사 창건

시 호법하는 어진 군왕이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오." 말을 마치자 보양은 용과 헤어진 뒤 돌아와서 이 계곡에 이르렀다.

홀연히 원광(圓光)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노승이 인궤(印櫃)를 안고 나타나서 건네주고는 사라졌다. 일연은 여기에다 "원광이 진(陳)나라 말년에 중국에 갔다가 개황(開皇) 연간에 돌아와 가서갑에 머물렀고, 황룡사에서 죽었으니 청태(淸泰) 초까지는 무려 3백여 년이다. 지금 여러 갑사가 황폐한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보양이 와서 장차 절을 일으켜 세우려 한 것을 기뻐하여 알린 것이다"고 할주를 붙였다. 보양은 황폐해진 절을 중흥하고자 북령(北嶺)에 올라가 바라보니, 뜰에 5층의 누런 탑이 있어 내려와 찾으니 자취가 없었다. 다시 올라가 바라보니 여러 마리의 까치가 땅을 쪼고 있었다. 해서 서해 용왕이 말하는 작갑을 생각하고 찾아가 땅을 파보니 벽돌이 없었다. 이에 이전 시절의 절터인 줄 깨닫고 절을 짓고 머무르며 작갑사라고 하였다. 얼마 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다섯 갑의 전지 5백결을 합하여 이 절에 헌납하고 청태 4년(천복 2년) 정유년(937)에 운문선사(雲門禪寺)라는 편액을 내려 가사의 신령한 음덕을 받들게 하였다.

그 사이 이무기는 절 옆에 늘 살면서 보양의 불법 교화를 도왔다. 어느 해 갑자기 몹시 가물어 채소가 타들어가고 말랐다. 보양이 이무기에게 비를 내리도록 일렀다. 이무기가 비를 내리자 한 경내가 비에 흡족히 젖었다. 천제(天帝)는 자신도 모르게 비를 내린 죄로 이무기를 죽이려 하였다. 이무기가 사정이 급하게 되어 법사에게 말하였다. 법사는 이무기를 마루 밑에 숨겼다. 조금 있다가 천사(天使)가 와서 이무기를 내놓으라고 청하였다. 보양이 뜰 앞의 배나무[梨木]를 가리키자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올라갔다. 벼락을 맞은 배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이무기가 쓰다듬자 곧 되살아났다. 그 나무가 근년에 쓰러지자 어떤 사람이 그 나무로 방망이를 만들어 법당과 식당에 두었다. 그 방망이의 자루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었다.



후삼국 통일을 위해 왕건을 도왔던 보양 선사는 작갑사를 중창했다. 934년 고려 태조 왕건은 보양 선사의 공에 대한 보답으로 '운문선사(雲門禪寺)'라는 사액을 내렸으며, 전지 500결을 하사했다. 사진은 운문사 범종루 전경

처음에 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추화군(推火郡) 봉성사(奉聖寺)에 머물렀다. 마침 고려 태조가 동쪽을 정벌하는 길에 청도군 경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적들은 견성(犬城, 산봉우리가 물에 뾰쪽하게 서 있어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견성이라 하였다)에 모여 오만해지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가 산 아래에 이르러 보양에게 쉽게 제압할 계책을 물었다. 보양이 대답하였다. "무릇 개라고 하는 것은 밤에만 지키고 낮에는 지키지 않으며, 앞만 지키고 뒤를 잊는 것이니 마땅히 낮에 견성의 북쪽을 치소서." 태조가 그 말대로 하자 산적들은 과연 항복하였다. 태조는 보양의 신통한 계략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가까운 고을의 세금 벼 50섬을 주어 향화로 쓰게 하였다. 그래서 그 절에 태조와 보양 두 성인의 초상을 모시고 봉성사라고 하였다. 뒤에 법사는 작갑사로 처소를 옮겨서 불법을 크게 개창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3. 보양전의 부전 문제

그런데 보양법사의 옛 전기에는 그 행장이 실려 있지 않았다. 아마도 언급한 것처럼 김척명이 항간의 말을 잘못 윤색하여 『원광법사전』 출간시 운문사 개산조사인 보양의 사적을 합쳐 하나의 전기로 만들면서 뒷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까? 속전에는 의하면 보양은 석굴사의 비허(備虛)와 형제가 되었다. 아마도 비허는 보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도반으로 짐작된다. 이들 두 사람은 봉성사와 석굴사와 운문사 세 절의 봉우리를 마주하며 서로 왕래했다고 전한다. 일연은 "후세 사람들이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을 개작하면서 함부로 탑을 짓고, 이무기의 일을 『원광법사전』 속에 기록하고, 견성의 사실은 『비허전』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동(고)승전』을 지은 이가 그대로 따라서 윤색하여 보양의 전기를 없애 후세 사람이 의심하고 잘못 알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라며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일연은 만년에 운문사에 머무르며 『삼국유사』의 많은 부분을 집필하였다. 그는 운문사에 머물며 이 절의 개조인 보양법사의 전기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연은 『삼국유사』 각 조목 내용의 할주(割註)에서 뿐만 아니라 각 조목의 말미에 '상시논지'(嘗試論之, 아도기라), 또는 '의왈'(議曰, 아도기라), 혹은 '의왈'(義曰, 가락국기), 나아가 '찬왈'(讚曰)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그의 의사 표현은 『삼국유사』가 일연의 독창적인 저술이 아니라 종래 서적을 종합한 편집적 성격이 강한 저술이라는 세평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준다. 일연은 할주에서나 각 조목 말미에서의 종합 정리 및 찬시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사가로서의 면모와 문화인으로서의 풍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보양의 행장이 옛 전기에 실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일연의 투철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다. 보양과 같은 주요한 인물의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행장들인 『신라수이전』과 『원광법사전』과 『비허전』 등에 흩어져 실린 것들에 대해 일연은 당시 사가들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의 결핍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해동고승전』의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어 보양의 전기를 온전히 재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술들의 오류를 그대로 따라 윤색하여 보양의 전기를 없애고 후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잘못 알게 하였다며 그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성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보양이목' 조에 나타난 일연의 인식을 통해 『해동고승전』의 역사의식과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의 동이를 읽어낼 수 있다. 동시에 『삼국사기』의 역사의식과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의 차이도 아울러 읽어낼 수 있다. 운문사의 개조인 보양의 전기와 그곳에 머물며 『삼국유사』의 대부분을 기술한 일연의 의식의 상통점을 읽어낼 수 있다. 나아가 김부식과 각훈의 역사의식과 일연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우리는 이 조목을 통해 보양이 일연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 태조, 보양의 신통력 높이사 상내려
태조 작갑사에 '운문선사'라는 편액 하사
일연, 운문사서 〈삼국유사〉 대부분 집필
보양은 일연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사)여래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삼보 귀의 하옵고!
여래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 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 걸음을 내 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무 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종회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상도동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포교원장 만 경 (춘천시 온의동 보통정사)

- 입 종 서 류 -

- 종단 가입 신청서 1부
- 사찰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각 1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불기2556(2012)년 가입 종도는 입종비를 면제 하여 드립니다.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 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 2282 - 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첫 번째 계단을 거쳐야만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계단을 차례로 거쳐 전당에 오를 수 있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첫 번째 계단을 거쳐야만 그 뒤에 두번째 세 번째 네번째 계단을 거쳐 전당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양 도 공 고
한국불교 법인
불교교육 법인
우리불교 법인
현대불교 법인
불교통합 법인
대승불교 법인
대중불교 법인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수익사업 공고
1. 연못장 가족화분 납골묘 설치
개별납골 그 위에 연꽃을 심어드림
500~2천만원(유리뚜껑은 선택)
2. 기일제사 안하고 명절재사만 지낼 집
3. 육지 부주갱이 나물 튀각용, 효소 주문용
울릉도 부지갱이와 같은 종류 부주갱이 나물
4. 전자납골당 500~1천만원 활용 1년
041)544-4441 한학선원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룡길 192-21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미륵존불을 봉안불사하여 포득천하 광제중생 하라는 천지의 명을 받들고져 하오니 미륵불성전 불사 자리를 제공 치성동참 하실 천심 깊으신 불자님 연라바람.
천지법사 육관
010-3123-1325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병)
• 야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천도재, 49재, 바라무, 점안식 등 아주 저렴하게 집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010-4193-1707
철학 1개월 수강으로 개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신도시 지역)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귀포 정당사)
010-5219-70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11-9707-3490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나비, 회심곡
010-6569-1010

중창한 사찰에서 공양주, 기도스님, 행자승 모십니다
(충남 천안 광덕사)
010-8008-5098

새로 창건한 사찰을 맡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및 불심 가득한 보살님을 모십니다
(전주지역)
010-9647-07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심 와 기 도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천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同聲相應하고 同氣相求할 因緣의 配를 찾습니다
010-6401-2023
57세 鄭悳溶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부처님, 삼존불 2자반 필요하신 분.
무료로 보시합니다.
010-5042-1003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 051)721-6444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미니 납골당 신축 전문 시공사
– 결로방지 100% / 온난방 100% / 환기 100% / 인테리어 100%
안치대 설치 전문 업체
– 황금색 스텐 안치대. 원목 안치대. 주물 안치대 . 강화유리 안치대
성심 시공사의 안치대 명성
– 성심시공. 믿음시공. 완벽시공. 심플시공 . 엄숙경건. 최상의 인테리어
※ 꼼꼼한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010-3390-1161

단씨맹파명리 전문교육처
맹파명리 원저자 중국 단건업 선생 혼인응기특강
일 시 : 10월 27일 ~ 11월 3일 (토,일 : 주간 6시간, 평일야간 : 3시간)
내 용 : 다혼, 독신, 도화, 데릴사위, 부모반대결혼, 남편.
처를 극하는 명, 나쁜혼인, 좋은혼인, 음란명.
강의장소 : 서울 / 홈페이지 : www.mangpa.com
학산맹파명리연구원 011-1743-0543
한국단씨맹파명리학회 031)918-7550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은 장소, 시간, 남녀노소 어느것 하나에도 구애됨 없는 우리불교인 모두의 인터넷 사이버법당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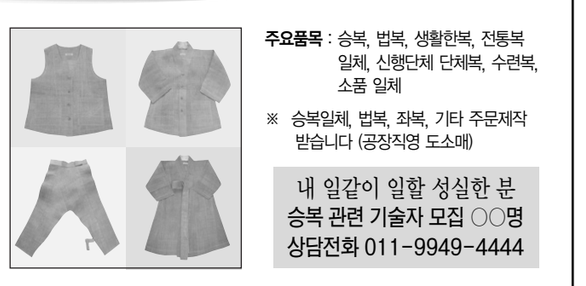
법문DVD와 CD무료보시

예천 법연선원 대공스님은
불교TV무상사 초청
일요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CD를 무료 보시합니다.
011-861-625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 거리)
◑ 전시관(2009년 준공) 2층 240평
대웅전, 종각, 지장전(120영가 분 모셔있음)
산신, 용왕전 외 2,500여평 (국도변 마을 안에 있음)
◑ 경주, 대구, 영천 30분 거리
◑ 전시관 고불상(20년 전부터 한국, 인도, 태국, 티벳,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직접구입 한 원품 불, 보살님) 총 구입가격 40억 이상.
◑ 인도 2000년 된 목재화상 고불상, 1000여년된 고불상, 일부 고불상은 훼손이 심하여 크리스탈 개금, 순금 개금불, 티벳에서 구입한 만다라.
◑ 2012년 초파일 참여인원 : 약 2500 불자님
◑ 2층 전시관 완공내역 : 15억원
◑ 눈물흘리는 약사여래불 좌상 있는 곳
◑ 주지스님 직접 양도
◑ 서포항 개발지로서 준 주거지, 매매해 두시기만 하여도 배 이상 매매가 보장.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26억 급 양도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일부 공개됨.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포교원임대
- 위 치 : 서울
- 법 당 : 60평
- 요 사 : 60평
- 임대료 : 1억8천
- 시설비 : 1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보증금 포함 시설비 총 2500만원 월 40만원 ,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서울 – 안양 – 의왕)
010-5466-3321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 평수:1층 40평요사채. 방3칸
- 2층 : 40평 법당
- 완벽한시설로써법회 즉시가능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 52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650만원

010-9963-1770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동구
- 평수 40평 3층
- 방2개,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현재 법회 운영중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485-019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 평수:1층 40평요사채. 방3칸
- 2층 : 40평 법당
- 완벽한시설로써법회 즉시가능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 52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650만원

010-9963-1770

사찰(급)안내

- 위치: 전북남원 지리산자락35년
- 총부지 1800평
- 요사채(목조기와지붕18평)
- 조립식 60평 • 황토찜질방 10평
- 용왕각,법당25평 • 산신각 6평, 독성각 2평(전체 콘크리트 기와지붕)
- 계곡에 흐르는 석간수
- 스님 입원관계로 급히 양도 코져함
- 양도가액 : 2억3천만원

010-4708-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사찰 대 80평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 산자락에 위치, 법회 민원 없음
- 약간의 텃밭
- 가액: 2억 5천만원

010-5346-4138

토굴 임법당(급)

- 위치 : 경북 의성 IC 10분거리
- 대지 93평, 방2, 법당, 공양간
- 황토 목조(약 100년 보수완료
- 상단불,좌우원불,토불,주련 기타 집기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급 가액: 3천 5백만원

010-4113-10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 소재
- 옆개울과 연못이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대지 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도 있음
- 가액 : 3억 (꼭 필요한분만에게 가격조절 가능)

011-861-62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542-222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오류동역 남부
- 약 1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절충불가)
- 철학원 운영중입니다
- 급 안내 합니다

011-729-6011

토굴·암자 안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완비
- 대숲 좋음, 비구니스님 환영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시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51)506-4038

땅(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리면 고곡리 (고령IC 근접 30m)
- 사찰터로 최적임

010-5626-6001
서 숙 광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평수 : 대지 ,63평
- 법당 .11평 요사채 ,25평
- 전세 : 3,000만원

(몸만들어와도 됩니다)

010- 7459-2977

포 교 원 안 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 대지 : 98평
- 요사채: 방3칸 거실:1 화장실 :1
- 법당 : 30평
- 보증금: 500 월세: 30만
- 시설비 : 1,300만원 (절충가능)

010- 4753-8289

토 굴 안 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 완비
- 대숲 좋음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 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 3백만원,시설완벽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278-1488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 단독 2층 중 1층 전부 50평
- 모든시설완비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10-7382-030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입구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95-789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통도사 주변
- 산사사찰, 대지 800평
- 1000년 고법당, 1000년 고석불
- 임대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
- 단청고법당, 요사채2동, 산신독성
- 계곡물 철철 흐르고 주차 30대

010-4640-4747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갓바위길
- 사용대지 200평
- 텃밭有 건평 약 70평 중 법당 안채 분리
- 넓은 마루, 화장실2
- 공기좋고 살기 좋은 조용한 절
- 보증금 2천 3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600만원(조정가능)

017-217-1919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전세가능

031)791-9022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찰터안내

-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야산)
- 10만평, 강원도 경계지점 관리: 임업용산지 등
- 혼재 40~60년 소나무 낙엽송 가득 전기: 도: 샘물접 사찰: 수목장: 전원주택 혐오시설 없음
- 앞터져 있고 이보다 싼땅은 없음 (주변 땅 20~30만)
- 가액: 평당 8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금정산
- 현대식 사찰 3층 68평 전체
- 기본시설 완비 운영중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기타조건 협의 결정
- 사찰운영 능력있는 60세전후 스님 원함
- 꼭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바람

010-2561-736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 가액 : 7억 9천만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
- 중앙 시장 입구
- 평수 약 30평, 2층 건물 중 2층
- 옥상사용
- 구조 : 임법당1, 방2, 입식주방, 화장실2
- 올전세 380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 2동 472번지
- 방2개 주방 욕실 법당 산신각
- 뒷산에 밭도있음
- 월세 : 1년에200만원 (전세는 서로조절가능)

054)632-7513 8시이후
011-9370-751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진구 전포3동
- 대지 : 26평
- 건물 : 26평 (무허가)
- 양도가 : 1억 (시설비포함,몸만들어옴)

010-4848- 8236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 (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80 (팔도시장내)
- 평수 : 35평 법당 . 소불 100불
- 에어콘완비, 즉시입주가능
- 전세 : 1,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0-8664-42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30억 7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삼보기획 사찰 안내

삼보기획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56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5억5천

1억정도에서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무관
법률, 세무, 무료, 상담 환영, 양도,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구입하실분 연락주세요

삼보기획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임야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주변시세 평당 22만원

011-809-7434 주인직접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 13-1, 산14-1
- 22,150평, 1/2지분, 평단 8,500만원
- 구인사 근접, 부동산 사절

- 위치: 경기 연천군 연천읍 사일 산 47번지
- 3937평 평당 6만원
- 사찰터 및 가정묘 최고적지 야산

010-3893-1749 / 010-2301-1749

토 지 안 내

- 토지주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 임야 곰봉산 아래 4만 8천평중 약 30,000만평
- 분할가능 해발 약 800고지 전망 트여있고
- 포장도접 : 전기 : 샘물콸콸 계획관리 임업용산지
- 등혼재 농장 개발 가능
- 평당 1만 3,000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대지 100평, 건물 1층 주택 24평
- 2층 법당 조립식 20평(종교집회장허가필)
- 아미타불, 좌우협시불, 지장불, 칠성불, 각각후불탱화
- 신중탱화, 산신용왕불탱화 에어컨 2개
- 즉시법회가능
- 관음단 관세음보살 108소불은 대체
- 가액: 1억 55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52)249-5532 / 010-2647-5532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 잡아함경 –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유기화학 박사)

㊦ 질병별 이미지힐링

“이미지 힐링, 가장 효과적 처치로 입증 될 것”

가벼운 질병이나 심각한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이미지 힐링을 만들면 효과적이다. 그럴수록 질병, 세포들과 신체 다른 부위들이 당신이 상상하는 그대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한 이미지힐링 요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학적 처치 중의 하나로 입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미지힐링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몸에 손을 얹거나 그들에게 정신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힐링을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이미지힐링이 치료를 받는 것 만큼이나 치유 효과가 있다.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편이 낫다.

이미지힐링을 통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도 신체 건강을 촉진할 수도 있다. 보통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질병에 따른 이미지힐링을 살펴보자.



암 : 요술 지팡이로 암세포에 마법 거는 상상

심장병 : 사랑 상징 심장에 ‘무조건 사랑한다’ 말하라

뇌졸중 : 타버린 들판에서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모습 연상

다이어트 : 물고기들이 지방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라

노화

노화 과정을 늦추려면 주름을 잡아당겨 펴는 것을 상상해 보라. 상상의 다리미를 가지고 주름을 편평하게 펴라. 원한다면 신체 내부의 세포로 들어가서 늙고 주름진 세포를 찾아보라. 다리미질을 해서 그 세포들을 반듯하게 펴라.

이제 상상의 윤활유를 가지고 당신의 모든 관절에 기름칠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모든 관절을 하나씩 기름칠을 해서 관절이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라. 빛이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들어 몸 전체에 환히 비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움직일 때 경쾌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하라.

당신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노화 속도’라고 적힌 다이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 다이얼이 어느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주목하라. 이제 시곗바늘을 뒤로 돌려 원하는 단계로 노화 속도를 늦추어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라.

알레르기

당신의 면역 체계가 수많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라. 그 세포들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상상해도 좋을 것이다. 세포들이 흥분해 조그만 움직임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라. 그들에게 걸어가서 그 세포들이 날 뛰는 것을 보라.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봐, 나야.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잖아. 진정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이나 하라고. 오늘은 그만 쉬어.”

그러고 나서 우두머리 세포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라. “이것 봐. (당신의 이름을 대며) ○○○라고. 우리가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

그의 부하들은 환성을 지르면서 테니스나 당신이 즐기는 어떤 운동이든 하기 시작하고 일광욕을 즐긴다. 그러면 당신은 우두머리를 껴안아 주고 거기를 떠나라.

천식

좁다란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기관지 한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제 작은 인부들이 터널을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 넓히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이 터널의 확장된 크기를 유지하고 터널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법의 확장 링을 끼우는 것을 보라.

고혈압

팽창한 풍선이 당신의 혈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풍선이 얼마나 팽창해 있는지를 알아차려라. 이제 풍선의 매듭을 풀어 공기가 서서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눈여겨보라. 공기가 빠지면서 쉭 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어보라. 풍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보라. 풍선이 작아지고 압력이 줄어들면서 당신의 혈압이 낮아지고 있다고 확신하라. 이미지힐링과 더불어 호흡을 해 보라. 혈압을 낮추는 좋은 방법은 고요히 앉아서 호흡하며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은 걷고 있을 때나 책상 앞에 앉아서 2~3분 동안 할 수도 있다. 그저 깊고 고르게 호흡을 하라.

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라면, 약이나 방사선 입자를 빛의 공이라고 상상하고, 그 빛을 쬐는 순간 종양이 녹아버린다고 상상해 보라.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공 모양의 면역 세포들이 그 찌꺼기를 전부 핥아 먹는다고 상상하라.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암세포에 마법을 건다고 상상하라. 당신 스스로 주문을 만들 수도 있고, 해리 포터의 주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각각의 암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색깔을 바꾸어 건강한 분홍색 세포로 변형시켜라. 암세포 하나하나마다 전부 이렇게 하라.

암세포를 자신의 일부로 보고,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암세포와 나란히 앉아 그들을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것을 상상해 보라. 암세포가 자기들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라. 그러고 나서 암세포에게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고 말해 주라. 이제 암세포들이 활짝 웃으며 기쁘게 당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상상하라.

심장병

심장을 상상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쪼그라든 자두 같은 것으로 상상해 보라. 이제 상상의 천과 분홍색과 녹색 마법의 액체 세제를 가지고(분홍색은 사랑을, 녹색은 재생을 상징한다) 이 세포들을 하나씩 부드럽게, 마침내 하나하나가 완벽한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닦는다.

심장은 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니 심장에 더 많은 사랑을 집어넣는 것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심장에 말을 거는 것을 상상하라. 당신이 심장을 아주 깊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해 주라. 심장을 깊이 껴안아 주라.

뇌졸중

손상된 뇌 영역의 내부가 나무와 덤불이 다 타 버린 들판과 같다고 상상해 보라. 마치 산불이라도 났던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산림을 벌채해서 남은거라곤 불모지뿐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린다고 상상해보라. 땅에 씨앗을 하나 심고,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눈여겨 보라. 의학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그런 그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경의 연결망 모습과 나뭇가지 모습의 유사성에 주목하라.

마치 식물이나 꽃이 씨앗으로부터 다 자란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찍은 저속도 촬영 사진을 몇 초 만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것을 보라. 나무의 가지가 새로 자라나는 것을 눈여겨보라.

이제 다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가 자라나는 것을 눈여겨보라. 또 나뭇가지가 자라면서 두 나무의 나뭇가지가 서로 향해 가지를 뻗어 연결되는 것을 보라.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전기 충격이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흐른 다음 움직임이 부자유스러운 신체 부위로 흘러내려 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눈여겨보라. 나뭇가지들이 이웃한 나무의 가지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고 전기 충격을 눈여겨보라. 숲 전체에 나무를 다시 심어라.

다이어트

작은 팩맨이나 피라니아 물고기들이 당신이 제거하고 싶은 비장을 먹어 치우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들이 지방을 아주 맛있게 먹어 치우는 것을 보라. 그들이 점점 더 뚱뚱해지는 것을 눈여겨보라. 정말로 배를 가득 채우자 그들이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띠고 당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지방이 많은 부위의 세포들을 상상해 보라. 세포들을 따라다니면서 호스로지방을 흡입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각각의 세포에서 지방이 빠지면서 피부가 팽팽해지고 정상 세포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 각각의 세포가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상상해 보라.

우울증

뇌나 심장의 한가운데 녹색이나 분홍색, 흰색의 공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 공을 작은 촛불처럼 보라. 이것은 당신의 행복을 나타낸다. 공의 크기에 주목하라. 이제 행복을 나타내는 다이얼을 상상하면서 단계를 높여 보라. 이렇게 하면서 빛이 점점 더 크고 밝아지는 것을 보라. 내면의 강인함과 행복 사이에 상징적인 연결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확인하라. 계속해서 다이얼을 돌리면서 빛이 점점 더 크고 밝아지는 것을 보라.

빛이 머리나 심장, 당신의 온몸으로부터 퍼지는 것을 보라. 빛이 당신의 동맥과 정맥을 통해 흐르는 것을 보라. 그 빛이 세포와 기관들을 간지럽히고 있다고 상상하고, 세포와 기관들이 미소 짓는 것을 보라. 당신의 피부 위로 빛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피부 세포들이 미소 짓는 것을 상상해 보라. 당신 자신이 이 강력한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다신의 힘과 행복이 대단하다고 확신하라.

DNA 이미지 힐링

나는 2만5000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DNA를 크리스마스트리 전구로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스위치가 점멸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때 유전자들은 단백질, 효소, 호르몬 등 여러 물질을 생성한다.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가 점멸하는 것을 통해 신체가 성장하고 복구된다.

이 이미지힐링의 요점은 상징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끄고, 질병을 치료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는 것이다. 이 이미지힐링은 마음-DNA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질병이 발생한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상상해보라. 그 신체 내부로 들어가 DNA를 들여다 보라. DNA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른다면 인터넷이나 책에서 DNA의 그림을 찾아보라. DNA를 두 가닥의 꼬인 스파게티처럼 꼬여 있는 가닥으로 상상해보라.

이제 마음속으로 ‘내게 이 질병을 지속시키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보여 달라’고 말하라. 일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비해 더 빛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심호흡을 하라. 숨을 내쉬면서 다이얼을 낮추어 완전히 ‘꺼짐’으로 설정하라. 빛이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이윽고 숨을 완전히 내쉬면서 빛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내게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보여 달라’고 말하라. 일부 유전자가 쉬고 있는 유전자에 비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숨을 내쉬면서 다이얼을 올려 완전히 ‘밝음’으로 설정하라. 빛이 점점 더 밝아지다가 이윽고 숨을 완전히 들이쉬면서 빛이 아주 환해지는 것을 보라. 숨을 내쉬면서 유전자들이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제 당신의 세포로부터 되돌아 나오는 것을 상상하라. 세포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치유된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세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예를 들어 이 이미지힐링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병든 세포나 신체 부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상해보라. 암에 걸렸다면 마치 종양에 달린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빼 버린 것처럼 종양이 줄어들어 아예 없어지는 것을 보라.

이런 이미지들을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확증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당신의 온몸을 상상하고 자신의 몸이 쉽게 움직이는 것을 보라.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것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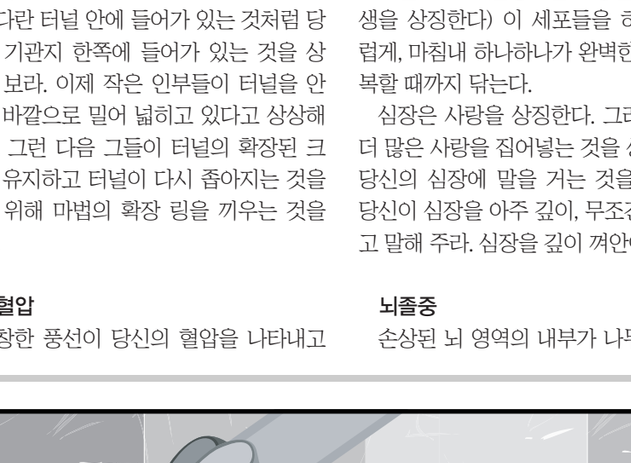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마치 상처 입은 듯이 땅 위에 누워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그것을 상처 입은 작은 생물로 보라. 그리고 그 유전자가 생명을 되찾도록 간호하라. 약과 영양제를 주라. 그 유전자가 더 건강해지면서 빛을 내는 것을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벽한 건강을 찾는 것을 보라. 그러고 나서 건강해지면 그 유전자가 DNA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라. DNA가 엄청난 힘으로 신축성을 보이고 빛의 파동이 거침없이 이동하는 것을 보라. 이제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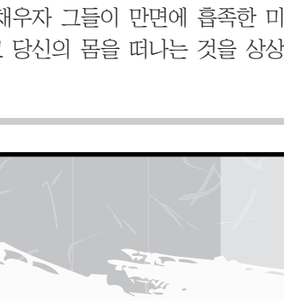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39)

어느 비구의 전생

음탕한 왕은 백성들의 칼에 맞아…

한 나라에 브라흐마닷타라는 왕이 살았다. 왕에게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다.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는 두 왕자를 모두 사랑했기에 어떤 왕자를 왕위에 앉힐 것인지 매일 고민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고민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님, 저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너는 왕위에 욕심이 없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속세를 떠나 도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왕은 작은 아들의 뜻을 굽힐 수 없어 속세를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 세월이 흘러 브라흐마닷타 왕은 죽고 첫째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왕자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

신하들은 왕들이 모두 죽자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아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지금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소."

"예전 부왕에게 아들이 두 명이라는 소릴 들었소. 그 중 한명이 지금 왕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속세를 떠나 산중에 계시다 들었소. 그분을 찾아 왕위를 잇도록 합시다."

신하들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던 둘째 왕자를 찾아 갔다.

"지금 이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부디 청하옵건대 왕자님께서 왕위를 이어주십시오."

"난 속세가 싫어 떠난 사람이오. 왕위를 이어받지 않겠소."

"지금 왕자님께서 왕위를 이어받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흉흉하오. 지금 왕이 된다면 내가 어떤 모함을 당할지 모르오. 난 싫소."

하지만 둘째 왕자는 신하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왕위를 이어받기로 수락했다. 둘째 왕자는 궁으로 돌아가 왕이 됐다. 그런데 왕이 된 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다.



삽화 · 강병호

여자를 너무 좋아해 매일 같이 궁녀들과 놀아나고, 신하의 부인들까지 탐했다. 심지어 왕은 나라의 모든 처녀들을 궁으로 끌어들였다. 그럼에도 그는 애욕을 절제하지 못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나라에 모든 처녀들은 혼인하기 전, 나와 하룻밤을 보내야만 혼인할 수 있다."

결국 나라의 모든 처녀들은 집에 숨어 나오길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소변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근댔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여자에게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아쇼. 여자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소변을 본단 말이요?"

"아니. 같은 여자끼리 무엇이 부끄럽다 그러시는 겁니까?"

"난 남자요. 어찌 나를 여자라고 하시오."

"이 세상에 남자는 왕 단 한 사람 뿐이오. 왕을 받들지 않으면, 혼인도 하지 못하니 이 세상에는 모두 여자만 남은 것이지 않소."

여자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소. 평생 혼인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오."

"우리 모두 왕을 몰아냅시다!"

이 말은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져, 모두들 왕을 죽이기 위해 궁으로 향했다. 신하들 역시 사람들과 합심해 왕을 몰아내기로 했다. 그때 왕은 연못가에서 한가롭게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신하와 백성들은 연못가에 숨어있다 왕을 덮쳤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왕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당신은 음탕하기 짝이 없고 여자밖에 모르오.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라 할 수 있겠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소."

왕이 말했다.

"그동안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잠시 애욕에 눈이 멀었지만, 이제 부턴 나라를 잘 통치할 터이니 부디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

"설사 지금 우리가 당신을 죽이고 죽게 된다 해도,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소."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앉힌 건 너희다. 분명 나는 산속에서 도만 닦으며 살고 싶어 했다. 억지로 나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죽이려 하는 것인가."

신하들은 왕의 간절한 부탁에도 꿈쩍조차 하지 않았다.

"좋다. 나를 죽이거라. 대신 내가 도를 깨치지 전까지 나는 다음 생에서 너희들을 계속 죽일 것이다."

결국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칼에 맞아 목숨을 다했다. 다음생에 다시 태어난 왕은 결국 살인자가 돼 자신을 죽인 백성과 신하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지만 훗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비구가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동의보향 덤 증정행사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덤을 증정해 드립니다.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자연에서 얻은 동의보향의 아름다운 향기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달래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향은 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목 각 단 청 운 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05cm 하단 가로 3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대행 스님

일체 만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8월 추석을 지내시는 뜻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음미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8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첫 곡식을 밥을 지어서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중생과 더불어 같이, 이 지수화풍이나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그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에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다면 바늘 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없으면 당장에 생명을 유지 못하는데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쐬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일체 만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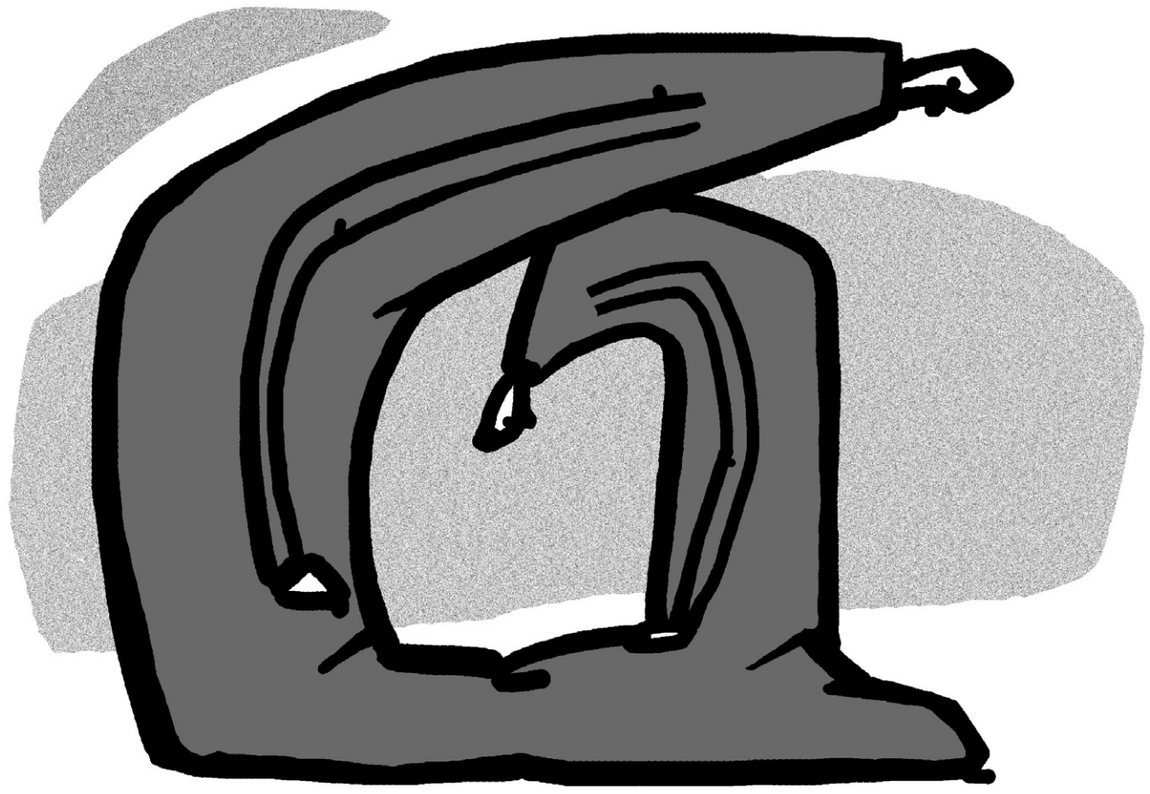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리고 망한 거는 또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죠. 박 싹이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씨도 아니요 사람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로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도,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무서운 것은 둘째치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거기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사상이 그르다 해서 만약에 부모한테 어떤 판정이 내려졌다면 그 자식까지도 연관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이 현실에 결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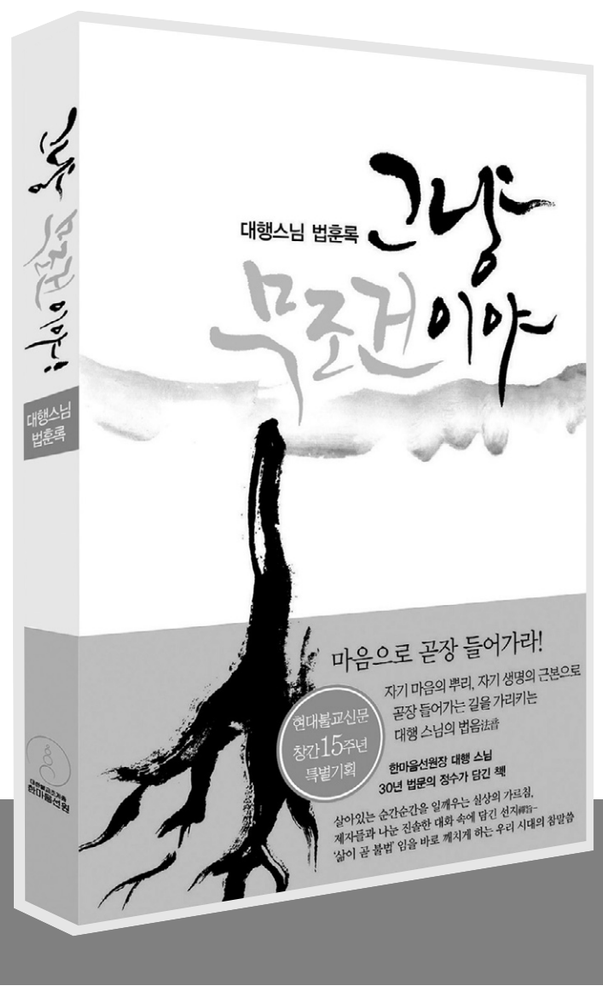
우리가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써 이렇게 살지만, 한순간에 꿈같이 내 몸이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제각기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몸도 가져갈 수 없고 보물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는 부부와 자식도 가져갈 수가 없고, 모든 권속도 가져갈 수가 없고 권리도 아무것도, 친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짐승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벌레로 가지고 나오느냐, 새로 가지고 나오느냐, 독사로 가지고 나오느냐, 개로 가지고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사는 게 뭐, 살아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사시다가, 만약에 새 새끼나 짐승이나 땅 속의 벌레나 독사가 짝짓기 하는 데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넝마는 넝마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깡통은 깡통전에 있고 무쇠는 무쇠전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짐승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이 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짖을 수밖엔 없는 겁니다. 새로 나왔다면 새로 지저귈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이나 곱게 해놓고 뭐가 됐는가 발자취를, 발자국을 보는 유래가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은 그 재를 가지런히 해놓은 거기에 구렁이 표시가 나고, 사람이 됐으면은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나고 이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옥이 우리 눈앞에 그냥 널렸고 천당도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 진실로써 그냥 막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금으로다가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방에 가서 다시 재생돼서 나오지만 무쇠나 넝마라면은, 깡통이나 그런 철 종류라면은 가서 재생이 돼도 철 종류로 그냥 나오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 세상만사가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세세생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관련이 되고 자식에게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모두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대로. 이걸 소홀히 생각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로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떠한 '병이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깜빡 마음이 죽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체내의 모든 의식들에게 하나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잘못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못되는 거, 잘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되는 겁니다. 입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컴퓨터는 물론 사람이 넣는 것만 입력이 되지만 이 자동적인 심성의 콤퓨타는 아주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도, 큰 거나 작은 거나 세세한 것까지도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거는, 알고 입력이 된 것은 현실에 알게끔 나오고, 모르고 입력이 된 것은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과정에서 천차만별의 이 마음 도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드리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살 때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가 맡겨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해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놓고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넣으면 넣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릇이 비고 또 넣으면은 또 비고 이렇게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런 쉬운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아주 손쉽게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생각이 모자라서 내다볼 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먹어보지 못해서 맛을 모르고, 듣질 못해서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항상 독 속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독이라면 독 속에서 나와야 내 몸뚱이가 독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는 건데, 당신네들 이 몸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서 나와야 그 자기의 몸뚱이 항아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아리 속에 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항아리를 굴린단 말입니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면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단번에 그 뜻이 들어오는 겁니다, 단번에! 전자에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러던 것이 그냥 단번에 '아, 저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말이고….' 이런 것이 아주 단번에 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부처님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깐요.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 땅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자기가 그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 자기한테다 맡겨놓고
> 지켜보고 체험해라.
>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마음이라는 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것을, 한생각이면 두루 할 수 있는 것을, 한생각에 바늘 구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갖다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해가 갑니까?

대중: 예.

큰스님: 이해가 가셔야 될 겁니다. 여직껏 그래도 마음공부라고 이끌어왔고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 마음도 전깃줄이 돼서 한 전깃줄이 내 전깃줄에 와서 닿으면은 불이 밝게 켜지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 전깃줄도 아니요, 저 전깃줄도 아니다, 단, 마음과 마음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듯이,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은 밝게 불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다 밝게 살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가정도 그렇고 넓게 생각한다면은 어떤 지역도 국가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지역이 공동 묘지였습니다. 공동 묘진데 공동 묘지의 그 시체들을 각자 이렇게 태운 게 아니라 그냥 한데 몰아서 갖다가 뿌려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공동 묘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당할 수밖에. 도둑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여기에다 절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하나하나가 쭉 그냥 물밀듯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어디 대답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야만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

신도1(남):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큰스님: 말로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이 마음 속의 진실과 또 극치적인 나라는 게 없고 상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래가 되죠. 이 여래, 이 자체는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두가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여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 둘이 아닌데 뭐.' 둘이 아닌데 해도 체가 없는 거니까, 나도 마음이 체가 없는 것이요 상대도 체가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입력을 한다면 모두 두드러지지 않는다. 마음 속에 이 세상을 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꺼내도 줄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러한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방편으로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한데 떨어트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와 하는 자가 항상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밝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사이도 없고 내가 말한 사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없고. 그 원인이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만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에게) 삼배를 일배로 하세요. 허허허.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삼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1(여): 스님, 간단하게 제가 무와 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 사람들이, 전체가, 무와 유가 같이 이렇게 산다는 걸 근래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 제사(祭祀)라든가 이런 걸 지낼 때 집안 전체 싸움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 무의 세계에서 요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숙모님이 추석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로 산소를 갔다 오다가요, 그 이웃집에서 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도망가고 뒤에서 삽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연속 연속 낫을 들고 들어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무의 세계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가 무와 유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스님: 그런데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이 되고 가라앉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齋)를 지내거나 천도를 시키거나 하더라도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천천히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찹쌀가루 전병 부쳐서 세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아홉 조각, 열두 조각 이렇게 해놓고…. 일체 부처님의 조상이나 이 중생들의 조상이나 따로 없으니까 모두가 한 조상, 한마음의 조상으로서 일체 영령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표시! 저 불 켜놓고 향 켜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 영령들이 상을 차려놓으면은 상 차려놓았다는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벌써 캐봅니다. 상 차려놓았다는 생각을 벌써 영령들이 알거든요. 그 상 차려놓은 것만 알게 된다면 영령들이 어떻게 천도가 됩니까? 먹을 생각만 하겠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 그 한 티끌만도 못한 우주를 한꺼번에 거기다 제시한다면, 우주 삼세를 다 제시한다면, 문을 열어준다면 그건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가 됐는데 왜 또 지내느냐, 이러겠죠? 그거는 죽어도 마음들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꽉 찰 수도 있고 천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자식들이 은혜를, 부모의 묵은 빚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둘째는, 그 밑에 자식을 기르는데 제도를 하기 위해서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 방편을 쓰더라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방편을 써서 그 죽은 영령들도 산 사람들의 영령들도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돈만 받고선 상을 안 차려줘. 이런 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상 차려주고 목탁이나 두들기는 데로 가야지 별수없죠.

질문자1(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양쪽 집에서 지내거든요. 큰집, 작은집에서.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제 마음자리에다 제사를 지내고는 제사 지내러 두 집에 다 안 갑니다. 그냥 내 마음자리에 전생이 있다면….

큰스님: 이거 봐요. 좀 사람이 쥐락 펴락이 있어야지. 바늘을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게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가더라도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큰 집에서 그렇게 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서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두 응해서 따라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는 영령들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댁이 마음이 흥락하고 좋으면은 조상님도 좋고. 그런데 그 몸뚱이가 뭘 잘났다고 거기를 안 갑니까? 하하하. 그놈의 '나' 라는 거를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고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마저 빼놓고 슬근슬근 물레방아 돌아가듯 슬근슬근 돌아가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 도서



붓다북 도서 · 음반 · 용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953-7181

오프라인 매장 운영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명상 음반



불교 용품



불자 세상보기

대통령 후보자 검증의 불교적 기준



윤세원
인천대교수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세간의 눈과 귀와 입들의 관심은 세 분 유력 대선후보자들의 동정과 당선 가능성 등에 함몰되어 버릴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도 엄중한 자리로 적어도 임기 5년 동안은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하위조직들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이고, 이 구조의 정점에서 특정 영역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축소 재편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선후와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대 이러한 능력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감각이라는 필수적인 요건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 필수요건들의 결함은 바로 국가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통령이 편향적 시각의 소유자일 경우 파생되는 공동체의 분열 징조를 불교도들은 이 정부 하에서 지겹도록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소중하게 써야 할 국가적 에너지들이 낭비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 권력행사는 모든 측면에서 공공성과 정당성이라는 명분의 저항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소고기 파동' '행정수도 이전' '내곡동 사저 문제' 등을 통하여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당선이 끝이 아니라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당성과 공공성을 요구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불교에는 통치자의 자질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다. 필자는 불교도들에게 이 가르침들을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싶다. 부처님이 가르친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첫째 적법한 선거운동과 공약의 타당성, 둘째는 재산형성의 투명성과 살아온 과정에 투영된 공공성, 셋째 삶의 질 개선 능력, 넷째 도덕적 행위의 솔선수범 여부, 다섯째 정책의 추진능력과 지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면모, 여섯째 권력의 비공공적 행사에 대한 억제능력, 일곱째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는 태도, 여덟째

도덕적 행위와 양심
정책 추진 능력과 지혜
정토로 만드는 리더의 기준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 아홉째 약속과 규율에 대한 존중심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법적 잘못은 없다' 고 강변을 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 그러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법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모르는 지각없는 사람들이다. 아들, 처, 동생, 비선조직이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대통령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대통령이다. 나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유산들을 업신여기는 후보는 제외대상이다. 과거의 경력에서 관용차 사용 일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봉사활동 경력도 도덕성·공공성·투명성·도덕적 수범성 등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통치자의 자질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권력의 공공성 상실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견제와 윤리적 예방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통치자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아직도 유용한 것이며,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개방된 사회인 오늘날에는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도들은 좋은 대통령의 선출이 바로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후보자들을 엄격하게 검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실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비구니의원연구회에 거는 기대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

예수의 아내가 거론된 고대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신학교수가 발견한 서기 150년경의 문서가 '예수 아내의 복음서' 라는 주장이 발표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예수의 아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몇 해 전 소설 '다빈치 코드' 에서도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라고 주장하여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 조각의 첫째 문장이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니' 이라고 한다. 만약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여성 기독교인들은 매우 신나는 일임에 분명하다. 기독교에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금단의 과일을 따먹도록 아담을 유혹한 죄인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에게는 열등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굴레가 항상 따라다녔고, 교회나 성당에서 여성은 남성과 결코 평등할 수 없었다. 여성 목사가 등장한 것도 최근의 일이요, 여성신부는 아직도 꿈도 못 꿀 일이기에 수녀님들이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신부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불교는 비구니가 비구와 동일한 수행자이자 성직자로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고, 똑같은 수행을 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옷을 입는다. 심지어는 똑같이 설법도 하고, 대학에서 비구니교수가 비구제자를 가르키기도 하며,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비구니교단이 없는 동남아 불교여성들은 한국의 비구니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매우 부러워한다. 필자는 '샤카디타' 에 두 번 참석하여 많은 동남아 비구니스님들(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비구니승단이 없어 비구니수계를 받지 않은 수행자임)을 만났다. '샤카디타' 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여성불자대회로 1987년 조직되었는데, 한국비구니승가는 1991년부터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는 중요한 대회이다. '샤카디타' 에서 만났던 많은 불교여성들은 한국의 비구니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즉 한국의 비구니는 비구처럼 활기차게 걷고, 비구처럼 목소리도 크고, 비구처럼 키도 크고, 비구처럼 풍채도 당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구니승단조차 사라진 동남아 비구니들에게는 독립적인 비구니승가의 유지. 존속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종단의 비구니차별적인 현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고 또 실망할까?

비구니승가는 오늘날 조계종단에서 같은 출가자이면서도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단지 비구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사 주지가 될 수 없고 중앙종회의원 전체 81명 가운데 10명만이 가능하다.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에 '비구' 만 할 수 있도록 종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구니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종단의 현실이다. 1994년 개혁종단에 의해 비구니 10명이 중앙종회의원으로 할당받았고, 그로부터 거의 이십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비구니승가의 법적 지위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그리하여 올해 2월 비구니승가의 위상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비구니승가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었고, 비구니 참종권을 확대하기 위해 비구니 종회의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제 끝난 191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산중총회법은 비구니승가가 그토록 원하던 산중총회법이 아니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에서 비구니는 비구승의 5분의 1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 5분의 1도 아니다. 기존의 말사 비구니주지스님들은 산중총회에 들어갔는데, 이분들도 포함해서 5분의 1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7분의 1, 혹은 8분의 1이 될 것이다. 비구니는 비구의 5분의 1밖에 자격이 안되는가? 호주제가 폐지되고, 남녀차별은 정부가 법으로 처벌하며,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는 여성 30%할당제를 실시하건만, 국가의 법보다 못한 종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종회 기간 중에 비구니승가의 위상 정립과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 가 발족했다니 다행이다.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 는 재가여성불자들이 올바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는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조계종단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비구니종회의원이 비구니권익을 위해 정기적인 연구.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에 아마도 많은 비구니스님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비구니승가와 재가여성불자가 불교여성으로서 서로 지지하고 비구니승가가 명실상부한 재가여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재가여성불자들에게도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社說

산중총회법 개정 환영한다

옛 속담에 '중 벼슬은 닭 벼슬보다 못하다' 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주지나 사중 소임이 수행하는 데 아무런 득이 없다고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실제 기독교에는 '교회에서 직책은 순교자의 순서를 정하는 것' 이라는 속담이 존재한다.

이는 모든 종교가 스스로의 권력을 경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1994년 종단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주지 선거제도는 18년 간 금권선거 및 선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보여왔다. 잊을 만 하면 일어나는 주지 선거 비리는 세간이 출세간을 걱정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최근 들어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이 선거가 아닌 합의 추대 형식으로의 전환을 명문화 한 산중총회법 개정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계종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선거가 아닌 만장일치 합의 추대 형식으로 바뀌고, 주지 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진다. 산중총회에 비구니 구성원 참여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벌도 명문화됐다.

무엇보다 추천제의 도입과 함께 본사주지 선출과정을 단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시켜 매표행위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종도들은 개정된 법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집행부는 올바르게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스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 추석 태풍 이재민과 情 나누자

곧 있으면 우리민족 교유 명절인 추석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왠지 쓸쓸하다. 유럽발 금융위기, 고유가, 물가 인상의 경제적 어려움과 제 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제 16호 산바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됐고, 농작물 피해가 커서 농가가 울상이 됐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정적 요인이 맛물려 있다. 하지만 사회 온정의 열기가 어수선한 정권 교체기에 식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교계의 일선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예년에 비해 추석을 맞아 기업체들의 후원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의 참된 의미는 보름달 같이 풍성한 마음으로 이웃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이 나눔의 정신을 가진다면 추석은 좀더 풍성해 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누어줄 때 느끼는 것이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절약하고 줄여 이웃돕기에 나선다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이다.

가족이 함께 만나고 정을 나누는 추석은 특히 가족이 없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기 마련이다.

이들이 '풍성한 한가위' 를 보낼 수 있게 끔 도와주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온 정은 곳곳에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웃에 대한 나눔과 관심이 증대 될 때 어려운 이웃도 화답하게 된다.

그 같은 경험이 공동체 의식의 축적이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물론 조계종을 비롯한 우리 불교계 종단들도 추석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더욱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과 농가에게도 우리들의 따뜻한 온정을 모아 보시행을 펼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화제의 신간 작대기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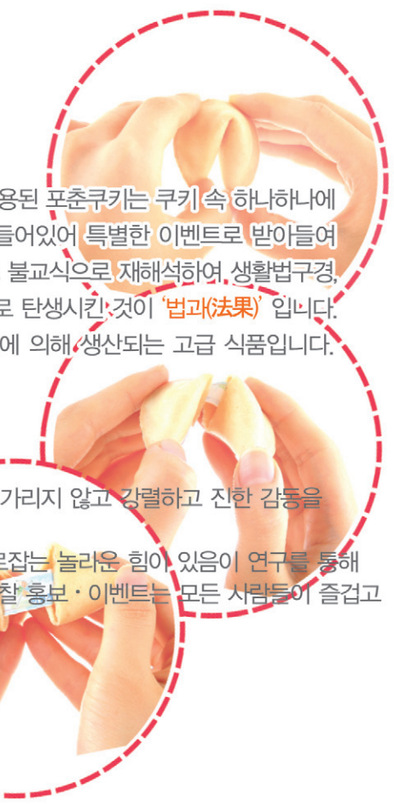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봉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02)2603-100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010-9334-3967
봉 부처님 오신 날
www.kidobal.com 051)442-6556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주지일광
소원성취 인등기도 합십시오
대광명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달음산 정관암 017-571-0097
대한불교조계종 절 어린왕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051-783-303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053)743-7070
봉 부처님 오신 날
www.bssw.or.kr
법수선원 02)445-9911, 3411-1139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부산포교원 오세암
051) 751-6103
www.oseam.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051)416-460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부산연등축제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명부전 건립 불사 동참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062-362-2091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옴마니반메훔
064-744-0808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오등선원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점등식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암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암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오등선원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